

4世紀의 日韓關係

濱田耕策

【國文抄錄】

집필에 즈음하여
本 論

제1장 百濟의 국가형성과 倭國과의 관계－
七支刀를 둘러싼 日韓關係－

머리말

I. ‘七支刀銘文’의 연구사

II. ‘七支刀銘文’의 관독

III. ‘七支刀銘文’의 歷史像

맺음말－七支刀를 둘러싼 국제관계－

제2장 高句麗 廣開土王碑文으로 읽는 日韓
關係와 고구려의 國家像

머리말

I. 廣開土王의 치적

II. 修辭法이 노래한 大王의 ‘聖戰’

III. ‘臣民’과 ‘奴客’

맺음말

제3장 <碑文>과 《三國史記》와 《日本書
紀》의 日韓關係史像

머리말

I. <碑文>과 《三國史記》

II. ‘辛卯年’條의 이해

맺음말에 대신하여－《日本書紀》 조선
관계기사의 기본성격－

附 論

제1장 古代日韓關係史의 탄생－朝鮮半島의
민족사회와 中國의 郡縣 설치－

머리말

I. 古朝鮮(衛氏朝鮮)의 사회－漢의 郡縣
통치의 前提－

II. 樂浪郡과 玄菟郡－半島의 다양성과
列島社會－

III. 郡縣의 사회동향

IV. 郡縣에의 대응－馬韓과 倭 vs 高句麗
와 新羅의 대립축의 발생－

V. 군현통치의 소멸과 百濟·倭, 高句
麗·新羅의 대응

맺음말

【文獻目錄】

【國文抄錄】

4世紀의 日韓關係

濱田耕策

本論의 基本的인 觀點은 古代 日韓關係史를 古代諸國家의 形成과정의 안에서 이해

할 것을 염두에 두고, 倭國과 百濟의 잔존세력이 白村江을 무대로 唐과 新羅, 더욱이 高句麗와의 사이에 백제 부흥 전쟁을 전개하기에 이른 국제관계사를 전망하는 것으로 된다.

이 전망 아래에서, 본론은 4세기의 일한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4세기의 일한관계를 위와 같은 전체적인 展望에서 이탈하여 논하는 것은 그다지 깊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4세기의 일한관계는 여러 소국들이 王權國家로 수렴 또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관계사이다.

이 세기의 파악 아래, 본론의 附論 <古代日韓關係史의 誕生>에서는 4세기 관계사의 前史로서 한반도 諸小國과 일본열도 諸小國의 관계를 개시케 하는 구심력으로서 B.C. 108년에 금일의 平壤市 大同江 左岸地域에 설치된 前漢의 樂浪郡을 중심으로, 소위 ‘漢의 四郡’과 3세기 초에 낙랑군을 2分하여 황해도에 설치된 帶方郡의 2郡을 위치시켰다. 이 2郡에의 諸小國의 통교가 일한관계사를 그때까지의 인접지역간의 교류를 연쇄시켜 遠隔地間交流으로 進化시켰고, 그로 인하여 문물의 교류가 필연적으로 경제교류와 그리고 정치교류의 측면을 낳아왔다고 이해하였다. ‘조선반도의 민족사회와 중국 군현의 설치’라고 副題를 단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서 유의하고 싶은 점은, 반도와 열도의 小國社會는 각자 거시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는 사회였어도, 접근해서 볼 때 다양성을 포함한 사회의 정치의 작은 세계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결국 고대 일한관계가 高句麗・新羅 vs 百濟・加羅・倭國의 기본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基層이라고 이해된다.

本論은 <七支刀銘文>과 <廣開土王碑文>에 초점을 맞추어, 이 同時代史料의 해석을 통하여, 4세기부터 5세기로 이행하는 고대일한관계의 基本軸과 그 具體像을 고찰하였다. 이 두 개의 金石史料는 단지 고대 일한관계 중에서만 검토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고대 日韓의 정치관계의 기반인 中國王朝의 대외정책과의 관계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거기서 이제까지의 여러 연구를 검토하고, ‘七支刀銘文’에서는 372년 봄에 百濟의 近肖古王은 東晉에 사신을 보내 ‘鎮東將軍領樂浪太守百濟王’에 책봉되는 것을 계기로 하여, 이미 泰和 4年(369)에 동진에서 주조되어 있던 ‘百兵을 辟하는’ 呪力을 가졌다고 祈念된 ‘七支刀’를 하사받자, 고구려와 興亡戰의 한 가운데 있던 百濟王과 世子는 이 呪刀인 七支刀를 東晉으로부터 하사받은 국제관계의 의의를 倭王과도 共有하기 위해, 이것을 복제하고 그 경위를 裏面에 象嵌한 百濟製 ‘七支刀’를 왜왕에게 주었다고 해석하였다.

그래서 고구려와 그 영향 아래 나아가는 신라에게 대항하는 백제와 왜국과 가라의 관계는 시대의 진행과 함께 서로 굳게 연결지어간 것이고, 그 관계의 하나의 정점을

전하는 사료가 ‘廣開土王碑文’이다. 碑文은 신화를 冒頭에 걸어 고구려 왕권의 정당성을 계양하고, 광개토왕이 전쟁 업적을 토대로 쌓은 고구려 중심의 국제관계를 서술하였다. 여기에는 고구려·신라 vs 백제·왜국·가라의 기본관계의 굳히기와 바로 응하는 전개를 간파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동시대 사료와 중국사서에 기재된 古代 日韓關係史像과 후세의 編纂史書인 《日本書紀》와 《三國史記》의 關係史像과의 整合的인 이해는 가능한지 아닌지의 문제와 과제를 검토하고, 編纂史書 중에서도 《日本書紀》의 숨겨진 史料性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기술했다.

집필에 즈음하여

“역사는 현대와의 대화이다.”라고 한 E.H.카아의 말은 역사를 생각하고 역사를 배우는 자로서는 매우 적절한 말로 들린다.

그런데 대화자가 서있는 ‘현대’와 대화자는 그 자체로 역사 가운데 있다. 그 때문에 ‘역사와의 대화’에서 도출된 역사상과 거기에 입각한 역사인식은 불변의 것이 아니다.

오늘날 고대 일한관계사의 역사상을 주시할 때, 일본의 고고학계나 역사학계의 관계사연구의 긴 역사와 거기서 얻은 연구의 축적은 매우 풍부하다. 그 반면 한국 학계에서는 일본에서의 연구 축적에 숨겨진 연구시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경향이다.

일본고대사학계의 현저한 경향은, 초기에는, 《일본서기》 가운데 말해지는 ‘神功皇后의 삼한정벌’담에 기인한 ‘야마토 조정에 의한 조선반도 남부지역의 정복’과 그로 인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야마토 조정에의 조공’의 개시와 그것의 유지를 위한 야마토 조정의 對한반도 정책이라는 역사상 이른바 ‘皇國史觀’의 고대 일한관계사像이었다.

그리고 1945년 이후 황국사관의 속박이 풀리자, 일본 고대국가의 형성과 전개를 세계사 속에서 고찰하는 시각에서 故 江上波夫의 ‘기마민족정복왕조론’으로 대표되듯이, 일본고대사를 북·동아시아 제민족의 역사와 관련지어 고찰하는 넓은 시각이 지지를 받아왔다. 이 시야의 확대와 함께, 1940년대에 ‘京城帝國大學’에서 일본인 역사학자 밑에서 조선사 연구를 시작한 박시형·김석형의 두 사람이 1960년대에 그때까

지 자신들이 품고 있었을 고대의 일한관계사론을 공표하였다. 그것은 ‘황국사관’의 고대일한관계상을 역전시키는 역사상이다. 그것은 ‘광개토왕에 의한 왜국에의 침공’과 ‘삼한·삼국에 의한 일본열도 내의 분국의 설치’론이었다.

이 역사론은 우선 일본의 고대사학계에 나중에는 한국의 학계에 《일본서기》 문헌비판을 불러일으켰고, 나아가 일한의 고고학적 성과에 기초한 고대의 조선반도 각 지역의 국가형성의 이해 위에 선 양국 관계사의 재구축이라는 연구를 활성화시키게 되었다. 이 경향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 학계에서는 《일본서기》에 나오는 백제가 왜국에 보냈다는 王仁이나 《논어》, 《천자문》을 대표 사례로 들어, 백제는 왜국보다 발전된 문화선진국이라는 문화우월론이 강하다. 왕인의 천자문 전래설에는 ‘천자문’은 왕인보다 후세의 조작이라는 해석이나 《일본서기》의 역사구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문헌학적인 비판이 있다. 백제로부터 지식인과 經典의 전래를 왜국과의 양국관계로만 한정시켜 그 배후에 있는 중국왕조와의 상호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은 ‘문화우월론’이다. 백제와 왜국과의 문화교류를 보는 시각에는 이른바 조선왕조 이래의 ‘왜’에 대한 ‘小中華’ 의식이 들어 있는 듯이 생각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조선의 ‘소중화 의식’은 당이 신라를 ‘군자국’으로 부른 사례나 자신을 ‘동방예의지국’으로 인식한 사례 등 무수히 많다. 이 의식의 근저에는 주나라 무왕에 의해 동방 조선의 땅에 봉해진 ‘聖人 箕子’가 백성들에게 ‘八條之教’와 농업·잠업·직조 등을 가르쳤다는 중국고전에 보이는 東方의 聖地라는 평가에 있음을 망각하기 쉬워, ‘동아시아의 한국고대사’라는 시각이 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고대 일한관계사상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본위의 시야에서 관계사를 군사적인 강약, 혹은 문화의 우열이나 국가 형성의 선후를 경쟁하듯이 하는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또 그러한 방향에서 비판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웃 나라와의 關係史像, 그 중에서도 고대의 關係史像은 현대의 국가와 문화의 아이덴티티의 인식과도 깊게 관련된 측면이 있다. 이것이 역사인식 논쟁이 생겨난 까닭이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실증사학의 성과는 바로 효력을 발휘할 수는 없으나, 길게는 유효하다.

본 보고는 오늘날에도 언뜻언뜻 보이는 고대일한관계사 연구의 불식하기 어려운 일면을 극복하는데 노력하기 위해, 고대 일한관계사의 어느 특정한 문제를 해명하는 것에 역점을 두지 않고, 긴 역사과정 속에서 고대 일한관계사에서 오늘날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역사학의 근본적 과제로부터 고대의 일한관계사의 전체 모습과 그 기본구조를 고찰하고자 하는 바이다.

本 論

제1장 백제의 국가형성과 왜국과의 관계

— 七支刀를 둘러싼 日韓關係 —

머리말

百濟의 국가형성이 한성지역에서 시작함은 오늘날 서울시 송파구내의 풍납토성이 나 석촌동, 방이동 일대의 고분군을 형성한 과정으로도 알 수 있으며 문헌에서는 3세기말의 《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韓條(以下, 《三國志》 魏書 韓傳이라 약칭)에 馬韓 55國 가운데 ‘伯濟國’으로 나타난다. 55國의 국명이 대개는 卑離國 등과 같이 고유명을 한자음으로 표기한 借音表記이나 伯濟國은 좋은 글자를 써서 표기하고 있다. 이것은 이 지역이 樂浪·帶方의 2郡과 한강을 끼고 접해있으며 《三國志》 魏書 韓傳에 “漢時屬樂浪郡 四時朝謁”이라 되어 있듯이 2郡과의 정치 문화 교류가 馬韓 가운데 ‘臣漬沽’ 등 臣字를 쓴 네 개의 소국과 함께 밀접했음을 알 수 있다.

3세기에는 馬韓의 諸國이 晉과 활발히 통교한 것은 附論 제1장 제4절에서 밝힌 바이나 馬韓의 총칭 가운데 百濟의 국명이 중국사서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晉書》 卷109 慕容皝載記에서이다. 즉 咸康 八年(342)에 魏의 記室參軍이었던 封裕의 간언 가운데 “句麗 百濟及宇文 段部之人 皆兵勢所徙 非如中國慕義而至 咸有思歸之心”이라 되어있고 또 同 卷9 簡文帝에 “咸安二年(372)春正月辛丑 百濟·林邑王 各遣使貢方物”이라 쓰여 있다. 또 백제왕이 ‘七支刀’의 銘文 가운데 倭王에 대해 ‘百濟’로 자칭하기 시작한 것이 이 즈음이다. 본장에서는 그 ‘伯濟國’이 馬韓이라는 總稱이 아닌 ‘百濟’의 이름으로 倭王과 외교를 했던 日韓關係를 고찰하기로 하겠다.

그런데 4세기의 일한관계를 생각할 때 후세의 편찬서인 《日本書紀》나 《三國史記》에 의거하기 전에 동시대의 문자 사료인 ‘七支刀銘文’과 ‘廣開土王碑文’의 연구 성과가 신뢰도 높은 사료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금석문의 사정 상 1600년 넘는 풍상을 겪는 가운데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문자의 박탈로 판독이 불분

명한 부분이 많다.

본장에서는 우선 4세기의 일한관계의 역사상을 해명하는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七支刀銘文’의 지금까지의 논점을 토대로 하여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기로 하겠다(참고문헌은 논문 말미의 【文獻目錄】 ‘日本에서의 七支刀 研究 文獻目錄’ 참조)

I. ‘七支刀銘文’의 연구사

七支刀는 어느 날 奈良縣 天理市 杣之内에 鎮座한 石上神宮의 寶庫 안에서 明治 6年(1873)에 同社の 大宮司로 임명된 菅政友가 이것을 발견하여 ‘六叉刀’의 명칭으로 公表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藤井, 1995). 그 이후 오늘에 이르는 七支刀의 연구사는 神保公子氏에 의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고(神保, 1973年, 1975年, 1981年), 이 銘文이 古代의 日韓關係史研究에 필수적인 사료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은 古代日韓關係史像의 재검토 필요를 환기시킨 1970년대부터의 일이다.

神保씨는 七支刀銘文의 연구사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눈다. 제1기는 ‘연구가 개시된 시기로 明治에서 제2차대전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七支刀의 銘文의 존재에 주목하여 명문의 서두에 새겨진 紀年の 비정에 연구가 집중되어 《日本書紀》 神功皇后紀에 기록된 ‘七枝刀’로 간주되었으나 거기서 더 진전된 역사서술로는 이어지지 않아 七支刀가 아직 역사연구의 대상 외에 있었던 기간이라 말한다.

제2기는 1950년의 樞本杜人씨의 七支刀 조사와 다음해 福山敏男씨가 실제 조사를 근거로 명문 연구를 발표한 것을 神保씨는 획기로 보고 있다. 두 연구자에 의해 紀年の ‘泰和’는 東晉의 ‘太和’의 異表記라는 판독이 유력해지고 또 銘文 중에 ‘百濟’ ‘倭王’을 해독한 것이 주목을 받아 七支刀 銘文은 고대 일한관계사 연구에서 높은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리고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 攝政 52年(372)條에 의거하여 372년에 七支刀가 백제로부터 倭國으로 헌상되었다는 해석이 강해진 시기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제3기는 1963년에 발표된 金錫亨씨의 논문 <삼한·삼국의 일본 열도 내 분국들에 대하여> (《역사과학》 1963년 1호, 평양)가 鄭晉和씨에 의해 일역되어 《歷史評論》(165·168·169號, 1964年 5·8·9月)誌에 실려서 일본의 고대사학계에 소개된 데서 시작한다. 이 김석형의 논문은 百濟王이 王의 ‘侯王’, 즉 臣下로 보는 倭王에게 七支刀를 하사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제2기 이래 이어진 百濟王이 倭王에게

七支刀를 현상했다고 본 日韓關係史를 상하로 역전시키는 이 논문은 일본 학계에 파문을 던지게 되었다. 이렇게 七支刀 銘文의 판독과 그 紀年의 재검토, 百濟와 倭國과의 위치관계의 재검토 등의 문제가 연구자에 의해 시도되어, 古代日韓關係史像의 재검토가 긴요한 과제로 부상했다고 神保씨는 정리하였다.

이처럼 제3기는 그 때까지의 학설이 재검토되고 많은 학설이 제출되었으나, 七支刀가 國寶로 지정된 고고사료인 까닭에 연구자들의 실제 조사가 어려운 관계도 있어, 각 설은 신중한 실제조사에 근거한 연구는 아니었다는 점이 신학설의 문제였다.

그러나 이 사이 끈기 있게 實査를 요망해 온 村山正雄씨에 의해 1996년 12월에 그의 편저인 《石上神宮七支刀銘文圖錄》(吉川弘文館, 以下 《圖錄》으로 약칭)이 간행되어 정교한 실 사진과 X-Ray 사진이 제공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오늘날의 제4기의 연구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가 ‘七支刀銘文’의 쏘 61文字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얻은 셈이다. 이 《圖錄》으로 木村誠씨의 연구(2000)가 발표되었듯이 ‘七支刀銘文’의 연구는 《圖錄》에 기초하여 지금까지의 성과를 검증하며 확실한 논설로서 진전될 것이 분명하다.

Ⅱ. ‘七支刀銘文’의 판독

제4기에 木村論文에 발표되기까지 ‘七支刀銘文’은 61문자로 구성되어있다고 판독되었다. 木村씨는 表面冒頭의 紀年の ‘年’ ‘月’의 두 자 사이가 다른 글자 사이보다 많이 벌어져 있는 것에 주목하여 《圖錄》의 X-Ray 사진 가운데 村山の 지적을 계승하여 ‘年月’ 글자 사이의 녹 슨 부분에 ‘+’자가 묻혀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十’字로 판독하였다. 이에 이은 文字格이 대부분 없어진 字格은 지금까지는 鑄造하기 좋은 때로 일컬어지던 純陽 五月의 ‘五’字로 추독되어 왔다. 木村씨는 여기에서도 鑄 가운데의 문자 흔적으로부터 ‘一’字를 판독하고 아울러 ‘年十一月’이라는 새로운 판독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吉田晶씨(2001)가 납득했으나 木村씨의 판독법은 《圖錄》에 기초한 점은 평가되나 과연 타당한 판독인지의 여부는 후술하듯이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七支刀는 鑄造에서 오늘날까지의 긴 세월 동안 녹이 슬고 금상감 부분이 떨어져 판독이 전혀 안 되는 글자가 있다. 그러나 이런 글자가 있기는 하나 《圖錄》을 얻은 이상 판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 銘文의 판독에 따른 七支刀研究에 그치지 않고 거기서 그러

진 古代日朝關係史像을 둘러싼 갑론을박의 논쟁을 야기했다. 判讀의 粗密은 歷史像의 구성에 미치게 되는 것이다. 즉 판독의 성패는 ‘① 銘文 61字에 대한 시각적인 신중한 판독, ② 시각적 판독과 문헌 기록과의 정합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 주목하여 여기서는 ‘七支刀銘文’의 연구 성과와 논점을 포함하여 《圖錄》을 근거로 다시 한 번 61文字의 판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以下, []은 문자의 획으로 판독되는 문자, { }은 銘文의 문맥이나 유사한 金石文 史料에서 추독한 문자).

먼저 表面 34字의 기년은 ‘泰[和]四年{五}月十六日丙午’라는 판독이 널리 지지를 받아왔다. 최초의 연구자인 菅政友(1907)는 年號를 ‘泰始’라 판독하였다 第2字格을 ‘始’로 판독하기에는 오늘날에는 방이 선명하지 않으므로 그 후 福山敏男(1951)이나 樫本杜人(1952)이 ‘泰和’ 혹은 ‘泰[和]’로 판독하게 된다. 그러나 宮崎市定(1982, 1983)은 현재 불선명한 것이야말로 발견 당초의 판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에서 菅의 ‘泰始’라는 판독을 지지하였다.

‘泰始’ 혹은 ‘泰和’라는 연호는 중국의 연호를 사례로 들어 그 판독을 보증하고 있다. 즉 전자는 西晉의 ‘泰始四年(268年)’과 南宋의 ‘泰始四年(468)’, 그리고 ‘泰和四年’은 ‘泰’가 ‘太’와 발음이 통하므로 역시 東晉의 ‘太和四年(369年)’의 다른 표기라고 이해할 수 있다.

혹은 星野恒(1892)은 ‘泰初’라고 판독하여 ‘魏代の 號이다’라고 이해였는데, 이는 ‘三國魏文帝의 世에 泰初가 있다’라는 판단이 魏 文帝 때의 ‘黃初’ 혹은 明帝 때의 ‘太和’나 ‘景初’로 혼동하게 한 오해였다. 또 喜田貞吉(1919)은 ‘泰初’라고 판독하면서도 그것은 《일본서기》 卷9 神功皇后 섭정 66년에 인용된 《晋起居注》에 ‘武帝泰初二年’이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西晉의 ‘泰始’는 ‘원래 泰初가 있었다’는 것이며, 七支刀의 紀年을 ‘泰初四年’이라고 판독하고, 이는 泰始四年(268)과 동일한 년도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여기서는 판독을 피하면서 ‘泰□四年’이라고 하는 신중한 자세도 보인다.

한편, ‘泰[和]’라고 판독하여 이를 백제의 연호로 보아야 한다는 설도 있다(金錫亨, 1963; 李丙燾, 1976). 또 ‘奉□’라고 판독하여 역시 백제의 연호라고 이해하는 설도 나와 있다(延敏洙, 1998).

그런데 《圖錄》에서는 모두의 ‘泰’자는 象嵌이 잘 남아있고 또 문자 흔적의 凹線도 상당히 명료하므로, ‘泰’라고 판독해도 틀림이 없다. 연민수는 이것을 ‘奉’이라고 판독하고, 다음 문자는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奉□’라고 읽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연호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奉□’란 백제의 연호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6획에서 10획은 ‘=’라고 되어 있고, 6획의 선과 7~10획의 선과는 중앙에서 교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奉’이라고 판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역

시 여기서는 ‘泰’라고 읽어야 한다.

또 두 번째 문자에서는 扁은 凹線과 세로로 남는 한 줄의 象嵌으로 볼 때 ‘禾’변일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旁에서는 칠지도 발견 당시부터 그랬는지 혹은 문자를 판독하려는 열기가 강했기 때문인지 표면에 굵힌 흔적이 몇 줄 있어서 문자의 잔존 확수는 명확하지 않다. 宮崎市定은 앞에서 말한 대로 최초로 칠지도를 봤던 菅政友가 ‘泰始’라고 읽었던 판독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扁으로는 ‘禾’라고 읽히고 旁에는 굵힌 흔적이 있으면서도 세로로 길게 ‘冂’라고 읽을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역시 ‘和’라고 읽어서 합쳐서 ‘泰和四年’이라고 판독할 수 있다.

이어서 月日과 시각이다. 이것은 高橋健自(1914)가 ‘六月 十一日’이라고 판독한 이래로 ‘六月’로 판독하고 있는데, ‘泰始四年’이라고 판독했던 西晉 武帝의 泰始 四年에는 《三正綜覽》에 의하면 ‘六月十一日’이 ‘丙午’에 해당되어 干支가 합치되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福山이 1946년 이후 여러 번에 걸쳐 실지 조사하여 판독한 이래(1951), ‘正月’ ‘四月’ ‘五月’의 ‘十一日’ ‘十六日’의 가능성이 지적되었는데, 주조의 길일이며 또 盛夏이면서 火氣가 강한 月日로서 관용화되었던 ‘五月 十六日’로 판독되어왔다. 이에 이어지는 ‘丙午正陽’은 象嵌이 명료하게 남아있어서 쉽게 판독이 되었다.

하지만 사실 高橋는 ‘六月’이라고 읽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象嵌이 거의 떨어져 나가고 이 부분이 굽혀져 있었기 때문인지 거의 문자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圖錄》의 X-ray 사진에 의거하여 木村은 새로이 ‘十一月’이라고 판독하였다. ‘年’과 ‘月’과의 간격이 木村이 지적하는 대로 다른 곳의 두 문자 간격보다는 약간 넓은데, 그렇다고 ‘十一’이라는 두 문자가 들어갈 정도는 아니다. 七支刀의 표면에서는 각 문자의 간격은 문자의 중심과 중심과의 간격은 《圖錄》의 원치수 크기의 사진에 의하면 약 2센티미터이고, ‘年’과 ‘月’의 사이는 약 4센티미터를 두는데 여기서 年‘十一’月의 뒤로 이어지는 ‘十六’日과 같이 두 문자를 간격을 유지하면서 象嵌하기에는 ‘年十一月’의 간격이 너무 좁아진다. ‘年十’의 간격이 너무 접근되어 있고 더구나 ‘十一’의 간격도 너무 근접되어 있어 ‘年’ ‘月’의 간격의 銘文의 문자 배치가 매우 불균형하게 된다. 이것을 象嵌의 실수에 의한 불균형이라고 납득할 수 있을까? 아니면 《圖錄》의 X-ray 사진으로 읽히는 상감의 흔적은 ‘十’로 되어 있고, 이것은 ‘十’자의 한 획의 오른쪽 약 반쯤의 상감이 없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年’의 異體 문자의 밑 부분이라고도, 아니면 잘못 각인된 것이라고도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鑄造銘에 관용화 되어있는 陽月인 ‘五’月일 것이라는 판독을 철회하기는 어렵다.

이어서 ‘造百練□七支刀’에서는 ‘造百練’은 象嵌도 凹線도 받은 명료하게 남아 있고 □에는 상감이 하부에 ‘丿’라고 남아 있는데 판독은 곤란하여, ‘鉄’이나 ‘鐵’, 혹은

‘𠂔’이라고 판독되어 왔다. 또 ‘𠂔’은 중앙부의 象嵌의 ‘十’이 명료하게 남아 있어 凹線과 더불어 ‘𠂔’이라고 판독된다. ‘支’는 상감은 남아 있지만 藪田嘉一郎(1961)이 ‘政’이라고 판독한 예가 있듯이 ‘支’자로 보기에는 상부의 상감이 ‘𠂔’로 남아 있어 ‘支’자의 첫 획으로 보기에는 위화감이 느껴진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상감과 凹線이 명료한 ‘刀’자로 서로 이어서 ‘支’라고 판독하는 것도 납득이 간다.

‘[出]辟百兵’에서는 ‘[出]’자의 1, 2획의 象嵌과 凹線이 보이는데 그것은 또 ‘生’의 1, 2, 3획이라고도 읽을 수가 있다. 단지 ‘出’의 3획의 凹線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生’보다는 ‘出’일 개연성이 높다. 또 ‘辟’자는 변과 방의 象嵌이 잘 남아있고 旁은 ‘土’와 ‘羊’이 합성된 것으로 읽혀지므로 ‘辟’이라고 판독된다. ‘百’과 ‘兵’은 상감이 아주 조금 남아 있지만 凹線에 의해 ‘百兵’이라고 분명히 판독 된다.

‘[宜]供供(侯王)’에서는 첫 글자인 [宜]는 약간 남아있는 제3획의 象嵌과 5, 6, 7, 8획의 凹線과의 구성에서, 또 이어지는 ‘侯王’에 겹쳐지는 상투적 연속 문구가 되므로 ‘宜’라고 판독되어 왔다. 여기에 이어지는 두 번 연속하는 ‘供’은 첫 글자는 凹線이 명료하므로 西田長男(1956)은 ‘復’로, 또 《寧樂遺文》(1962)에서는 ‘備’라고 판독하기도 하였는데, 역시 ‘供’이라고 판독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 글자는 象嵌이 잘 남아있어 합쳐서 ‘供供’으로 판독된다. ‘侯’자는 상감과 凹線의 잔존상태로 보아 일그러진 글자 체이면서도 ‘侯’의 異體字라고 추정해서 읽을 수 있다.

여기에 이어지는 문자에서는 象嵌이 전혀 남아 있지 않는데, 아마도 칠지도 발견 후에 녹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생겼을 법한 흔적에도 옆줄 선 같은 것이 보인다. 문자의 판독은 곤란하지만 ‘侯’에 겹쳐지는 문자로서 福山(1951)이후 ‘王’일 것이라고 읽고, 합쳐서 ‘侯王’이라고 판독되어 왔다. 우선 타당한 판독이라고 하겠다.

끝부분의 ‘□□□□[祥]’에서는 세 번째 글자 ‘□’에 불과 ‘一’만이 남아있어 이를 포함하여 네 글자의 □는 지금까지 판독불능이다. 이른 시기에 實檢한 福山敏男(1951)은 당시의 얼마 안 되는 殘劃으로부터 ‘大吉’이나 ‘大師’로 판독하였다. 또 끝 자는 ‘イ’변이 보이고 방에는 2畫의 ‘ㄱ’가 확인되고 오른쪽 밑으로 ‘=’가 보이므로 이를 합쳐 木崎愛吉(1921) 이래 ‘作’으로 판독되어 왔다. 이에 대해 宮崎市定(1982)은 이 다섯 자를 금석문의 상투구로서 ‘永年大吉祥’으로 추독하였다. 끝 자의 형상으로 보아 이를 ‘作’ 외에도 ‘祥’으로도 판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후술하듯이, 표면의 명문은 동진의 황제를 염두에 두고 “‘百兵’을 ‘辟(물리치게)’할 수 있도록 日時를 선택하여 정성스럽게 주조된 칠지도는 侯王이야말로 佩刀하기에 어울린다”는 呪文을 吉祥句로 겹쳐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끝말도 ‘{永年大吉}[祥]’으로 吉祥句로 끝나야만 명문이 완결된다는 입장에서 이 부분의 宮崎의 판독이 나온 것이다.

이상의 검토로 표면의 명문 34자는 “泰[和]四年[五]月十六日丙午正陽造百練□七支刀[出]辟百兵[宜]供供[侯王][永年大吉][祥]”이 된다.

다음은 뒷면 27자의 판독을 검토하겠다. 우선 ‘先世[以]來未有此刀’에서는 ‘先’의 제 1획에서 4획까지와 6획의 새김이 잘 남아있고 다음의 ‘世’에서는 1·2·5획의 상감이 남아있고 凹線에서 3획도 읽혀, 여기는 ‘先世’로 판독된다. 또 ‘以’에서는 左半部에 ‘▽’의 상감이 남아있어 이것은 <魏元鸞墓誌>(秦公輯 《碑別字新編》 文物出版社, 1985年) 등으로 보아 ‘以’의 이체자인 ‘▽▽’의 좌반부일 것이므로 여기는 ‘以’로 읽는 게 좋겠다. ‘來’자에서는 2·3획이 빠진 ‘八’에 가로로 한 획이 있고 第4·5획의 상감은 잘 남아 있고 6·7획이 판독되므로 ‘來’字가 맞을 것이다. ‘未有’는 象嵌이 잘 남아 있고 판독에 문제는 없다. ‘此刀’에서 ‘此’는 <漢樊敏碑>(《碑別字新編》) 등에서 보이는 ‘山’과 ‘匕’의 합자 내지는 <漢會稽津冢地刻石>(同)의 ‘𠂔’에도 가까워 ‘此’의 異體字로 보인다. 또 ‘刀’는 1·2획의 상감과 凹線에서 ‘刀’로 읽는 게 좋겠다. 단, 2획의 상감의 하반부는 凹線에서 떨어져 있다.

다음으로 ‘百[濟]王世[子]’에서는 ‘百’은 象嵌과 6획의 凹線으로 쉽게 ‘百’으로 판독된다. ‘[濟]’는 지금까지 ‘濟’나 ‘濟’, 또는 ‘慈’나 ‘滋’로 판독되어 왔다. 여기는 세 개가 겹쳐진 ‘△’와 그 왼쪽에 ‘彡’의 象嵌이 확인된다. 福山敏男(1951)은 羅振玉 《貞松堂集古遺文補遺卷下》(《羅雪堂先生全集》 初編 13冊, 文華出版公司) 所收의 <天王詔與百濟王銅虎符>에 ‘百 <彡+△△△> 王’이라는 예를 소개하고 이 글자체가 칠지도에 남아있는 상감과 같다고 지적하고 ‘滋’로 판독하였다. 三品彰英(1962)이나 田中俊明씨도 양자가 같은 자체라고 인정하고 있다(<百濟와 北齊> 千田稔共編 《東アジアと“半島空間”》 思文閣出版, 2003年 1月). 그러나 村山은 《圖錄》의 X-ray 사진에 의해 자획의 하부에 세로의 두 획의 상감이 숨겨져 있음을 읽어내고 여기는 ‘濟’字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圖錄》의 ‘釋文比較表’에 열기된 자신의 판독에서는 ‘{滋}’로 판독하고 있다. 여기는 村山씨의 확인대로 ‘濟’로 판독한다.

‘王’은 1획의 상감과 2·3畫의 선에서 ‘王’으로 판독된다. ‘世’도 1·2·4획의 象嵌과 3·5획의 凹線으로 ‘世’로 판독된다. 다음의 ‘□’는 象嵌은 전혀 남아있지 않으나 어렴풋이 ‘十’같이 보이고 또 갈라진 흔적도 있어 이를 ‘子’(福山, 1952)나 앞글자인 ‘世’와 연결되고 ‘々(같다)’의 뜻으로 ‘世’(戴田嘉一郎, 1961)로도 읽혀져 왔는데, 백제의 정세와 문맥에서 생각하면 여기서는 ‘[子]’로 판독하는 것을 지지한다.

‘奇生聖[音]’에서는 ‘奇’字의 象嵌은 잘 남아있다. ‘丘’와 ‘可’를 상하로 조합한 글자형이고 이것은 ‘奇’의 異體字로 판독된다. ‘生’은 전획의 象嵌이 남아있어 명료하게 ‘生’으로 판독된다. ‘聖’은 상부에 남은 象嵌과 하부의 凹線에서 <漢樊敏碑>(《碑別字新

編》)에 보이는 ‘聖’의 異體字인 ‘𡩇’으로 판독되므로 이것은 ‘聖’으로 판독해도 좋다. 이어지는 ‘[音]’은 상감과 凹線이 꽤 남아 있다. 그 밑은 ‘日’이고 윗부분은 ‘立’이나 ‘𡩇’으로 판독되므로 상하를 합치면 福山(1951)의 ‘音’ 혹은 樞本杜人(1954)의 ‘晋’으로 읽힌다. 근년에는 東野治之氏(2004)가 ‘晋’임을 강조하고 있다. 상부에 세로의 새김선이 있어 이를 문자의 한 획으로 판정하면 ‘晋’으로 판독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결정하기 어려우나 ‘聖音’이든 ‘聖晋’이든 모두 백제왕과 세자가 상위자를 존송하는 의미에서 썼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故爲[倭]王[旨]造’에서 ‘故’자는 象嵌과 凹線에서 변은 ‘古’이고 방이 ‘丈’으로 읽히므로 이를 합치면 <大代華嶽廟碑>(《碑別字新編》)에서 볼 수 있는 ‘故’字의 異體字이다. 다음으로 ‘爲’는 상감이 잘 남아있어 ‘爲’로 판독해도 좋다. 다음의 ‘倭’는 象嵌과 凹線으로 보면 찌그러진 문자이다. 왼쪽으로는 人변이 판독되나 旁은 오른쪽 밑으로 찌그러진 자형이다. 이 글자 다음에 오는 문자는 전 4획이 명료한 凹線이고 제2획의 하반부의 象嵌이 남아있어 이것은 ‘王’자로 판독되고 또 칠지도가 일본으로 전해진 점으로 보아 이를 ‘倭王’으로 판독해도 틀림없을 것이다.

다음의 ‘[旨]’자의 하부는 象嵌과 凹線으로 보면 ‘日’로 읽힌다. 상부는 象嵌과 凹線의 각각 한 획이 판정된다. 지금까지 西田長男(1936)의 ‘替’나 福山(1952)으로 시작하여 많은 연구자가 ‘旨’로 판독하여 왔다. 또 宮崎市定은 ‘旨’로 판독하면서도 그것은 ‘嘗’의 약자체로 ‘처음으로’의 의미가 있다고 이해하였다. ‘造’字는 象嵌과 凹線 모두 명료하나 山尾幸久氏(1989)의 지적처럼 표면의 ‘造’의 책받침은 물결 모양이지만 뒷면의 ‘造’자는 ‘ㄴ’로 직각이다.

‘傳[示後]世’에서는 ‘傳’은 凹線이 잘 남아있어 人변과 방이 ‘由’이고 그 상부에 옆선이 한 획 있으므로 합쳐서 ‘傳’의 略體로 판정해도 좋다. 다음의 ‘示’는 象嵌과 凹線으로 2~5획은 판정되나 4획의 象嵌의 하부는 오른쪽으로 빠져 있다. ‘後’는 人변은 판정되나 旁 상부에 한 획은 사선으로 보인다. 다음 문자는 명료한 凹線으로 ‘世’字로 판독되므로, 또 이것과 숙어로 되는 점에서도 ‘後’로 판독되어 왔다.

이상의 관찰을 통해 명문 27자는 다음과 같다.

“先世[以]來未有此刀百[濟]王世[子]奇生聖[音(晋)]故爲[倭]王[旨]造傳[示後]世”로 판독된다.

Ⅲ. ‘七支刀銘文’의 歷史像

七支刀銘文의 판독에는 앞서 언급한 곤란한 문자가 있기 때문에 판독으로 구성된 역사의 해석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기고 있다.

우선 기년의 ‘泰[和]四年’이다. 東晉의 泰和 4年은 369年이다. 그런데 七支刀가 百濟王權의 命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기록상으로는 백제는 3년 후인 東晉의 咸安 2年(372) 정월에 동진에 처음 사신을 보냈고 6월에는 百濟王 餘句(近肖古王)가 ‘鎮東將軍領樂浪太守’로 책봉되었으므로, 그 해 전에 백제왕이 倭王에게 보낸 七支刀에 東晉의 연호인 ‘泰和’를 새겨놓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의혹은 존중해야 하나 백제왕권에 참여하는 중국계의 문필 담당자가 東晉을 尊崇하여 그 연호를 사용했다는 鈴木靖民氏(1983)의 추측이 이 의혹을 진정시키고 있는 듯하다. 확실히 樂浪·帶方の 2郡이 朝鮮半島에서 요동으로 철수한 뒤 2郡의 옛 땅에서는 東晉의 ‘永和九年’(353年)이나 ‘元興三年’(404年)銘의 磚이 출토되고 있으나, 그것들은 高句麗 王權의 발동과는 다른 私的인 차원에서의 연호의 사용례이며 地下 墓室로 사용되고 있다. 七支刀는 百濟王權의 발동으로 倭王에게 보낸 외교의 증여품이나, 이 외교에 백제가 아직 東晉의 正朔을 바치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造刀하며 東晉의 연호를 象嵌한 七支刀를 372년 6월에 그 冊封을 받은 후 왜왕에게 보냈던 것으로 된다. 하지만 백제의 고도인 한성지역에서도 또 熊津이나 扶餘地域에서도 百濟가 중국왕조의 연호를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백제는 웅진 천도 후 간지를 써서 年月을 표기했으나 확실히 중국왕조의 正朔을 쓰게 된 5세기 이후에도 中國의 연호를 사용한 유물은 보이지 않는다(拙稿 <百濟紀年考> 《史淵》 142輯, 九州大學 大學院 人文科學研究院, 2005년 3월).

게다가 백제는 372년 이전에도 東晉에 사신을 파견한 기사가 없음을 생각하면 ‘泰[和]四年’의 紀年은 본래 백제에서 명기된 것이라고 증명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이 기년을 명기하고, 戰爭에 ‘出’하여 ‘百兵’을 ‘辟’할 수 있다는 辟除의 주술력을 가진 것으로 기대된 ‘七支刀’는 ‘侯王’이 佩刀하기에 어울린다고 말한 표면의 명문은, 역시 ‘泰和’의 연호를 쓰는 정치사회에서 주조된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백제가 아니라, 山尾씨가 말하듯이 369년에 東晉에서 鑄造되었다고 우선 솔직히 이해할 일이다. 우선이라고 쓰는 이유는, 후술하듯이, 現存의 石上神宮 소장의 七支刀는 山尾씨가 말하듯이 百濟가 東晉造의 七支刀를 동진에서 받았는데, 이 외교관계를 왜

왕과 공유할 의도에서 백제는 이것을 왜왕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七支刀 한 자루를 새로이 방제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나는 百濟가 東晉으로부터 七支刀를 하사받자 백제에서는 이 ‘原七支刀’를 ‘모조’해서 뒷면에도 새로이 명문을 새겨놓고 왜왕에게 보냈다고 이해하는 山尾氏의 설(1989)의 기본을 지지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후술하듯이 ‘爲倭王旨造’의 ‘旨’와 ‘造’의 행위가 납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東晉이 369년에 七支刀를 주조한 배경에는 福永光司(1987)나 佐伯有清氏(1977), 山尾氏 등이 말하듯이 그 형태와 ‘百兵’을 ‘辟’할 수 있다는 도교적 주술을 기대하는 도교 신앙이 東晉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고찰해 보면 表銘文에서는 百濟王權의 의지를 읽을 수 없고 ‘侯王’에게 ‘宜(어울린다)’란 皇帝의 존재를 배경으로, 이를 하사받은 것은 우선은 백제의 近肖古王이 372년 정월에 동진에 사신을 보내 6월에 왕을 ‘鎮東將軍領樂浪太守’로 봉한 책봉사를 맞이하고 그 즈음에 동진의 外臣이 된 백제왕에게 하사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백제는 東晉의 연호를 쓰고 있지 않을 때 中國系 知識人의 지식을 얻어 주조한 七支刀에 東晉의 연호를 새겨 이것을 왜왕에게 보냈다는 추정은, 지식인이라면 책봉을 받지 않은 국제관계 하에서 백제왕이 왜로 보내는 외교품에 東晉의 연호를 새겼다는 것은 무리이므로 역시 七支刀는 東晉에서 鍛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紀年을 宋의 ‘泰始四年’(468)으로 판독한 경우에도 무리가 있다. 백제왕 餘慶(蓋鹵王)이 宋의 大明 元年(457)에 鎮東大將軍에 책봉되어 있었으므로 468년의 蓋鹵王代에 백제가 宋의 연호를 七支刀에 새기는 것에 대한 의문은 없어진다. 그러나 백제에서 무령왕이 521년에 梁으로부터 寧東大將軍에 책봉되었으면서 그 능묘에 넣은 買地券에는 梁나라의 연호를 새기지 않고 간지를 쓴 것처럼, 책봉 하에서도 백제는 중국이나 백제의 독자 연호를 쓰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보이지 않으므로, 七支刀의 기년을 ‘泰始四年’으로 판독하는 경우에도 단조는 이 경우에는 宋朝에서 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편 七支刀의 ‘泰和’는 백제의 독자 연호라는 견해로 보면, ‘泰和四年’이란 오늘날의 사료범위에서는 백제인의 처음이자 마지막의 연호 사용의 유물이 된다. 그렇다면 백제연호인 ‘泰和元年’은 서력으로 몇 년인지는 분명치 않다. ‘泰△四年’으로 판독하는 李丙燾는 《日本書紀》 神功紀 52年 9月條에 七枝刀가 헌상되었다는 기사에서 同皇后 52年은 임신년이고 干支 2運을 낮추면 372년에 해당하고 이 해 9월이야말로 七支刀의 ‘十六日丙午’의 간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七支刀가 만들어진 것은 372년 9월 16日이라고 주장한다. 또 李丙燾설에서는 이 作刀年月이 《日本書紀》에서는 七枝刀가 왜로 보내진 시기라고 말한다. 그래서 李丙燾설에서는 ‘泰△四年’이 372년이 되고 원

년은 369년이 되는 것이다. 李丙肅설은 ‘泰△’로 판독하고 ‘泰和’로는 읽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논의가 성립하지만, 東晉의 ‘泰和四年’은 백제에서는 ‘泰△元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泰△’로 판독하는 李丙肅설은 앞의 판독과 같이 ‘泰[和]’年이라는 판독에 대해서 무리가 생긴다. 369년경은 백제가 고구려에 대해 우세한 시기였다고 해도 369년에 백제가 독자적으로 건원했다는 방증을 찾기 어렵다.

또 연민수씨가 ‘奉□四年’으로 판독하고 이를 무령왕 4년(504)이라고 한 설도 방증이 없으며 이 시기에도 간지를 쓰고 있었으므로 백제의 독자연호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시 칠지도의 기년은 山尾幸久씨가 추정하듯이 東晉에서 작도되었을 때 새겨진 것으로 이해하는 데 모순은 없다. 지금까지 칠지도가 백제로부터 372년에 상당하는 神功皇后 攝政 52년에 일본으로 보내졌다는 《日本書紀》의 기록에 얽매어 칠지도를 백제와 일본 간의 2국관계로만 한정하여 이를 百濟製로 간주해 왔으나 그러한 전제에서 벗어나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면의 명문은 ‘나가서 百兵을 물리치는’ 呪力을 가진 七支刀를 盛夏의 ‘五月’의 火氣가 강한 날 ‘丙午’라는 月일에 ‘百’번이나 달구었다는 치밀한 공정을 거쳐 완성했으므로, 이 강한 신통력을 담은 칠지도는 ‘供供’한(공손함이 깊은) ‘侯王’이 차야 어울리며 또 ‘侯王’은 ‘永年大吉祥’이라는 완결된 정형문이다. 이것은 이대로 동진에서 황제의 ‘侯王’에 대한 하사품으로 주조되어 강한 신통력을 기대하고 앞면의 명문이 새겨졌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앞뒤의 명문의 서체를 주시하면 ‘造’ ‘百’ ‘刀’ ‘王’이 양면에 다 새겨져 있다. 이를 비교하면 山尾씨가 지적하듯이 글자 형태에 차이가 많다. 앞서 말했듯이 앞뒤의 ‘造’에서는 책받침과 3획과 4획의 길이가 다르며 또 5, 6, 7획에서 방인 ‘告’의 ‘口’도 표면의 글자는 옆으로 긴 형태이다. 또 ‘百’字는 표면에 두 자가 있고 뒷면의 그것과는 세 글자가 모두 미묘하게 형태는 틀리나 뒷면의 ‘百’은 균형잡힌 형태이다. ‘刀’자도, X-ray사진을 봐도, 뒷면의 ‘刀’는 2획이 길게 쓰여 있고 표면의 ‘刀’가 보다 균형이 잡혀있다. 앞뒷면의 ‘王’字는 象嵌의 잔존이 적어 비교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동일문자의 앞뒷면에 나타난 자형의 차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차이는 주조시에 서로 다른 인물이 상감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山尾씨가 추정하듯이 象嵌의 문자 견본이 동일하지 않고 그 사이에 시차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표면의 명문은 동진에서의 주조와 연속된 자체를 모범으로 하고 있고 뒷면에서 ‘先世以來’ 百濟에 없었던 이 칠지도를 왜왕을 ‘爲’해 ‘造’하였던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면, 백제왕의 명으로 칠지도를 만들었다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뒷면의 명문은 백제의 오리지널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표리의 명문에서 모두 칠지도를 만들었다고 상감하고 있는 것의 의문은 풀릴 것이다. 두 번이나 만들었다고 명기한 것은, 山尾씨가 말하듯이 표면은 369년에 먼저 동진에서 주조된 칠지도가 372년경에 백제로 전해져서, 山尾씨가 ‘原七支刀’라고 假稱하는 이 칼의 명문 중에서 백제왕은 나가서 ‘百兵’을 ‘辟’할 수 있는 주력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 주력과 이를 하사한 동진 황제의 은덕을 왜왕과 누리고자 ‘原七支刀’를 모델로 새로이 ‘七支刀’를 만들어, 즉 倣製하여 이를 왜왕에게 보낸 것이다. 현존하는 칠지도는 백제왕이 동진에서 받은 34문자의 명문이 있는 칠지도를 방제하여 그 뒷면에 이를 왜왕에게 보내는 경위의 글을 새긴 이른바 ‘倣製七支刀’인 것이다.

백제왕이 ‘原七支刀’를 방제한 의도는 ‘爲倭王旨造’의 구절로 알 수 있다. 즉 이 뜻이란 지금까지 《宋書》 倭國傳에 기록된 소위 ‘倭의 五王’이라는 이름에 이끌려 ‘倭王’의 이름으로 이해되어 왔다. 또 宮崎(1983)는 이것을 ‘嘗’의 略體이고 다음의 ‘造’와 연결되어 ‘처음으로’의 의미로 이해하였다. ‘嘗(처음으로)’은 뒷면의 서두에 있는 ‘先世以來未有此刀’를 이었다고 이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고대 동아시아의 책봉관계를 배경으로 한 외교에 나타나는 ‘旨’는 그것을 인명이나 부사로 파악하기 전에 ‘聖旨’나 ‘慈旨’의 의미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다행히도 칠지도의 뒷면의 명문에는 ‘旨’의 6자 위에 분명히 ‘聖’字가 있다. ‘旨’는 이것과 비밀리에 연결되는 문자로 이해된다. 또 나아가 6자 위에는 百濟가 百濟로 판독되면 이 ‘濟’와도 ‘旨’의 자구가 살짝 연결된다고도 보이나 《圖錄》에서는 확실히 ‘百濟’의 판독을 얻었으므로 ‘旨’는 ‘聖’에 연결되는 글자로 해석하여야만 백제왕이 ‘原七支刀’를 방제하여 왜왕에게 보낸 외교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물론 백제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백제의 近肖古王과 태자는 369년에 對高句려전에서 유리한 형세를 획득하고 372년 정월부터 외교에 성과를 거두어 ‘原七支刀’를 하사받은 것으로 추측되며, 고구려에 대치하며 동진의 책봉을 받은 외교의 신전개를 왜왕에게 보고하고 왜국까지도 그 외교 라인에 포섭하여 對高句려 라인의 강화를 꾀한 백제의 對倭외교라 할 수 있다.

뒷면의 銘文에 입각하여 백제의 외교를 이해하면, 百濟王과 太子 혹은 (372년 6월에 백제왕은 東晉으로부터 冊封을 받고 있고 이 관계에서 倣製할 때에는 太子를 ‘世子’로 새기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므로) 百濟王과 ‘世子’는 ‘聖音(晉)’에 ‘奇(寄의 약자로 이해됨)生’하는 즉 ‘生을 맡기게’ 되었다. ‘聖音’이든 ‘聖晉’이든 모두 百濟왕이 ‘外臣’이 되어 臣屬하는 東晉의 皇帝나 그 은덕을 받는 것을 의식한 존칭이다. 그 外臣의 심볼의 하나가 ‘侯王’에 걸맞다고 하사받은 주술력이 있는 칼인 原七支刀였다. 동진이 정성껏 주조한 주술력이 강한 原七支刀를 백제왕에게 하사한 것은 백제왕의 對高

려전에 대비한 외교 의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백제왕과 세자는 동진 황제의 ‘聖旨’나 은덕인 ‘聖音’으로 돌려 이것을 倭王과도 공유하기 위해 原七支刀를 倣製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旨造’란 ‘(聖)旨를 갖고’ ‘만드는’ 것이고 原七支刀의 형태와 여기에 새겨진 ‘出’해서는 ‘百兵’을 ‘辟’할 수 있다고 강조된 呪刀를 방제 칠지도에도 담아 넣어, 동진 황제의 뜻을 체현하고 또 그 위엄을 빌어 그 강조된 주술력을 왜왕과도 공유하여 백제왕이 맺은 동진과의 외교라인에 왜왕을 참가시키려 한 것이다. 川口勝康(1933)은 이 ‘聖音’을 동진 황제의 ‘敎令·指令’의 의미로 해석하고, 백제의 ‘七支刀’ 주조에 동진 황제의 명령이 있다고, 동진의 외교의도를 높이 평가한 이해도 수긍이 간다.

이처럼 표리의 명문을 이해해 가면 칠지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 ① 369년에 동진에서는 ‘侯王’이 佩刀함에 걸맞게 나가서 ‘百兵’을 물리칠 수 있다는 주력을 가진 칠지도를 주조하고 높은 신통력을 발휘하도록 정교하게 칼을 만든 경위를 명문으로 새겼다.
- ② 372년 정월에 백제의 근초고왕이 동진으로 처음 통교하였고 그 때인지 같은 해 6월인지 확실치 않으나 왕은 동진의 사신을 맞아 ‘鎮東將軍領樂浪太守’로 책봉되었고 그 때 동진으로부터 칠지도를 하사받았다.
- ③ 百濟에서는 동진에서의 작도 시에 담긴 신통력을 기대하여 동진황제의 성지를 받들어 칠지도를 방제하고 이것을 왜왕에게 보내는 외교를 펼쳤다.
- ④ 백제왕이 왜왕에게 방제 칠지도를 보낸 외교적 의도는 백제왕이 동진의 책봉을 받아 외신이 되었고 그 연장선 위에 왜왕을 두고 백제의 對高句麗책에 왜왕이 같이 하도록 했던 것이었다.
- ⑤ 《三國史記》 百濟本紀에 의하면 백제는 근초고왕 즉위 23년(368) 3월에 신라에 사신을 보내 良馬 2匹을 보내 통교하고 있었으므로 여기에 동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왜와도 통호하여 고구려에 대비하는 남방라인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서술하듯이 이 라인으로부터 신라는 바로 이탈하고 고구려와 가까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칠지도의 뒷면의 명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만 백제가 동진을 배경으로 한 왜와의 외교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선대 이래 아직 이 같은 (형태의 또는 그 때문에 백병도 물리칠 신통력이 있는) 칼은 (백제에는) 없었다. 백제왕과 세자는 성스러운 晉의 황제에게 생을 의지하기로 했다. 그 때문에 동진 황제가 백제왕에게 原七支刀 등을 보낸 뜻을 왜왕과도 같이하기 위해 이 칼을

(방제하여) 만들었다. 후세에도 길이길이 이 칼에 담긴 동진 황제의 뜻을 전하도록 하라.

그런데 표면의 명문에서 읽히는 ‘侯王’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石上神宮 소장의 七支刀가 백제왕으로부터 倭王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百濟王이 倭王을 ‘侯王’으로 위치 지으려는 양국간 관계로 해석되어 왔으나, 이 ‘侯王’이란 東晉의 皇帝와 ‘侯王’과의 관계가 第一義이며, 이를 국제관계에 놓고 보면 東晉의 황제에 대해서는 ‘原七支刀’를 하사받은 백제왕이 동진 황제의 ‘侯王’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것은 372년 이후의 양자의 관계에서도 타당하다. 그리고 백제왕이 이것을 방제하여 倭王에게 보낸 2차적인 칠지도의 증거를 생각하면, 두 번째로 백제왕은 왜왕까지도 자기와 같은 동진의 ‘侯王’인 국제관계를 구상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傳示後世’라는 용어가 東晉을 배경으로 둔 백제의 왜국을 향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후의 백제와 왜국의 관계를 보면 그 외교는 성공적이다.

여기서 지금까지의 고찰을 정리하고 남겨진 문제를 지적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① 漢式鏡의 예가 아니라도 原七支刀를 방제한 것은 기이한 일은 아닐 것이다. 石上神宮 소장의 七支刀는 百濟製이나 그 모델은 동진에서 백제에 하사된 칠지도, 즉 山尾氏가 말하는 ‘原七支刀’이다. 369년에 동진에서 칠지도를 주조하여 이를 백제왕이 받기까지 3년이 걸렸으므로 당초 주조된 것은 백제왕이 아니라 널리 ‘侯王’에게 하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原七支刀’는 복수 주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② 백제의 수도인 한성이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이끄는 3만군에 의해 함락되고 개로왕은 전사하고 왕족들은 남쪽의 웅진으로 피난했으나 이 대혼란 가운데 原七支刀는 소실되었을지 모른다.

③ 石上神宮에 현존하는 칠지도는 백제가 방제한 칼로 생각되었다. 《日本書紀》卷9 神功皇后攝政52年(372)條에 “秋九月丁卯朔丙子, 久氐等從千熊長彥詣之. 則獻七枝刀一口・七子鏡一面及種種重寶”라 하여 ‘七枝刀’를 백제의 사신이 ‘獻’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백제왕이 왜왕의 밑이라는 설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칠지도를 둘러싼 백제왕과 왜왕의 관계는 백제의 외교 의도 가운데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백제왕이 처음으로 연 동진과의 책봉관계를 배경으로 한 외교관계이며 적어도 백제는 왜왕을 위에 놓는 관계에서 외교한 것이 아니고 수평관계의 외교에 가깝다.

④ 또 《日本書紀》는 ‘七枝刀’ 등의 현상에 이어 “仍啓曰, 臣國以西有水. 源出自谷那鐵山. 其邈七日行之不及. 當飲是水, 便取是山鐵, 以永奉聖朝”라고 사신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谷那鐵山이 철의 공급지라고 사신의 말하고 있는 것은 방제 칠

지도의 원료가 이곳의 철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맺음말－七支刀를 둘러싼 국제관계－

지금까지 언급했으나 동진에서 하사받은 七支刀를 백제가 倣製하여 이것을 왜왕에게 보낸 외교의 배경에는 백제가 직면한 대외관계가 있었다. 《三國史記》卷24 百濟本紀에 의하면 近肖古王 23년(368) 춘3월에 백제는 신라에 사신을 보내 良馬 두필을 보내 통호하는 한편 다음해(369) 9월에는 고구려왕 故國原王이 步騎 2萬의 군대로 공격해 왔으므로 近肖古王은 태자에게 군대를 이끌게 해 이를 격파하고 5千餘級을 획득하였다. 같은 해 겨울 11월에도 백제는 漢水 이남으로 군대를 보냈고 同 26년(371)에는 다시 고구려 군대의 공격을 받아 近肖古王은 溟河에서 고구려군을 공격하여 패주시켰다. 같은 해 겨울에 근초고왕과 태자는 정병 3만을 이끌고 북상하여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으며 이 전투에서 응전하던 고구려의 고국원왕은 화살에 맞아 전사할 정도로 백제는 크게 승리하고 있다.

이 고구려전의 승리 후 백제는 372년 정월에 동진으로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같은 해 6월에 근초고왕은 동진의 사신을 맞이하여 ‘鎮東將軍領樂浪太守’로 책봉된 것이다. 이 때 백제는 앞의 七支刀를 하사받았으며 이것을 방제하여 왜왕에게 보내는 외교를 폈던 것이다. 그것은 《日本書紀》에서 말하는 神功皇后 섭정 52년(372) 9월의 일로 판단되지만 이 부분도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日本書紀》는 日韓關係의 유서를 이야기처럼 서술하는 경향이 있고 《古事記》에는 中卷의 應神天皇記에 ‘照古王’이 ‘橫刀’를 ‘貢上’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칠지도를 증여한 372년 9월보다 좀 뒤의 일일 지도 모른다.

그런데 백제는 368년에는 신라와 통호하고 고구려전을 유리하게 이끌고 또 372년에 동진의 外臣이 되는 국제관계를 구축하자 바로 이 라인 위에 왜국을 불러들여 고구려에 대비하는 남방라인을 강화한 것이다. 백제의 근초고왕이 칠지도를 왜왕에게 보낸 외교의 前史에는 《日本書紀》卷9 神功皇后 46년조에 ‘甲午年(364)’에 백제가 가야의 卓淳國으로 사신을 보내 왜국으로의 안내를 구했다는 것이 있었다.

倭國으로의 통교와 연동하여 가야 제국과도 통하고 있다. 《日本書紀》卷19 欽明天皇 2년 4월조에는 백제의 聖明王이 근초고왕대를 회고하여 安羅·加羅·卓淳의 卑岐 등이 처음으로 백제와 통교하고 ‘子弟’의 관계를 맺었다 한다. 백제의 남방라인에

는 가야제국도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일단 책봉관계에 들어가자 책봉관계의 확대를 종주국이 피책봉국에 기대하게 되고 피책봉국은 자기의 위치를 보장하기 위해 인접 세력을 책봉관계로 유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백제를 매개로 한 중국 남조와 왜왕과 가야제국과의 6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남방외교 라인이 개시된 것이다.

백제의 근초고왕은 자신이 쌓은 신라와 동진 그리고 남쪽의 왜국과 가야제국을 잇는 남방라인의 외교체제 하에서 북의 고구려와 대항하였다. 《三國史記》의 百濟本紀와 고구려본기에는 4세기 말까지 계속되는 양국의 일진일퇴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데 신라는 앞으로 언급하듯이 377년에는 백제의 라인에서 이탈하여 고구려에 포섭된다.

여기서는 이 사이의 신라의 동향이 주목된다. 《三國志》 魏書 韓傳에 辰韓 12국 중의 하나로 ‘斯盧國’이 보이나 《晉書》에는 3세기 말에 西晉과 통교한 ‘馬韓辰韓等東夷諸國’으로 일괄될 뿐이었다. 그런데 377년에 이르러 신라의 이름으로 前秦에 사신을 보낸 것이 《資治通鑑》 卷104 晉紀 烈宗紀에 보인다. 여기에는 “太元二年(377)春, 高句麗新羅西南夷, 皆遣使入貢于秦”이라 되어있고 이것은 前燕이 前秦에게 멸망당한 뒤 고구려가 前秦에 사신을 보낸 외교이다. 신라는 백제의 라인에서 벗어나 고구려를 쫓아 대외관계로 들어간 것이다.

이어서 《太平御覽》 卷781 四夷部2 東夷2 新羅條에는 《秦書》를 인용하여 “符堅建元十八年, 新羅國王樓寒, 遣使衛頭, 獻美女, 國在百濟東, 其人多美髮, 髮長丈餘. 又曰, 符堅時, 新羅國王樓寒, 遣使衛頭朝貢. 堅曰, 卿言海東之事, 與古不同何也. 答曰, 亦猶中國時代變革, 名號改易”이라 되어있다. 이 前秦王 符建의 建元 18年(382)에 이르러 분명히 ‘新羅’의 이름으로 신라왕 樓寒(奈勿王)은 북조의 前秦과 통교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고구려의 협조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신라는 고구려의 인도로 북조로 통하는 북방라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이 라인은 5세기 말까지 지속되었다.

백제는 《晉書》 卷9 孝武帝紀에 “大元九年(384)七月, 百濟遣使來貢方物”이라 하였고 또 同書에는 “大元十一年(386)夏四月, 以百濟王世子餘暉, 爲使持節都督鎮東將軍百濟王”이라고도 되어있다. 백제는 고구려와의 전투를 계속하는 가운데 신라의 이탈은 있었으나 동진의 책봉체제 안에서 왜국에 앞선 자신의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이의 왜왕의 동태는 《三國史記》 新羅本紀에 의하면 3세기 이래 누차에 걸쳐 신라의 변경을 침입했으나 奈勿尼師今 9년(364)에 신라로 침입한 이후에는 同 38년(393)까지 침입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에 걸쳐 백제와 함께 왜가 고구려와 신라와 충돌한 내용은 고구려의 입장에서 414년에 이것을 기

록한 高句麗 廣開土王碑文에서 알 수 있는 바이다.

[參考史料]

① 《日本書紀》卷9 神功皇后攝政 “五十二年(372年)秋九月丁卯朔丙子, 久氐等從千熊長彥詣之. 則獻七枝刀一口・七子鏡一面及種種重寶. 仍啓曰, 臣國以西有水. 源出自谷那鐵山. 其遶七日行之不及. 當飲是水, 便取是山鐵, 以永奉聖朝. 乃謂孫枕流王曰, 今我所通海東貴國是天所啓. 是以垂天恩, 割海西而賜我. 由是國基永固. 汝當善脩和好, 聚斂土物, 奉貢不絕, 雖死何恨. 自是後每年相續朝貢焉. 五十五年(375年), 百濟肖古王薨. 五十六年, 百濟王子貴須立爲王.”

② 《古事記》中卷 應神天皇記 “亦百濟國主照古王, 以牡馬壹疋, 牝馬壹疋, 付阿知吉師以貢上[此阿知吉師者, 阿直史等之祖]. 亦貢上橫刀及大鏡. 又科賜百濟國, 若有賢人者貢上. 故, 受命以貢上人, 名和邇吉師. 卽論語十卷, 千字文一卷, 并十一卷, 付是人卽貢進. [此和爾吉師者文首等祖]”

③ 《三國史記》卷24 百濟本紀第2 “近肖古王, 比流王第二子也. 體貌奇偉, 有遠識. 契王薨, 繼位.”

同二十三年(368年)春三月丁巳朔. “日有食之. 遣使新羅, 送良馬二匹. 二十四年(369年)秋九月. 高句麗王斯由帥步騎二萬, 來屯雉壤. 分兵侵奪民戶. 王遣太子以兵徑至雉壤, 急擊破之. 獲五千餘級. 其虜獲分賜將士. 冬十一月. 大閱於漢水南. 旗幟皆用黃.”

同二十六年(371年), “高句麗舉兵來. 王聞之. 伏兵於河上. 俟其至急擊之. 高句麗兵敗北. 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 攻平壤城. 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移都漢山.”

同二十七年(372年)春正月. “遣使入晉朝貢.”

同二十八年(373年)春二月. “遣使入晉朝貢.”

同三十年(375年)秋七月, “高句麗來攻北鄙水谷城陷之. 王遣將拒之. 不克. 王又大舉兵報之. 以年荒不果. 冬十一月. 王薨. 古記云. 百濟開國已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得博士高興, 始有書記. 然高興未嘗顯於他書. 不知其何許人也.”

同 “近仇首王<一云, 諱須>. 近肖古王之子. 先是高句麗國岡王(故國原王 一云 國岡上王: 濱田)斯由親來侵, 近肖古王遣太子拒之. 至半乞壤將戰. 高句麗人斯紀本百濟人. 誤傷國馬蹄. 懼罪奔於彼. 至是還來. 告太子曰. 彼師雖多. 皆備數疑兵而已.

其驍勇唯赤旗. 若先破之. 其餘不攻自潰. 太子從之. 進擊大敗之. 追奔逐北. 至於水谷城之西北. 將軍莫古解諫曰. 嘗聞道家之言. 知足不辱. 知止不殆. 今所得多矣. 何必求多. 太子善之止焉. 乃積石爲表. 登其上. 顧左右曰. 今日之後. 疇克再至於此乎. 其地有巖石罅若馬蹄者. 他人至今呼爲太子馬迹. 近肖古在位三十年薨. 卽位.”

同三年(377)冬十月 “王將兵三萬侵高句麗平壤城. 十一月. 高句麗來侵.”

同五年(379)春三月 “遣使朝晉. 其使海上遇惡風. 不達而還.”

同十年(383)夏四月 “王薨.”

同 “枕流王. 近仇首王之元子. 母曰阿爾夫人. 繼父卽位. 秋七月. 遣使入晉朝貢. 九月. 胡僧摩羅難陀自晉至. 王迎之致宮內禮敬焉. 佛法始於此.”

同二年(385)春二月 “創佛寺於漢山. 度僧十人.”

- ④ 《晉書》 卷9 簡文帝 “咸安二年(372)春正月辛丑 百濟林邑王. 各遣使貢方物. 六月. 遣使拜百濟王餘句爲鎮東將軍領樂浪太守”

[主要參考文獻]

田中俊明 《大加耶連盟の興亡と‘任那’ -加耶琴だけが残った-》 (2002年 8月, 吉川弘文館)

제2장 高句麗 廣開土王碑文으로 읽는 日韓關係와 고구려의 國家像

머리말

4世紀의 日韓關係를 왕권의 성립과정과 관련시켜 고찰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를 들 수 있다. 그것은 ① 왜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사이에 ‘渡海’하여 고구려와 교전 하기에 이른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또 이어지는 5세기의 왜 및 동아시아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또 이 문제와 관련하여 ② 고구려의 군사적인 강성화가 4세기 중엽부터 조선반도 남부로의 남진책으로 전개되었고 여기에 이른 고구려 내부의 요인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 역시 지금까지의 일한학계의 풍부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廣開土王碑文》 연구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비문에는 광개토왕에 의한 세력권 확장의 공훈을 왕의 덕화의 확대로 보는 입장에서 기록한 수사법이기는 하나 거기에는 4세기 중엽에서 5세기에 걸쳐 각 왕권의 성립과정 가운데 고구려에 대한 백제와 가야와 왜의 승從과 신라가 連衡하는 동향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碑文의 전체구성을 대왕의 전과를 중심으로 이해한 위에 광개토왕 시대의 한반도의 제국과 왜국과의 관계를 이해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부록으로 붙인 비문 판독문은 이하의 武田幸男씨의 책(1988)에 게재된 武田試釋을 기준으로 原石拓本の 여러 본과 비교 검토한 해석이다.

[현존하는 原石拓本과 그 사진판 게재서]

[日本]

- ① 水谷悌二郎舊藏拓本(國立歷史民俗博物館藏 《書品》 100號, 1959年 6月. 水谷悌二郎 《好太王碑考》 開明書院, 1977年 9月. 武田幸男編著 《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 東京大學出版會, 1988年 3月)
- ② 金子鷗亭所藏拓本(武田幸男編著 《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 東京大學出版會, 1988年 3月)

[韓國]

- ① 任昌淳舊藏拓本(《書通》 第1號, 1973年 9月)에 일부 紹介. 任世權·李宇泰編著 《韓國金石文集成(1)》 韓國國學振興院, 2002年 9月)

[臺灣]

- ① 傅斯年圖書館藏本(乙)(武田幸男編著 《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 東京大學出版會, 1988年 3月)
- ② 《書通》 綴込本(《書通》 第1號, 1973年 9月)
- ③ 傅斯年圖書館藏本(甲)(武田幸男編著 《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 東京大學出版會, 1988年 3月)

[中國]

- ① 《晋高麗好太王碑, 李龍精拓整紙本》[北京大學圖書館藏·‘好太王碑’C](林基中編著 《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 東國大學校出版部, 1995年 11月. 中國著名碑帖選集27 《好太王碑》 吉林文史出版社, 1999年 8月)
- ② 《高句麗平安好太王墓誌碑全部》(林基中編著 《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 東國大學校出版部, 1995年 11月)
- ③ 《高句麗平安好太王墓誌碑全部》 補完拓本(林基中編著 《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 東國大學校出版部, 1995年 11月)
- ④ 《高句麗好太王碑》(林基中編著 《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 東國大學校出版部, 1995年 11月)
- ⑤ 徐建新 <北京に現存する好太王碑原石拓本の調査と研究－北京大學所藏拓本を中心に－>(《朝鮮文化研究》 第3號, 1996年 3月)

I. 廣開土王의 치적

碑文의 판독문은 酒匂拓本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 탁본은 日本陸軍參謀本部의 酒匂景信이 ‘倭’軍의 전황에 더욱 유리하도록 위조된 것이라고 말해져 왔으나(李進熙, 1972), 실은 墨水廓填法에 의한 2차적인 탁본으로 바뀌 말하면 이 작업은 비석에 석회를 도포하여 문자의 윤곽을 선명하게 하는 이전의 순수한 비석으로부터 채탁한 소위 ‘原石拓本’을 재료로 희미한 탁본에서 훌륭하게 문자를 읽어내 이에 雙鉤廓填의 방법으로 작성한 탁본이며 그 작업이 실로 釋文이었던 것이다(末松, 1981). 그

때문에 酒匂拓本은 초창기의 釋文으로서 오늘날 다시 原石拓本과 대면하여 碑文을 판독할 때에는 존중받고 참고될 만한 탁본의 형식을 갖춘 석문이다.

그리고 근년 水谷悌二郎, 武田幸男, 林基中, 徐建新 등이 原石拓本の 적절한 사진을 연구의 장에 제공했을 뿐 아니라 각각의 석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주지하듯이 비문은 고구려 왕가의 시조가 하늘에 유래하여 알에서 깨어나 고난을 극복하고 즉위하여 광개토왕에 이르는 왕통을 새긴 제1단, 광개토왕(이하 대왕이라 칭함) 재위 중의 대외전쟁을 8개년조로 편년하여 새긴 제2단, 그리고 대왕의 사후에 왕도의 왕릉을 지키는 烟戶의 城別 할당과 烟戶不賣買의 제령을 새긴 제3단으로 구성된다.

비문은 대왕이 왕성하게 대외전쟁을 전개하고 그 성과로서 구축한 고구려 중심의 국제관계를 대외의 덕화의 확대로 명기하고 있고 왕도의 남방을 한 고구려의 국가 목표까지도 표상하는 이 거대한 비를 세운 목적과 3단의 구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비문을 읽는 기본적인 시점에서 비문의 문맥의 요점을 약술해 보겠다. (고딕체 문자는 주목해야할 어구이며 ‘ ’의 문자는 비문의 문자임을 나타냄. 또 ‘碑文’은 附錄의 ‘試釋’을 참조하기 바람.)

[第1段]

○ ‘始祖인 鄒牟王의 創基’를 돌아보면 ‘聖’스러운 시조 鄒牟王은 ‘北扶餘’에서 ‘天帝의 子’로 ‘河伯의 女郎을 母’로 하여 ‘卯’에서 ‘生’하자 ‘巡幸南下’하고 고난을 극복하며 ‘忽本の 西’쪽의 ‘山上’에 ‘城’을 쌓고 ‘都’를 ‘建’하였다. 그러나 시조는 ‘世位를 樂하지 않고’ ‘天이 黃龍을 下하여 王을 迎하자 王은 忽本の 東罡에서 龍首를 履하고 昇天’했으나, 여기에서 ‘世子인 儒留王에게 命을 顧하여 道를 써서(以) 治하도록’ 하였다. 이어 ‘大朱留王은 基業’을 이어받아 ‘十七世孫인 國罌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에 至하였다’. 大王은 18歲로 ‘登祚’하자 ‘永樂太王’이라고 ‘號’하였다. 太王의 ‘恩澤’은 ‘皇天’에 ‘□’하고 ‘威武’는 ‘四海’에 ‘振被’하여 ‘□□’를 ‘掃除’하고 ‘其 業’을 ‘庶(두루)寧(편안케)’하여 ‘國은 富하고’ ‘民은 殷하고’ ‘五穀은 豐熟’하였으나, 39세에 돌아가시자 그 영혼을 ‘甲寅年(414) 九月 廿九日에 山陵에 遷就’하였다.

[第2段]

○ 永樂五年(395年). 稗麗가 高句麗에게 □하지 않으므로, 大‘王’은 ‘躬率’하여 ‘往’하여 이를 ‘討’하여, ‘三部落六七百營’을 ‘破’하고 ‘牛馬群羊’을 획득하여 ‘旋駕’하여 ‘土境’

을 ‘遊觀’ ‘田獵’하고 ‘還’하였다.

○ 永樂六年(396年). 백제와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屬民’이었고 ‘朝貢’하고 있었는데, ‘倭’가 ‘辛卯年(391년)부터 以來, 渡海하여 百殘을 破하고 新羅를 □하여 臣民으로 삼았기’ 때문에 大‘王’은 ‘軍을 躬率’하여 ‘殘國’을 ‘討伐’하였다. ‘軍’은 ‘南’쪽에서 ‘攻取’한 성이 다수였다. 그러나 ‘其 國城은 義에 服하지 않고, 敢히 出하여 百戰’하였으므로, 大‘王’은 ‘威’를 가지고 ‘赫怒’하여 ‘阿利水’를 ‘渡’하여 그 國‘城’을 包‘圍’하자, ‘殘主’는 ‘困逼하여 男女生口 一千人과 細布 千匹’을 ‘獻’하고, 大‘王’ 앞에 ‘跪’하고, ‘以後’ ‘永’遠히 ‘奴客’이 되겠다고 ‘自誓’하였다. ‘太王’은 百殘王의 ‘□迷의 愆(잘못: 倭에게 격파되어 ‘臣民’이 되었던 것)’을 ‘恩赦’하고 ‘後順의 誠(이후 영원히 대왕의 奴客이 되는 것)’을 ‘錄’하였다. 거기서 대왕의 군대는 ‘五十八城’과 ‘村七百’을 □하고, ‘殘主의 弟’와 ‘大臣十人’을 ‘將’하고 ‘師’를 ‘旋’하여 ‘都’로 歸‘還’하였다.

○ 永樂八年(398年). ‘偏師’를 肅慎土谷에 ‘教遣’하고, ‘莫□羅城과 加太羅谷의 男女三百餘人’을 ‘抄得’하였다. ‘此부터 以來(肅慎土谷은) 朝貢하여, 事를 論’하게 되었다.

○ 永樂九年(399年). ‘百殘’이 奴客이 되겠다는 ‘誓’를 ‘違’하고 ‘倭’와 ‘和通’하였기 때문에, 大‘王’은 ‘平壤’으로 ‘巡下’하였다. 그러자 ‘新羅’는 ‘使’를 ‘遣’하여 大‘王’에게 ‘白’하여 ‘云’하기를, “倭人은 其 國境에 滿하여 城池를 潰破하고 있습니다. (太王의) 奴客은(그 신분은) 民이기 때문에, 王에게 歸하여 命을 請합니다’라고. 거기서 ‘太王’은 ‘恩慈’를 가지고 (新羅王이 太王의 奴客이 되어 歸服해 온) ‘忠誠’을 ‘稱讚’하여, 新羅의 ‘使’者를 新羅에 ‘還’하게 하여 ‘□計’를 ‘告’하게 하였다.

○ 永樂十年(400年). 대왕은 ‘步騎五萬’을 ‘教遣’하여 ‘往’하여 ‘新羅’를 ‘救’하였다. 군대는 ‘男居城’에서 ‘新羅城’에 ‘至’하였을 때, ‘倭’는 ‘其中’에 ‘滿’하여 있었는데, ‘官軍’이 ‘方(막)’ 新羅城에 ‘至’하자마자 ‘倭賊은 退’하였다. 官軍은 ‘急迫’하여 ‘任那加羅의 從拔城에 至하자 城은 卽시에 歸服’하였다. ‘安羅人戍兵은 … 倭는 …’ ‘昔(옛날), 新羅의 寐錦은 未(아직) 身(몸소) 來하여 事를 論’한 적은 없으나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의 新羅救援戰의 성과가 있어 신라의 왕자 ‘僕勾’가 … ‘朝貢’해 왔다.

○ 永樂十四年(404年). ‘倭’가 ‘不軌’하게도 ‘帶方界’로 ‘侵入’하여 ‘連船’했으므로, 大王은 ‘躬率’하여 ‘平穰’으로부터 ‘□□’하여 이와 싸웠다. ‘倭寇’는 ‘潰敗’하여 大王軍이

‘斬殺함이 無數’했다.

○ 永樂十七年(407年). 大王은 ‘步騎五萬’을 ‘敎遣’하고 … ‘合戰’하여 적을 ‘斬殺’하고 이를 ‘盡’시켰다. ‘獲得한 ‘所(바)’의 ‘鎧鉀은 一萬餘領’이고 ‘軍資器械’는 ‘數’를 ‘稱(세다)’할 수 없을 정도였다, 軍은 ‘還’하여 ‘沙溝城’ 등의 6城을 깨뜨렸다.

○ 永樂二十年(410年). ‘東夫餘는 舊(원래)부터 鄒牟王의 屬民이었으나 中間에 叛하여貢이 없게 되었다. 이에 (大)王은 躬率하여 往하여 이를 討하였다’. 大王‘軍’이 ‘餘城’에 ‘到’하자 ‘餘城’은 ‘駭(놀람)’하였다. … ‘王恩’이 ‘普’하게(널리) ‘覆’하였고 거기서 軍은 ‘旋還’하였다. 여기서 大王에게 ‘慕化’되어 ‘官’을 ‘隨’하여 ‘來한 者’는 ‘味仇婁鴨盧’ 등의 다섯 ‘鴨盧’였다.

[第3段]

高句麗軍이 ‘攻破한 城은 六十四, 村은 一千四百’이다. ‘守墓人烟戶’는 ‘賣句餘民은 國烟二, 看烟三 … (以下各城으로 國烟看烟의 할당) … ‘國罫上廣開土境好太王이 存하였을 時에 敎하여 言하시길 “祖王先王은 그저 敎하여 遠近의 舊民을 取하여 墓를 守하고 이를 洒掃시켰다. 吾는 舊民이 轉하여 當으로(바야흐로) 羸劣할 것을 慮한다. 若(만약) 五萬年の 後에도 安하여(편안히) 墓를 守하는 者는, 但, 吾가 躬(스스로) 巡하여 略來한 韓과 穢를 取하여 洒掃에 備하게 하라”라고. (大王의) 言敎가 如此하므로, 是以로 敎令과 如하게 韓과 穢의 二百廿家를 取하였다. (그러나) 其의 法則을 모를 것을 慮하여 다시(復) 舊民一百十家를 取하였다. 新舊의 守墓戶를 合하여 國烟은 卅, 看烟은 三百의 都舍 三百卅家이다. 自上(옛날)의 祖・先王부터 以來 墓의 上(부근)에 石碑를 安하지(두지) 않아 守墓人烟戶를 差錯하게 되기에 致하였다. 國罫上廣開土境好太王은 모두(盡) 祖先王을 爲해 墓의 上(부근)에 碑를 立하여 그 烟戶를 銘(記)시켜 差錯하게 되지 않았다. 또 制하기를, 守墓人은 自今부터 以後 更相으로(번갈아) 轉賣함을 得할 수 없고, 富足한 者가 有하다고 雖하여도 亦시 擅買함을 得할 수 없다. 이 令을 違하고 (守墓人을) 賣하는 者는 之를 刑하고, 買하는 者는 制하여 墓를 守하게 한다.’

II. 修辭法이 노래한 大王의 ‘聖戰’

廣開土王이 재위 중에 획득한 대외적인 戰籍으로 《碑文》에 새겨진 것은 稗麗와 백제 그리고 후술하듯이 백제를 ‘臣民’으로 삼고 있다고 고구려가 판단한 왜, 그리고 동부여로의 대외전쟁과 왜의 침입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신라로의 구원전, 肅愼土谷으로의 관찰을 위한 파병 등이다.

이 가운데 大王이 ‘躬率(몸소 군을 이끌고)’하여 출정한 (永樂九年에는 ‘巡下’하였다)전쟁에는 대왕이 躬率(親征)하지 않을 수 없는 高句麗로서는 불리한 대외전쟁의 상황, 즉 그 불리한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고구려 본위의 正當性이 대왕 친정의 前提로서 새겨져 있다. 한편 대왕이 대군을 ‘敎遣’한 전쟁에는 前置文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비문의 수사법이 주목되었다.

이 ‘辛卯年’條의 해석에 대해 학설이 분분했던 1970년대 이후의 일한 고대사학계 가운데 이 수사법의 이해는 ‘辛卯年’條가 ‘永樂六年’의 對백제 친정의 前置文(서론문)이며 또 그 후의 고구려가 백제와 왜를 정토하고 신라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大前置文으로 이해되어 그것은 고구려에게는 불리한 상황의 제시이나 그 때문에 대왕의 친정을 정당화하고 그 전과를 크게 賞贊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濱田, 1973, 74. 武田, 1989). 즉 ‘辛卯年’條에는 고구려의 옛날부터의 속민으로서 조공을 바치던 백제와 신라는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 백제(신라까지도)를 치고 신민으로 삼았다고 하는 고구려와 백제, 고구려와 신라, 왜와 백제 및 신라와의 대왕 즉위 이전의 관계에 대한 기본인식이 제시되어 있다고 널리 이해되고 있다. 다만 왜와 백제, 또는 신라와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고구려의 인식이고 사실은 반드시 그런 관계만은 아니라는 것은 후술하겠다.

그런데 《三國史記》 高句麗本紀나 《資治通鑑》에 의하면, 대왕의 치세에는 그 외에도 거란과 후연과의 대외전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비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것이 대왕의 빛나는 공적이 아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북방면으로의 전쟁이 대왕의 공적을 새긴 《碑文》을 수도인 國內城(지금의 中國 吉林省 集安縣, 鴨綠江 북쪽)의 성지인 ‘國置上’에 건립하고 남방으로의 확대를 암묵적으로 과시하는 고구려 국가의 기본전략과 다르기 때문이다. 즉 대왕의 치세를 이은 아들 장수왕이 비를 세운 정치과제는, 고구려국가의 정통성이 하늘에 유래하며 그 기반이 시조의 ‘巡幸南下’이래 오늘까지도 ‘南’에 있음을 후세에 과시하는 것이고, 그 때문

에 《碑文》에서는 ‘南’으로의 전과를 잘 새겨 북쪽과 서쪽으로의 전황은 의식적으로 제외시켰다고 생각한다. 또 서북방면으로는 고구려가 우위인 국제질서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대왕의 ‘南’으로의 세력권 확장은 시조의 ‘巡幸南下’에 부합하는 성전으로 이해되어 백제와 왜와의 전투는 당연히 남쪽 전쟁의 요체였던 것이다. 또 대왕은 王都의 墓 즉 왕가의 묘를 ‘略來의 韓穢’에 守墓洒掃하도록 유훈을 남겨 장수왕은 그것을 대체로 실행하고 있다. ‘略來의 韓穢’란 바로 획득한 백제의 64성의 성민을 중심으로 왕도의 수묘인을 편성한 것이고 왕도로 옮겨진 왕묘를 지키는 이들 烟戶를 매개로 고구려가 남으로 군림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남으로의 지향과 복속을 강조하는 비문의 기본적 성격은 석비의 제1면과 제2면의 접선이 정남향을 향해 건립되어 있는 점(附圖 參照), 즉 시조의 ‘巡幸南下’와 백제 정토와 신라 구원과 왜구 소탕이라는 남방전의 경과와 성과를 새긴 제1, 2면이 45도씩 남쪽을 향해 건립된 비석의 웅장한 모습에도 대왕과 장수왕대의 남방 지향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대왕이 친정하고 남긴 대외전쟁의 전과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官軍’의 개선 기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파견군과 대왕군의 행동의 종결이 ‘旋駕 … 過 … 還’(永樂 5年)이나 ‘旋師還都’(6年), ‘還破’(17年), ‘旋還’(20年)으로 새겨진 전쟁은 모두 고구려의 영토 밖에서의 전쟁이었다. ‘平穢’으로의 ‘巡下’(9年)와 ‘帶方界’로의 친정(14年)은 모두 대왕의 ‘土境’ 내에서의 일이고 여기에서는 물론 ‘凱旋’이라고는 새겨져 있지 않다.

또 개선의 사실을 새겨놓지 않은 8년조와 문자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개선이라고 새겨져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영락 10년조는 모두 ‘敎遣’의 外征이었으나 ‘凱旋’으로 쓰지 않고 있고, 그 최대의 성과는, 전자는 외정의 대상인 肅愼의 조공을, 후자는 신라의 조공을 개시하게 한 것이라고 새겨놓고 있다. 즉 ‘朝貢’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보아 당연한 것이지만, 이 두 세력은 고구려의 ‘土境’ 밖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개선’ 기사를 생각해 보면 9년조의 ‘平穢’으로 ‘巡下’한 뒤의 ‘遣使還告’란 이미 해석했듯이 ‘新羅使로 하여금(新羅王城으로) 돌아가서 告하게 한’ 것이다. 또 17년조의 ‘敎遣’은 고구려 왕도의 북서에 있는 燕으로의 파병이 아니고 역시 백제를 향한 파병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軍器’를 획득한 뒤에 ‘還’한 것은 그 戰地가 고구려의 土境 밖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 과정에서 破한 것은 6‘城’이었던 것에서 판단하면 그것은 土境 밖의 땅이고 또한 ‘城’을 단위로 한 사회 형태로 보아 그것은 백제의 땅이고 영락 6년의 친정으로 획득한 백제 땅의 남쪽에 접한 지역일 것이다. 永樂 9년에 백제와 ‘和通’한 왜는 또 永樂 14년에 ‘不軌’하게도 ‘帶方界’에까지 북상해 있었으며 백제는 ‘和通’의 관계에서 이 ‘倭寇’와 행동을 같이했을 것이므로, 이 永樂 17년

의 전투는 후술하듯이 백제의 땅으로의 ‘敎遣’이었다고 판단된다. 전황을 전하는 부분의 문자수가 많지 않은 점에서도, 大戰에 이르지 않은 것은 14년에 ‘倭寇’는 ‘潰敗’해 있고 백제도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왕은 백제 북부의 땅을 획득하고 한때는 백제왕을 奴客으로 삼은 적도 있었지만, 결국은 백제왕을 조공시키거나 속민으로 삼을 수 없었던 것이다.

Ⅲ. ‘臣民’과 ‘奴客’

碑文에는 고구려 왕권에 예속한 인격을 ‘屬民’ ‘奴客’ ‘舊民’ ‘新民’ 등으로 각인한다. 또 그것들은 생활형태로 ‘城民’이나 ‘谷民’ ‘賈’로도 새겨졌다. 단 비문에 새겨진 ‘臣民’은 여기에서는 高句麗王에 대한 예속의 관계는 아니다. 왜와의 관계에서 百濟(혹은 新羅도)가 倭의 ‘臣民’이 되었다고 고구려가 인식한 것이다.

여기에서 먼저 비문의 훈적 기사는 대왕군이나 파견군은 외정의 성과를 올리면서 개선했고 정복지를 新領域으로서 국경으로 하고 그 백성을 ‘新民’으로 파악하고 있다. 혹은 ‘土境’에 포섭시키지 않고 그 땅의 왕이나 수장에게 은택을 보이며 굴복시켜 조공을 얻고 있다. 즉 고구려의 ‘屬民’으로 하는 관계의 설정이다. ‘舊民’에 ‘新民’이 더해지고 그 외에 수장이나 사신의 조공에 의해 맺어지는 ‘屬民’이 있는 것이다.

<碑文>에서는 고구려의 대왕군이 광개토왕 시대에는 전승한 ‘土境’ 외의 땅에 점령군으로서 주둔한 것은 보이지 않고 조공을 바치게만 한다. 아들 장수왕 시대인 5세기 중엽에 건립된 <中原高句麗碑>에 ‘新羅土內幢主’라는 고구려의 병관이 신라 국내에 주재한 사실은 보이나 광개토왕 시대에는 고구려의 보호지역이 된 신라에 장군 이하의 군대를 주둔시켰다고는 추측하기 어렵다. 신라가 조공하는 관계는 간접적인 통치이고 ‘屬民’의 관계이다.

그렇다면 신묘년조에 새겨진 왜가 백제(혹은 신라)를 ‘臣民’으로 한 것은 고구려의 어떤 인식인 것일까. 그것은 다음과 같이 고구려의 ‘舊民’, ‘新民’, ‘屬民’의 개념과 대조된다고 생각된다.

즉 백제와 ‘和通’한 왜가 신라의 왕성을 공격하기에 이르는 행동은 왜가 조선반도에 ‘渡海’하여 잔류하는 행동이고, 그것은 위에서 보았듯이 고구려가 ‘土境’ 내외의 인민을 통치하는 실태와 개념을 생각하면 왜의 행동은 고구려의 이민족지배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특이한 실태이며 정말로 왜가 ‘百濟와 新羅’를 신민으로 하고 있었다

고 고구려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다음으로 영락 9년조에 평양으로 ‘巡下’한 대왕에게 신라로부터 파견된 사신이 ‘以奴客爲民’라고 말하고 있다. 이 구절은 신라왕이 대왕에 대해 자신을 奴客이라고 비하하고 왜가 노객인 신라왕을 그 백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취지이며 신라의 사신이 신라의 어려움을 자세하게 대왕에게 호소했다고 이해되어 왔다. 이 신라왕을 왜가 백성으로 삼았던 것이라면 이것은 앞서 신묘년조에서 왜가 ‘新羅를 치고 臣民으로 하고 있다’는 표현과 중복되는 이해이다. 혹은 朴時亨씨는 “奴客인 신라왕은 고구려의 백성이 되어 있으므로” 대왕의 구원을 요청하였다고 해석하였다(1985).

이에 대해 武田幸男씨(1989)는 왜가 [高句麗王의] 노객인 백제왕을 ‘民’으로 했다고 해석한다. 永樂 6年條에 대왕군의 공격을 받아 항복한 백제왕이 대왕 앞에서 ‘영원히 奴客이 되겠다.’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맹세와 달리 왜와 화통하고 있었다. 신라의 사신은 평양으로 ‘巡下’해 온 대왕에게 왜가 신라의 왕성을 공격하고 있고 왜가 고구려의 노객이 된 백제왕을 백성으로 삼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즉 永樂 6년에 대왕군에게 패배한 백제왕은 대왕의 노객이 된다고 맹세하고 있었으므로 奴客은 바로 백제왕이라는 이해가 깔려 있다.

그러나 신라의 사신이 자국의 왕성이 왜에 포위당했다고 어려움을 보고한 것은 문맥상 무리 없이 이해되나, 신라의 사신이 왜와 백제왕과의 관계를 보고했다고 하는 이해는 문맥상 어색하다. 즉 한때는 대왕의 노객이었던 백제왕이 왜와 화통한 것은 신라 사신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미 <碑文>에는 이보다 앞선 永樂 9年條의 서두에 제시되어 있다. 바꿔 말하면 그 사태는 신라 사신의 말을 기다릴 것도 없이 이미 고구려가 인지하고 있던 바이다. 종래설이든 武田說이든 신라 사신의 말은 비문에서 보면 이미 이전에 명시되어 있는 백제왕의 상태와 중복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왜가 신라의 왕성으로 몰려와 성지를 파괴하고 있고 그 때문에 신라왕은 (高句麗의) ‘奴客’이란 신분 형태로는 ‘民’이므로 (그 民의 신분을 감수하며) 대왕에게 귀의하겠다고 신라왕이 대왕에게 귀복하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고구려가 이미 왜에 패하여 ‘臣民’이 되어 있었다고 인식한 신라왕이 광개토왕의 奴客이 되겠다고 하여 대왕의 ‘命’을 ‘請’하러 왔기 때문에 대왕은 이것을 받아들여 노객이 되었다고 말하는 신라왕의 ‘忠誠’을 ‘恩慈’로써 ‘稱(칭찬)’했던 것이다.

이 경위는 永樂 6년에 대왕군에게 항복한 백제왕이 대왕 앞에 무릎을 꿇고 대왕의 ‘奴客’이 되겠다고 맹세한 일, 이를 대왕이 ‘恩’으로써 응대했다는 것에 흐르는 대왕과 이에 예속하는 자와의 관계이다. 단 백제왕과 신라왕의 두 奴客이 탄생하는 경위가 다른 것은, 백제는 대왕의 공격을 받아 노객이 되었고 신라는 왜의 공격을 받아 난관

에 처해 대왕의 노객이 되겠다고 자청한 대왕과의 종속관계의 표명이라는 점이다.

비문에 강조되고 있는 두 ‘奴客’의 예속은 함께 고구려의 인식으로는 ‘本來부터의 屬民’이었던 백제와 신라가 왜의 공격으로 이미 그 ‘臣民’이 되어 있었으나 大王의 친정으로 倭의 ‘臣民’에서 벗어나 大王의 ‘奴客’이 되어 대왕의 ‘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경위에서 보면 ‘奴客’은 ‘屬民’보다 인격적인 종속도는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 永樂 20년의 대왕의 친정으로 타격을 입은 동부여에서 대왕의 恩에 감화되어 ‘官’軍을 따라 고구려에 온 다섯 명의 ‘鴨盧’도 신분은 대왕의 ‘奴客’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고구려의 ‘民’의 신분으로서의 ‘奴客’의 예로는 武田氏(1989)가 논했듯이 장수왕대에 ‘北扶餘’에서 와 高句麗의 ‘土境’ 내로 옮겨 살게 된 牟頭婁一族이 고구려왕과의 ‘恩’을 매개로 대를 이어 ‘奴客’이었던 주종관계를 墓誌 가운데 강조한 예를 상기시킨다.

맺음말

고구려는 313년에 낙랑군을 314년에는 대방군을 공격하고 이 두 군을 요동지역으로 철퇴시킨 뒤 그 지역에 남아있던 잔여 중국계 세력을 회유하면서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시켜 간다.

한편 附論 제4·5절에서 언급했듯이 두 군의 남부에는 韓의 여러 세력이 두 군과 통교함으로써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영향을 크게 받아 사회변동이 일어났으며 그 가운데에는 한강을 끼고 대방군과 인접하고 수리와 해상교통의 요충에 있는 伯濟國이 百濟國으로 4세기 전반에 제1기의 왕권을 탄생시켰고 뒤이어 신라와 왜의 성장을 낳았다. 이러한 남부의 변동은 4세기 후반에는 북의 고구려와 남의 백제의 접촉과 대립을 낳게 된 것이다.

이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관계는 신라와 왜를 불러들이게 된다. 372년에 東晉과 통교한 백제가 동진과의 책봉관계를 배경으로 왜왕에게 百兵을 ‘辟’할 수 있는 주술력이 있는 七支刀를 보내 왜와의 연계를 강화시킨 국제관계는, 왜가 그때까지 두 군과의 통교를 매개로 구축해 온 조선반도 남부의 세력들과의 관계를 한층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측 가운데 해협의 동쪽에 위치하는 왜는 낙랑·대방군과의 통교에서는 일찍부터 변한의 狗邪國이나 瀆盧國 그리고 마한의 바닷가 여러 국들과 교류가 있었으며 백제로부터 七支刀를 받자 백제와의 연계가 더욱 강

화된다. 백제가 받고 있던 고구려부터 밀려오는 군사적 위기감을 왜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七支刀를 매개로 한 백제와 왜의 관계를 고찰하면, 비문에 새겨진 왜와 백제의 관계는 왜가 ‘渡海破’하여 백제를 ‘臣民’으로 했다는 지배의 관계는 결코 아닐 것이다. 오히려 고구려와 싸우고 있는 백제가 주도하여 왜와 ‘任那’諸國과의 협조에 의한 왜의 ‘渡海’를 청했고 그것으로 강화된 삼자의 연계일 것이다. 일단은 대왕의 ‘奴客’이 되면서도 바로 이를 반복하여 왜와 ‘和通’한 백제왕의 행동은, 372년의 七支刀에 의해 확실히 표명된 왜와 연계하는 백제의 기본적인 對倭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신라는 왜의 침입으로 고구려의 노객이 되어 구원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 고구려왕에게 ‘朝貢’하는 관계로 들어가 고구려의 세력권에 포섭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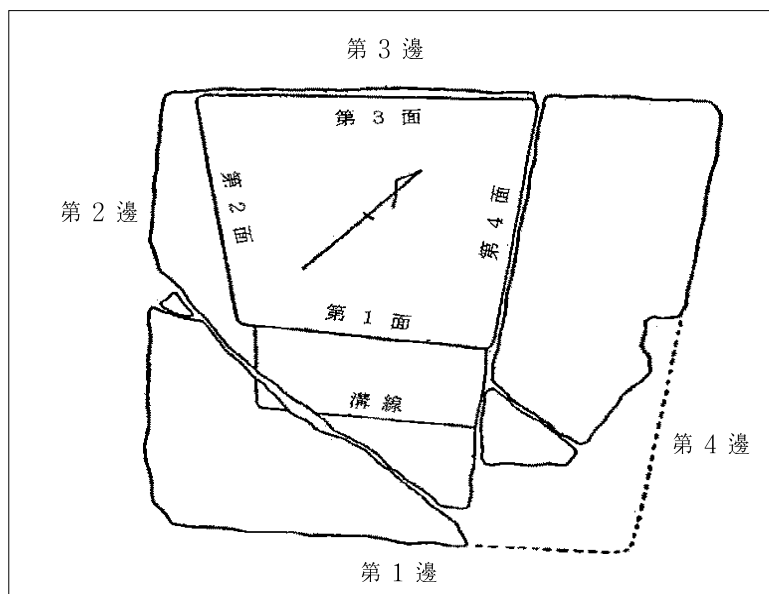
[主要參考文獻] (【廣開土王碑研究文獻目錄】을 參照)

- ① 濱田耕策, 1973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虛像と實像> 《日本歴史》 第304號
- ② 濱田耕策, 1974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研究－碑文の構造と史臣の筆法を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No.11
- ③ 佐伯有清, 1974 《研究史 廣開土王碑》(吉川弘文館)
- ③ 李進熙, 1974 《廣開土王陵碑の研究(增訂版)》(吉川弘文館)
- ④ 武田幸男, 1986 <廣開土王碑の百濟と倭> 《百濟研究》 第17輯
- ⑤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岩波書店)
- ⑥ 門田誠一, 1992 《海からみた日本の古代》(新人物往來社)
- ⑦ 李成市, 1994 <表象としての廣開土王碑文> 《思想》 842號

[廣開土王陵碑 畫像]



2004年 5月 3日 (月) 午前の 廣開土王碑



廣開土王碑 趺石 平面圖(《通溝》 卷上, 1938年 10月)

第Ⅲ面

[illegible]

제3장 〈碑文〉과 《三國史記》와 《日本書紀》의 日韓關係史像

머리말

廣開土王碑는 391년의 대왕의 즉위로부터 412년의 서거에 이르는 22年間の 전과를 고구려중심사관에 서서, 바꿔 말하면 대왕의 親征과 파병에 의한 승리 후에 형성된 ‘朝貢’과 ‘屬民’, ‘奴客’의 관계로 얹힌 국제관계를 대왕의 은덕의 擴延으로 명기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고구려의 대왕중심사관으로 그려진 고구려의 국제관계를 《三國史記》를 중심으로 다른 사료도 검토하며 검증하려 한다.

I. 〈碑文〉과 《三國史記》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에서는 大王의 조부인 故國原王이 371년 10월 平壤까지 공격해 온 百濟의 近肖古王이 이끄는 3만군을 맞아 싸우다 활에 맞아 같은 달 23일에 죽었다. 그 후 양국의 교전은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와 百濟本紀에 의하면 일진일퇴의 양상을 띠었다. 372년 6월에 근초고왕이 東晉에서 ‘鎮東將軍領樂浪太守’의 책봉을 받았고 또 왜에 사신을 보내 칠지도를 보내 백제가 동진과의 책봉관계에 들어갔음을 통지하고 이러한 관계와 연계할 것을 왜왕에게 권해 384년 7월에도 近仇首王이 晉과 통교하고 386년에는 百濟의 世子 餘暉이 ‘使持節都督鎮東將軍百濟王’에 책봉되는 등 동진과의 관계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으로 고구려는 백제의 동쪽에 위치한 신라를 포섭하여 377년 봄에 신라와 함께 前秦과 통교하고 또 382년에는 신라가 前秦과 통교하는 등 고구려와 신라는 華北의 왕조와 통교하였다. 그러나 故國壤王은 385년에 前秦을 대신하여 세력을 키운 後燕의 요동을 공격했으나 패퇴하고 있다(《梁書》 卷54 高句驪傳).

고구려가 남쪽의 백제와 서쪽으로는 후연의 양쪽 관계로 고전했던 대외관계 속에

서, 광개토왕은 동남쪽 신라와의 관계는 우세하게 진행시켰다.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 의하면 故國壤王은 同王 9(392) 봄에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위압함으로써 신라왕의 조카인 實聖을 質로 얻었다. 고구려는 신라와의 우월적 관계를 확고히 하고 나서, 392년 5월에 죽은 고국양왕의 왕위를 이은 廣開土王은 바로 같은 해 7월부터 남쪽의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광개토왕의 백제 공격은 <高句麗本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高句麗本紀>

故國壤王九年(392) 春. 遣使新羅修好, 新羅王遣姪實聖爲質.

卽位年(392) 七月. 南拔百濟, 拔十城. 九月. 北伐契丹. 虜男女五百口. 又招諭本國陷沒民口一萬而歸. 冬十月. 攻陷百濟關彌城. 其城四面峭絕. 海水環繞. 王分軍七道. 攻擊二十日乃拔.

二年(393) 八月. 百濟侵南邊. 命將拒之.

三年(394) 七月. 百濟來侵. 王率精騎五千逆擊敗之. 餘寇夜走. 八月. 築國南七城. 以備百濟之寇.

四年(395) 八月. 王與百濟戰於 水之上. 大敗之. 虜獲八千餘級.

十八年(409) 七月. 築國東禿山等六城. 移平壤民戶. 八月. 王南巡.

二十二年(413) 十月. 王薨. 號爲廣開土王.

이러한 고구려가 우세했던 백제와의 교전은 <百濟本紀>에서는 주객을 바꿔 보다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나 倭兵의 동향에 대해서는 <高句麗本紀>에도 없었고 여기에도 보이지 않는다.

○ <百濟本紀>

辰斯王八年(392) 七月. 高句麗王談德帥兵四萬. 來攻北鄙. 陷石峴等十餘城. 王聞談德能用兵. 不得出拒. 漢水北諸部落多沒焉. 冬十月. 高句麗攻拔關彌城. 王田於狗原. 經旬不返.

阿華王二年(393) 八月. 王謂武曰. 關彌城者我北鄙之襟容也. 今爲高句麗所有. 此寡人之所痛惜. 而卿之所宜用心而雪恥也. 遂謀將兵一萬伐高句麗南鄙. 武身先士卒以冒矢石. 意復石峴等五城. 先困關彌城. 麗人嬰城固守. 武以糧道不繼. 引而歸.

同三年(394) 七月. 與高句麗戰於水谷城下敗績.

同四年(395) 八月. 王命左將眞武等伐高句麗. 麗王談德親帥兵七千. 陣於 水之上拒戰. 我軍大敗. 死者八千人. 十一月. 王欲報 水之役. 親帥兵七千人過漢水. 次於青木嶺下. 會大雪. 士卒多凍死. 廻軍至漢山城. 勞軍士.

同六年(397) 五月. 王與倭國結好. 以太子腆支爲質. 七月. 大閱於漢水之南.

同七年(398) 八月. 王將伐高句麗. 出帥至漢山北柵. 其夜大星落營中有聲. 王深惡之. 乃

止. 九月. 集都人習射於西台.

同八年(399) 八月. 王欲侵高句麗. 大徵兵馬. 民苦於役. 多奔新羅. 戶口衰減.

同十一年(402) 五月. 遣使倭國求大珠.

同十二年(403) 二月. 倭國使者至. 王迎勞之特厚. 七月. 遣兵侵新羅邊境.

腆支王即位(405). 在倭聞訃. 哭泣請歸. 倭王以兵士百人衛送. 既至國界. 漢城人階忠來告曰. 大王棄世. 王弟磔禮殺兄自立. 願太子無輕入. 腆支留倭人自衛. 依海島以待之. 國人殺磔禮. 迎腆支即位.

同二年(406) 二月. 遣使晋朝貢.

同五年(409). 倭國遣使送夜明珠. 王優禮待之.

同十三年(417) 七月. 徵東北二部人年十五已上. 築沙口城. 使兵官佐平解丘監役.

同十四年(418) 夏. 遣使倭國. 送白綿十四.

《三國史記》의 양 本紀에서 읽을 수 있는 廣開土王代의 고구려와 백제의 교전은 武田씨(1989)도 지적했듯이 廣開土王碑文에 보인 양국의 전황과 충분히 맞는다. 즉 대왕이 즉위한 392년 7월부터 395년 8월의 대왕의 친정에 의한 백제군의 대패배와 같은 해 11월의 溟水에서의 百濟軍의 大敗, 백제 阿華王에 의한 보복의 친정과 397년 5월에 왜국에 태자 腆支를 質로 보내 지금까지의 양국관계를 공고히 하고 그 후 398년과 399년에는 고구려에의 보복전을 시도한 경과는 碑文에서는 永樂 6년(396)에 百濟는 大王의 一大親征으로 ‘五十八城’과 ‘村七百’을 잃었을 뿐 아니라 阿華王이 대왕 앞에 跪拜의 禮를 행하고 대왕의 ‘奴客’이 됨을 서약하면서도 바로 뒤에 이 ‘誓’를 ‘違’하여 ‘倭’와 ‘和通’한 경위와 충분히 대응하는 것이다.

비문에서는 永樂 9년(399)조에 왜가 백제의 ‘和通’을 받아 이를 계기로 해서인지 신라가 평양의 대왕에게 보낸 사신의 말로서 왜가 신라의 국경(신라의 왕성)에 ‘滿’하여 ‘城池’를 ‘潰破’하고 있다고 말한 왜병의 구체적인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 이 경과는 後揭하는 <新羅本紀>에는 奈勿麻立干 38년(393)에 왜인이 신라의 金城을 포위했으나 신라의 기병 200과 步卒 1千의 공격을 받아 패주하였고 402년에는 왕자를 왜에 質로 보내 405년, 407년에 왜는 신라의 왕도와 동쪽을 공격했다고 쓰여 있다. 왜가 신라의 왕성을 공격하는 이 기사는 비문에서 본 永樂 9년(399)에 신라의 사신이 대왕에게 보고한 신라 왕성의 참상과도 충분히 대응되는 것이다.

또 <百濟本紀>에는 阿華王이 397년 5월에 왜와 결탁하자 고구려에 보복전을 시도했고 402년 5월과 403년 2월에 왜와 사신을 교환하자 403년 7월에는 백제가 신라의 변경을 공격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신라를 치는 백제의 행동은 비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왜병과 서로 연계한 행동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때 왜병에 대응한 신라병은 기병이 200, 보병이 1000이고, 405년에 왜가 백제의 질이었

던 왕자 腆支를 백제로 호송할 때 왜병이 100명이었던 것이 주목된다. 비문에는 대왕이 ‘步騎五萬’의 병을 파견하여 신라를 구원했다고 하나 이는 반드시 병수의 실제 숫자는 아닐 것이며 그것은 신라왕성을 공격하는 왜병의 수가 ‘步騎五萬’에 대응할 정도의 대군이었다고 보기보다 ‘步騎五萬’의 대왕 파견군은 백제병과 ‘任那加羅’ ‘任那安羅’와 ‘倭賊’의 연합군으로 대응하는 진용이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 <新羅本紀> ①

奈勿麻立干三十七年(392) 正月, 高句麗遣使, 王以高句麗強盛, 送伊飡大西知子實聖爲質.
同三十八年(393) 五月, 倭人來圍金城, 五日不解, 將士皆請出戰, 王曰, 今賊棄舟深入, 在於死地, 鋒不可當, 乃閉城門, 賊無功而退, 王先遣勇騎二百, 遮其歸路, 又遣步卒一千, 追於獨山, 夾擊大敗之, 殺獲甚衆.

同四十六年(401) 七月, 高句麗質子實聖還.

實聖麻立干元年(402) 三月, 與倭國通好, 以奈勿王子未斯欣爲質.

同四年(405) 四月, 倭兵來攻明活城, 不克而歸, 王率騎兵, 要之獨山之南, 再戰破之, 殺獲三百餘級.

同六年(407) 三月, 倭人侵東邊, 夏六月, 又侵南邊, 奪掠一百人.

同七年(408) 二月, 王聞倭人於對馬島置營, 貯以兵革資糧, 以謀襲我, 我欲先其未發, 揀精兵擊破兵儲.

同十一年(412), 以奈勿王子卜好, 質於高句麗.

同十四年(415) 八月, 與倭人戰於風島克之.

訥祗麻立干二年(418) 正月, 王弟卜好自高句麗, 與堤上奈麻還來, 秋, 王弟未斯欣自倭國逃還.

同八年(424) 二月, 遣使高句麗修聘.

同十五年(431) 四月, 倭兵來侵東邊, 圍明活城, 無功而退.

同十七年(433) 七月, 百濟遣使請和, 從之.

비문은 이어서 大王이 왜병의 침입으로부터 新羅를 구하기 위해 永樂 10년(400)에 ‘步騎五萬’을 파견했으나 派遣軍이 ‘新羅城’(新羅의 王城)에 다다르자 ‘倭賊’은 신라의 왕성으로부터 물러났으므로 高句麗軍은 이것을 쫓아 ‘任那加羅’(金海)의 ‘從拔城’에 이르러 城을 ‘歸服’시켰던 점, 이 고구려 파견군의 신라구원전은 여기에 이르기까지 新羅의 ‘寐錦’(國王)이 스스로 고구려에 와 新羅의 ‘事’를 ‘論’하는 예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新羅를 구원한 大王의 은혜 감사하여 新羅王은 왕자인 ‘僕勾’를 사신으로 ‘朝貢’시켜 왔다는 양국관계의 신 전개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高句麗와 新羅의 관계도 앞의 <新羅本紀>에는 계속되는 倭兵의 내습에 대비하여 412년에는 新羅가 왕자 卜好를 高句麗에 入質시켜 高句麗와의 종속관계가 시

작되었다는 것과 대응한다.

永樂 10년의 新羅救援은 우선은 공을 세웠으나 倭를 완패시키지는 못했던 듯하며 永樂 14년(404)이 되면 왜는 ‘帶方界’에까지 ‘侵入’하고 배를 보냈으므로 대왕은 평양으로부터 친정하여 이를 물리치고 왜구를 ‘潰敗’시켜 ‘斬殺’하는 무수한 전과를 올렸다는 기록으로 비문의 대외관계의 기록은 끝을 맺고 있다. 이 왜구의 복상을 보면 <百濟本紀>에 전지왕이 405년에 즉위한 사정으로 100명의 왜병의 호송을 받으며 入質해 있었던 왜국에서 한성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한다. 이 왜병의 조선반도 서해안을 거쳐 한성부까지 복상한 해상교통이 있었다면 가능했을 왜의 ‘帶方界’로의 침입이다.

이어 비문에는 永樂 17년(407)에 대왕은 ‘步騎五萬’을 파견하여 적을 ‘斬殺’, ‘蕩盡’하고 무기를 빼앗았을 뿐 아니라 6성을 친 전과가 기록되어 있다. 이 파견군은 궤멸된 왜구와 ‘和通’하고 있는 백제를 향한 원정으로 생각되므로 비문은 대왕시대의 대백제전을 이처럼 고구려가 우세한 전황으로 끝맺고 있으나 백제와의 관계에서는 ‘奴客’관계의 부활 내지는 ‘朝貢’관계의 구축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永樂 17년(407)의 대왕의 백제 파병은 《三國史記》本紀에 대응하는 기사가 없기는 하나 後燕으로 파병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千, 1973). 그러나 廣開土王대의 後燕과의 관계는 《梁書》卷54 諸夷 高句驪傳에는 395년에 즉위한 後燕王의 寶로 廣開土왕은 ‘平州牧遼東帶方二國王’으로 책봉되어 ‘遼東郡’을 대체로 영유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晉書》卷124 載記 慕容盛에는 399년경에 廣開土王이 後燕에 사신을 보내고 방물을 조공했으나 《資治通鑑》卷111 晉紀에는 400년에 광개토왕이 후연에 대해 예를 ‘소홀히 하여’ 後燕王 慕容盛이 이끄는 3만 군대의 공격을 받았고 고구려는 402년, 404년 두 차례 후연에 반격하였고 405년, 406년에는 후연의 공격을 받아 공방하였다. 이러한 공방 끝에 408년에 대왕은 후연에 사신을 보냈는데, 후연에서는 慕容熙의 뒤를 이은 慕容雲은 그의 조부가 고구려의 支庶라는 혈연관계로 大王을 후연 왕실의 종족으로 정한 것이다. 또 《太平御覽》卷359 兵部 障泥條에 의하면 이 때 대왕은 남연에도 사신을 보내 千里馬나 가죽 障泥 등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대왕시대의 후연과의 관계는 한 번 고구려가 승리한 적은 있으나(402) 대왕의 은덕으로 연결된 고구려 중심의 국제질서 안에 후연과의 관계는 들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비문이 이 관계를 왜곡하여 고구려 우위의 전과로서 명기할 수는 없었고 ‘宗族’이 된 것이라면 더욱더 후연과의 일시적 전과를 명기할 수 없었고 만약 명기했다면 후연과의 외교마찰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이었다.

비문에 기록된 대왕의 대외전쟁으로 이루어진 고구려 중심의 국제관계 속에서 신

라 구원전을 중심으로 한 왜와 백제와의 교전도 《三國史記》의 세 本紀의 기록과도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

《三國史記》 本紀는 연월을 따른 편년법이나, 비문은 대왕의 전쟁에 의한 고구려 중심의 국제관계를 한정된 비석의 틀 안에서 편년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편년의 妙技가 크게 더해져 있다. 前置文을 설정하여 대외전쟁을 고구려 중심의 발생원인을 제시하고 친정의 경과와 전과, 그 후의 고구려 중심의 국제관계를 설정하는 순으로 아maid들을 친정이 있었던 영락 년간에 편년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비문과 《三國史記》 本紀가 동일한 역사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내용의 편년이 전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편년법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된다.

Ⅱ. ‘辛卯年’條의 이해

여기에서 이른바 ‘신묘년’조의 검토가 제기되는 것이다. “百濟新羅는 원래 속민으로 조공해 왔다”고 하는 고구려가 인식하는 삼국관계가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新羅本紀>에는 392년 봄에 신라의 내물왕은 조카 實聖을 고구려에 질로 보내고 또 실성이 401년에 귀국한 뒤 412년에는 왕자 卜好를 고구려에 질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왜병과 백제의 침입에 고통 받아 고구려의 ‘强盛’에 의지하는 신라의 외교나 앞서 말한 377년, 382년과 고구려의 협조를 얻어 前秦과 통교한 관계는 비문의 사관에서는 ‘新羅’는 원래 고구려의 속민으로 평가되는 것일까. 너무나도 고구려 중심적인 사관이다.

한편 ‘백제’도 고구려의 ‘속민’이고 조공해 왔다는 고구려의 인식의 근거는 지금까지의 문헌사료에서는 분명치 않다. 백제 왕실의 시조가 고구려의 시조와 동일 조상이라는 신화가 고구려측에도 이미 알려져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초기의 왕성이었던 한성지역의 분묘 등에서 고구려 문화의 요소가 보이기는 하나 “百濟가 속민으로 고구려에 조공하고 있었다.”는 것은 4세기 중엽 이후의 양국의 국제관계에서는 증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對한반도 남부세력에 대한 고구려 중심의 ‘회복해야할 관계사’로서 대왕시대의 對백제·신라 관계를 명기한 서두 부분에 쓰인 가공의 관계사상일 것이다.

그런데 비문에 기록된 고구려와 백제, 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는 《三國史記》의 각 본기의 기록과도 충분히 대응한다고 말했는데, 비문에서 보이는 왜와 백제의 관계, 왜와 신라와의 관계도 《三國史記》의 新羅本紀와 百濟本紀와도 대응된다. 즉 백

제왕이 396년에 대왕군에 격파당하자 ‘奴客’이 되었으면서도 바로 왜와 ‘和通’한 것은 <百濟本紀>에 보이는 397년에 태자 腆支를 왜에 質로 보낸 것에 대응한다. 한편 <新羅本紀>에 의하면 신라는 402년에 왕자 未斯欣을 왜에 質로 보내고 있다. 이 건은 승일연이 13세기에 펴낸 <三國遺事>(卷1 奈勿王·金堤上)나 <日本書紀>(卷9 氣長足姬尊[神功皇后]·仲哀天皇 9年 10月)와도 대응되는 기록이다. 신라는 왜에 질을 보내면서도 <新羅本紀>에 의하면 왜의 침공을 막을 수는 없었다. 403년에는 백제로부터의 침공을 받고 있다. <三國史記>는 왜가 신라의 시조인 赫居世 8년(BC. 50)에 신라 침공을 시도한 이래 뒤의 사료에 보이듯이 3~4세기에는 몇 번이나 침입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들 기사들은 사료비판이 필요하나 <百濟本紀>에는 왜의 침입이 보이지 않는다. 4세기의 왜의 신라 침입은 백제에서 보면 對高구려전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백제가 고구려의 ‘奴客’이면서도 바로 왜와 화통한 것도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新羅本紀> ②

奈解尼師今十三年(208) 夏四月. 倭人犯境, 遣伊伐浪利音, 將兵拒之.

助賁尼師今三年(232) 夏四月. 倭人猝至圍金城. 王親出戰. 賊潰走. 遣輕騎追擊之. 殺獲一千餘級.

同四年(233) 五月 “倭兵倭東邊” 秋七月. 伊浪于老與倭人戰沙道, 乘風縱火焚舟, 賊赴水死盡.

沾解尼師今三年(249) 夏四月. 倭人殺舒弗邯于老.

儒禮尼師今四年(287) 夏四月. 倭人襲一禮部, 縱火燒之, 虜人一千而去.

同六年(289) 夏五月. 聞倭兵至, 理舟楫繕甲兵.

同九年(292) 夏六月. 倭兵攻陷沙道城, 命一吉浪大谷領兵救, 完之.

同十一年(294) 夏. 倭兵來攻長峯城, 不克.

同十二年(295) 春. 王謂臣下曰, 倭人屢犯我城邑, 百姓不得安居, 吾欲與百濟謀, 一時浮海, 入擊其國, 如何. 舒弗邯弘權對曰, 吾人不習水戰, 冒險遠征, 恐有不測之危, 況百濟多詐, 常有吞噬我國之心, 亦恐難與同謀, 王曰, 善.

基臨尼師今三年(300) 春正月. 與倭國交聘.

訖解尼師今三年(312) 春三月. 倭國王遣使爲子求婚, 以阿浪急利女送之.

同三十五年(344) 春二月. 倭國遣使請婚, 辭以女既出嫁.

同三十六年(345) 春二月. 倭王移書絕交.

同三十七年(346) 倭兵猝至風島, 抄掠邊戶, 又進圍金城急攻, 王欲出兵相戰, 伊伐浪康世曰, 賊遠至, 其鋒不可當, 不若緩之, 待其師老, 王然之, 閉門不出, 賊食盡將退, 命康世率勁騎追擊, 走之.

奈勿尼師今九年(364) 夏四月. 倭兵大至, 王聞之, 恐不可敵, 造草偶人數千, 衣衣持兵, 列

立吐含山下，伏勇士一千於斧峴東原，倭人恃衆直進，伏發擊其不意，倭人大敗走，追擊殺之幾盡。

이렇게 비문에서는 백제와 왜가 연계하여 고구려와 신라에 대응하는 전략이 보이며 이것은 372년의 칠지도의 증여를 계기로 한 백제와 왜의 연계 이래의 전략이다. 비문에서 읽을 수 있는 高句麗, 百濟와 倭, 新羅의 상호 관계는 《三國史記》에 기록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의 4국의 상호관계와 기본적으로 모순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재고해야할 문제는 ‘辛卯年’條 후반에 “倭가 백제와 신라를 치고 신민으로 삼았다”는 기사이다. 지금까지의 사료 검토에서는 백제를 친 것도 백제를 신민으로 삼은 것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附論 제4·5절에서 서술하듯이, 왜의 樂浪·帶方郡과의 통교가 변한과 마한 제국이라는 조선반도 남부와의 통교 위에 가능했으며 이 긴 역사 위에 372년의 칠지도를 계기로 강화된 백제와 연계된 외교체제 하에서 고구려의 팽창에 대비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백제왕은 396년의 광개토왕의 친정으로 패하자 그 노객이 될 것을 서약하면서도 397년에는 바로 태자 腆支를 왜로 보내고 다시는 고구려의 통제 하에 들어가지 않았다. 고구려 중심의 국제관계를 명기하는 비문의 사관에서 보면 이 왜를 뒤로 둔 백제의 동향은 “百濟는 원래 屬民이 된 이래 朝貢하였다”라는 ‘本來의 관계’로서 회고적인 假想에 반하는 것이다. 그 비현실의 근원을 대왕의 즉위 전인 辛卯年(391)에 “倭가 渡海하여 와 백제를 치고 신민으로 삼았다”라는 것에 들고 있다. 왜가 372년에 칠지도를 계기로 백제에 협조하고 조선반도에 머물러 신라의 변경을 침공하는 동향을 고구려 입장에서 백제와의 ‘本來의 관계’를 파괴하는 왜의 행위로서 비문의 對백제관계 기사의 모두에 쓴 것이다. 372년 이래의 고구려와 백제와의 일진일퇴하는 전황 가운데 고구려는 왜병이 백제군과 함께 저항하는 모습을 거기서 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또 ‘辛卯年’條의 기사법을 이상과 같이 이해하면 이 조에서의 신라의 위치도 기본적으로는 백제와 비슷하다. 단 신라는 고구려중심사관으로 보면 “옛날부터 屬民으로 조공하였다”고 평가되는 관계사는 앞서 말했듯이 前秦과의 통교에서 고구려에 의존하고 있던 예나 391년과 401년에 왕족과 왕자를 고구려에 질로 보냈으며 <新羅本紀>에 보이듯이 3세기에도 몇 번이나 왜병의 침입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신라의 위치는 고구려중심사관에서는 광개토왕이 재구축해야 할 “新羅는 원래 속민으로 조공하였다”는 회고적인 관계와 그것을 바꾸어 놓은 현실적 근원이 “倭가 渡海하여 破하고 臣民으로 삼았다”는 데 있다고 든 것이다. 고구려 중심의 국제관계의 파괴자로서의 왜가 對신라관계의 서두에도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倭가 바다를 건너 백제와 신라를 치고 臣民으로 삼았다”라는 辛卯年條 記事를 그대로 왜와 2국과의 관계사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百濟와 왜와의 관계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72年の 七支刀의 증여를 일대 계기로 하여 양자의 유대는 깊어졌고 백제의 對高句麗전에 공동으로 참여했다고도 추측되고 倭의 신라 변경으로의 공격은 그 일환으로도 생각되나 왜가 ‘百濟를 쳤다’는 역사는 지금까지의 사료의 검토로는 확인할 수 없다.

또 한편으로 倭와 신라와의 관계에서는 <新羅本紀>에 4세기에도 왜병이 新羅의 변경으로 침공한 사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다. 왜의 세력이 4세기 후반에는 백제와의 공동 관계에서 조선반도 남부지역으로 신라를 공격했던 것은 충분히 추측되었다. ‘辛卯年’條는 高句麗中心史觀에 입각하여 高句麗와 백제 신라와의 관계를 ‘屬民으로서의 조공’관계였다고 회고적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파괴한 外敵으로서 왜가 百濟와 협력하며 신라의 변경을 침공하는 동향을 ‘渡海’하여 이 두 나라를 ‘破’하고 ‘臣民’으로 하였다고 비약한 가상의 사태를 대왕의 친정에 의한 백제전과 신라 구원전의 冒頭로 설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비문은 대왕이 조선반도 중남부에 전개한 백제와 왜와의 싸움, 그에 신라의 구원전쟁에 의해 형성된 고구려의 국제관계를 기록하고 있고 그 전과에 의해 확대된 신 영역으로부터도 왕도로 소집된 守墓人烟戶가 守墓에 봉사하는 활동에도 이러한 국제관계는 표현된다. 이러한 비문의 의의를 비춰보면 ‘百濟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의 표현은 고구려의 지금까지의 두 나라와의 관계를 자기중심적으로 비약한 해석 위에 회복해야 할 본래의 관계로서 이 기념할 만한 국가의 巨碑에 명기한 것이다. 이 ‘朝貢’의 근원을 말하는 사관은 후술하듯이 720년에 편찬 완성한 <日本書紀>가 神功皇后의 전과로서 高句麗, 新羅, 百濟가 나란히 조공하게 되었다는 역사관과도 통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런데 가야제국의 동향은 비문에 상세하지 않다. 大王은 신라로부터의 구원 요청을 받아 永樂 10년(400)에 步騎 5萬의 군대를 파견하여 新羅의 왕성을 왜적의 침공으로부터 구하는 가운데 派遣軍은 패주하는 倭賊을 추격하여 ‘任那加羅’의 거점으로 생각되는 ‘從拔城’으로 진군하였다. 그러자 從拔城은 바로 高句麗軍에 歸服했으나 ‘安羅人戍兵’이 저항전을 전개하고 있다. 그 저항전 가운데 ‘倭’字가 적어도 세 번 새겨져 있고 ‘倭’兵의 동향도 추측이 된다. 그러나 高句麗軍은 이들을 潰敗시킨 “듯하다”라는 것은 비문에는 ‘安羅人戍兵’이 세 번 확인되는데 두 번은 문맥상 주어의 위치에 있으므로 이 경우의 ‘安羅人戍兵’의 행동은 고구려군 입장에서 보면 저항의 움직임이다. 또 세 번째의 ‘安羅人戍兵’은 문맥의 연결 부분에 있고 그것의 다섯 자 앞에 ‘潰’자가

있으므로 이 ‘安羅人戍兵’은 高句麗軍이 타격을 입혀 潰敗시켰던 것이다.

여기서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은 왜와도 서로 대립하지 않는 행동을 했음을 읽을 수 있다. ‘安羅’도 사실은 고구려에서는 ‘任那加羅’처럼 ‘任那安羅’로 인식되어있었을 것이다. 《三國志》韓傳에 기록된 3세기 후반의 ‘弁韓十二國’ 가운데 ‘倭와 경계를 접한’ 瀆盧國이 있고 ‘狗邪國’은 碑文에서는 ‘任那加羅’로 비정되어 오늘날 慶尙南道 金海로 되어있다. 또 ‘安邪國’도 비문에서는 任那‘安羅’이며 오늘날 慶南의 咸安으로 비정되고 있다.

고구려군이 400년에 낙동강 하류 오른편의 김해와 서쪽의 咸安까지 왜를 쫓고 이 任那의 두 세력의 저항전을 치르고 있음으로 판단하면 倭軍의 新羅王城 包圍作戰은 任那의 두 세력이 공동보조가 없으면 될 수 없는 진군행동인 것이다.

앞의 <新羅本紀> ①②에서는 3세기에서 5세기 중반까지 왜병이 신라의 변경이나 왕성을 공격한 기사가 여럿 보이나 왜병이 고구려나 백제를 공격한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또 <新羅本紀>에는 倭人의 신라 공격에 앞서 1세기 후반부터 2세기 전반까지 가야가 신라를 공격하는 기사가 자주 보이나 212년에는 가야가 신라에 왕자를 質로 보냄으로써 양자의 관계는 안정된다.

이 가야의 신라 습격과 수습의 뒤를 잇듯이 나타난 3세기 이후의 왜에 의한 신라 공격은 사료인 <新羅本紀>에 대한 사료 비판이 필요하나 4세기 후반의 왜와 신라와의 관계 기록은 비문과도 크게 모순 되지 않는다. 왜가 경상도 남부의 세력과 크게 대립하지 않고 신라를 공격하는 관계에는 1세기 이래 계속되는 왜인의 낙랑군과의 통교와 대방군이 3세기 전반에 개설됨으로써 더욱 추진된 이 두 군과 이를 매개로 한 낙랑으로의 통교와 중국왕조에 대한 조공의 역사로 축적된 왜와 조선반도 남부와 서부의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류가 있었다. 양자 모두 2郡과 낙양으로부터 威信財를 얻어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굳히고 문물의 우위성을 발휘함으로써 수장 간의 지역 통합이 유리하게 진행되고 왕권화로 상승할 수 있었다.

이 통교에는 왜의 使者가 加耶地域이나 馬韓 그리고 백제 연해의 경유가 불가피하여 이 지역의 ‘臣智’(首長) 혹은 小國王은 변경이나 遠方의 수장을 嚮導 또는 공조함으로써(여기서는 왜왕이나 그의 사신을 두 군이나 낙양으로 향도) 중국왕조나 왜국에 대해 자신의 위치를 우위에 두려한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책봉체제에서는 왕조에서 멀리 위치한 세력은 중국에 인접한 나라보다 우위에 놓여있다. 중국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안쪽의 피책봉국은 근린세력을 중국으로 향도하였다. ‘重譯’의 제공이 그 좋은 예이며 또 중국의 문물을 먼 나라로 전하는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왜는 1세기 이래 변한의 해변 諸國(狗邪國, 安邪國)이나 마한 그리고 백제로부터 중국 통교의

편의를 제공받았던 것이다. 그것이 372년의 七支刀의 증여를 큰 계기로 하여 왜가 백제와의 관계에서 고구려의 위협을 의식하고 백제를 응원하여 신라를 침공하고 또 조선반도 남부에서 서부로의 통교 확보를 위한 입장에서 이 방면으로 군사적인 관심이 고조되어 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碑文을 통해 왜와 고대의 고구려와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의 5자 관계를 검토하고 그것이 《三國史記》의 기록과도 충분히 대응함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친 5者關係가 《日本書紀》의 기록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

맺음말에 대신하여 －《日本書紀》 조선관계기사의 기본성격－

뒤에 인용한 《日本書紀》는 4세기 중엽에서 5세기까지의 日韓關係史記事이나 이것을 七支刀와 廣開土王碑나 중국사료와 《三國史記》에 의해 구성된 지금까지의 日韓關係史像과 대조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와 가치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日本書紀》에서는 百濟와의 관계사가 주체가 되어 있으나 이것을 《三國史記》<百濟本紀>의 기록과 대조하면 《日本書紀》는 압도적으로 기록이 풍부하며 인물 중심의 이야기적 서술임을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日本書紀》의 편년시점인 ‘현재’를 사는 氏族의 ‘祖’가 국가의 과거에 끼친 공적을 명시하고 있듯이 씨족의 시조의 활약을 말하는 전승기록이 편찬에 활용되었음을 암시한다.

또 <百濟記>를 참고하고 있듯이 백제관계 기사는 이 <百濟記>를 注記하지 않는 기사라도 편찬에 참고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397년의 ‘王子直支’의 일본에의 入質과 405년의 直支의 귀국기사는 <百濟本紀>에서 본 腆支의 入質과 귀국과 그 후의 즉위기사와 모순되지 않는다. 모순되지 않는 점은 405년의 阿華王의 薨去記事도 그러하며 그 외에도 392년의 辰斯王의 죽음과 阿華王의 즉위, 또 375년의 近肖古王의 사거와 다음해인 376년의 貴須王의 즉위는 <百濟本紀>에서는 375년 11월에 근초고왕이 薨去하고 近仇首王이 즉위한 기록과는 稱元法의 차이로 인한 1년의 차는 있으나 서로 대응한다.

<百濟本紀>에 의하면 近肖古王 30년(375)조에 “古記云, 百濟開國已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博士高興, 始有書記, 然高興未嘗顯於他書, 不知其何許人也”로 되어있는데,

372년의 七支刀를 倣製하여 그 유래의 글을 象嵌하고 있었고, 그 때부터 백제는 확실히 기록서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거기서 高興은 출자가 불명이나 이 때 百濟는 高句麗의 故國原王軍과 일진일퇴의 전황이었고 이러한 가운데 高興은 ‘高’라는 성씨로 보아 고구려의 왕족에 가까운 지식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단 앞서 제시한 《日本書紀》의 기록은 <百濟記>를 참고 사료로 한 것으로 <百濟本紀>의 百濟王系譜에 대응한다고는 하나 《日本書紀》에 풍부하게 기록된 인물의 행장을 중심으로 한 백제와 왜국과의 관계사를 그대로 사실로 믿는 데는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日本書紀》 기록이 씨족의 시조의 행장을 ‘이야기’화 하고 또 후세의 백제 관계도 《日本書紀》 편찬 시의 ‘今’, 즉 8세기 초에 이르기까지의 律令國家 성립과정에서 氏族이 국가에 대한 기여를 과시하며 ‘이야기’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야기’화가 완전한 가공의 이야기는 아니며 ‘歷史’의 기억을 ‘이야기’화한 것이다. 그 ‘이야기’화 가운데는 ‘ 좋지 않은 역사’는 씨족의 역사로서는 망각되어지기 쉽다. 廣開土王과의 싸움이 《日本書紀》에는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나,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의 고구려와의 싸움의 기록은 《宋書》 卷97 倭國傳에 기록된 478년의 왜 5왕 가운데 武王의 上表文 중에 “句驪無道, 圖欲見吞”이라 말하며 宋의 順帝에게 高句麗를 비난한 것에서도 보이듯이 국가 차원에서는 망각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 《日本書紀》

☆ 《日本書紀》卷9 氣長足姬尊(神功皇后)紀

同四十六年(366) “春三月乙亥朔，遣斯摩宿禰于卓淳國。[斯摩宿禰者，不知何姓人也]於是，卓淳王末錦早岐，告斯摩宿禰曰，甲子年(364)七月中，百濟人久氏，彌州流，莫古三人，到於我土曰，百濟王，聞東方有日本貴國，而遣臣等，令朝其貴國。故求道路，以至於斯土。若能教臣等，令通道路，則我王必深德君王。時謂久氏等曰，本聞有貴國。然未曾有通，不知其道。唯海遠浪嶮。則乘大船，僅可得通。若雖有路津，何以得達耶。於是，久氏等曰，然即當今不得通也。不若，更還之備船舶，而後通矣。仍曰，若有貴國使人來，必應告吾國。如此乃還。爰斯摩宿禰即以僊人爾波移與卓淳人過古二人，遣于百濟國，慰勞其王。時百濟肖古王，深之歡喜，而厚遇焉。仍以五色綵絹各一匹，及角弓箭，并鐵鋌四十枚，幣爾波移。便復開寶藏，以示諸珍異曰，吾國多有是珍寶。欲貢貴國，不知道路。有志無從。然猶今付使者，尋貢獻耳。於是，爾波移奉事而還，告志摩宿禰。便自卓淳還之也。”

同四十七年(367) “夏四月，百濟王使久氏，彌州流，莫古，令朝貢。時新羅國調使，與久氏共詣，於是，皇太后，太子譽田別尊，大歡喜之曰，先王所望國人，今來朝之。痛哉，不逮于天皇矣。群臣皆莫不流涕。仍檢校二國之貢物。於是，新羅貢物者，珍異甚多。百濟貢物者，少賤不良。便問久氏等曰，百濟貢物，不及新羅，奈之何。對曰，臣等失道，至沙比新羅。則新羅人捕臣等禁囹圄。經三月而欲殺。時久氏等，向天而呪詛之。新羅人怖其呪詛而不殺。則奪我貢物，因以，爲己國之貢物。以新羅賤物，相易爲臣國之貢物。謂臣等曰，若誤此辭者，及于還日，當殺汝等。故久氏等恐怖而從耳。是以，僅得達于天朝。時皇太后，譽田別尊，責新羅使者，因以，祈祈天神曰，當遣誰人於百濟，將檢事之虛實。當遣誰人於新羅，將推問其罪。便天神誨之曰，令武內宿禰行議。因以千熊長彥爲使者，當如所願。[千熊長彥者，分明不知其姓人。一云，武藏國人。今是額田部槻本首等之始祖也。百濟記云職麻那々加比跪者，蓋是歟也]於是，遣千熊長彥于新羅，責以濫百濟之獻物。”

同四十九年(369) “春三月，以荒田別，鹿我別爲將軍。則與久氏等，共勒兵而度之，至卓淳國，將襲新羅。時或曰，兵衆少之，不可破新羅。更復，奉上沙白，蓋盧，請增軍士。即命木羅斤資，沙々奴跪[是二人，不知其姓人也。但木羅斤資者，百濟將也。]領精兵，與沙白，蓋盧共遣之。俱集于卓淳，擊新羅而破之。因以，平定比自怵，南加羅，喙，安羅，多羅，卓淳，加羅七國。仍移兵，西廻至古爰津，屠南蠻枕彌多禮，以賜百濟。於是，其王肖及王子貴須，亦領軍來會。時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自然降服。是以，百濟王父子及荒田別，木羅斤資等，共會意流村[今云州流須祇]。相見欣感。厚禮送遣之。唯千熊長彥與百濟王，至于百濟國，登辟支山盟之。復登古沙山，共居磐石上。時百濟王盟之曰，若敷草爲坐，恐見火燒。且取木爲坐，恐爲水流。故居磐石而盟者，示長遠之不朽者也。是以，自今以後，千秋萬歲，無絕無窮。常稱西蕃，春秋朝貢。則將千熊長彥，至都下厚加禮遇。亦副久氏等而送之。”

同五十年(370) “春二月，荒田別等還之。夏五月，千熊長彥，久氏等，至自百濟。於是，皇太后歡之問久氏曰，海西諸韓，既賜汝國。今何事以頻復來也。久氏等奏曰，天朝鴻澤，遠及弊邑。吾王歡喜踊躍，不任于心。故因還使，以致至誠。雖逮萬世，何年非朝。皇太后勅云，善哉汝言。是朕懷也。增賜多沙城，爲往還路驛。”

同五十一年(371)“春三月，百濟王亦遣久氐朝貢。於是，皇太后語太子及武內宿禰曰，朕所交親百濟國者，是天所致。非由人故。玩好珍物，先所未有。不闕歲時，常來貢獻。朕省此款，每用喜焉。如朕存時，敦加恩惠。卽年，以千熊長彥，副久氐等遣百濟國。因以，垂大恩曰，朕從神所驗，始開道路。平定海西，以賜百濟。今復厚結好，永寵賞之。是時，百濟王父子，並賴致地，啓曰，貴國鴻恩，重於天地。何日何時，敢有忘哉。聖王在上，明如日月。今臣在下，固如山岳。永爲西蕃，終無貳心。”

同五十二年(372)“秋九月丁卯朔丙子，久氐等從千熊長彥詣之。則獻七枝刀一口，七子鏡一面，及種々重寶。仍啓曰，臣國以西有水。源出自谷那鐵山。其遶七日行之不及。當飲是水，便取是山鐵，以永奉聖朝。乃謂孫枕流王曰，今我所通，海東貴國，是天所啓。是以，垂恩，割海西而賜我。由是，國基永固。汝當善脩和好，聚斂土物，奉貢不絕，雖死何恨。自是後，每年相續朝貢焉。”

同五十五年(375)“百濟肖古王薨。”

同五十六年(376)“百濟王子貴須立爲王。”

同六十二年(382)“新羅不朝。卽年，遣襲津彥擊新羅[百濟記云，壬午年(382)，新羅不奉貴國，々々遣沙至令討之。新羅人莊飾美女二人，迎誘於津。沙至比跪，受其美女，反伐加羅國。々々々王已本旱岐，及兒百久至，阿首至，國沙利，伊羅麻酒，爾汶江至等，將其人民，來奔百濟。百濟厚遇之。加羅國王妹既殿至，向大倭敬云，天皇遣沙至比跪，以討新羅。而納新羅美女，捨而不討。反滅我國。兄弟人民，皆爲流沈。不任憂思。故，以來啓。天皇大怒，卽遣木羅斤資，領兵衆來集加羅，復其社稷。一云，沙至比跪，知天皇怒，不敢公還。乃自竄伏。其妹有幸於皇宮者。比跪密遣使人，問天皇怒解不。妹乃託夢言，今夜夢見沙至比跪。天皇大怒云，比跪何敢來。妹以皇言報之。比跪知不免，入石穴而死也。]”

同六十四年(384)“百濟國貴須王薨。王子枕流王立爲王。”

同六十五年(385)“百濟枕流王薨。王子阿華年少。叔父辰斯奪立爲王。”

☆ 《日本書紀》卷10 譽田天皇(應神天皇)紀

同三年(392)“是歲，百濟辰斯王立之失禮於貴國天皇。故遣紀角宿禰，羽田矢代宿禰，石川宿禰，木菟宿禰，噴讓其无禮狀。由是，百濟國殺辰斯王以謝之。紀角宿禰等，便立阿華爲王而歸”

同七年(396)“秋九月，高麗人，百濟人，任那人，新羅人，並來朝。時命武內宿禰，領諸韓人等作池。因以，名池號韓人池。”

同八年(397)“百濟人來朝[百濟記云，阿華王立无禮於貴國。故奪我枕彌多禮，及峴南，支侵，谷那，東韓之地。是以，遣王子直支于天朝，以脩先王之好也]”

同十四年(403)“春二月，百濟王貢縫衣工女。曰眞毛津。是今來目衣縫之始祖也。是歲，弓月君自百濟來歸，因以奏之曰，臣領己國之人夫百廿縣而歸化。然因新羅人之拒，皆留加羅國。爰遣葛城襲津彥，而召弓月之人夫於加羅。然經三年，而襲津彥不來焉。”

同十五年(404)“秋八月壬戌朔丁卯，百濟王遣阿直伎，貢良馬二匹。卽養於輕坂上廐。因以阿直岐令掌飼。故號其養馬之處，曰廐坂也。阿直岐亦能讀經典。卽太子菟道稚郎子師焉。於是，天皇問阿直岐曰，如勝汝博士亦有耶。對曰，有王仁者。是秀也。時遣上毛野君祖，荒田別，巫別於百濟，仍徵王仁也。其阿直岐者，阿直岐史之始祖也。”

同十六年(405) “春二月, 王仁來之. 則太子菟道稚郎子師之. 習諸典籍於王仁. 莫不通達. 所謂王仁者, 是書首等之始祖也. 是歲, 百濟阿莘王薨. 天皇召直支王謂之曰, 汝返於國以嗣位. 仍且賜東韓之地而遣之. [東韓者, 甘羅城, 高難城, 爾林城是也.] 八月, 遣平群木菟宿禰, 的戶田宿禰於加羅. 仍授精兵詔之曰, 襲津彥久之不還. 必由新羅之拒而滯之. 汝等急往之擊新羅, 披其道路. 於是, 木菟宿禰等進精兵, 莅于新羅之境. 新羅王愕之服其罪. 乃率弓月之人夫, 與襲津彥共來焉.”

同二十年(409) “倭漢直祖阿知使主, 其子都加使主, 並率己之黨類十七縣, 而來歸焉”

同二十五年(414) “百濟直支王薨. 卽子久爾辛立爲王. 王年幼. 木滿致執國政. 與王母相淫, 多行無禮. 天皇聞而召之. [百濟記云, 木滿致者, 是木羅斤資, 討新羅時, 娶其國婦, 而所生也. 以其父功, 專於任那. 來入我國, 往還貴國. 承制天朝, 執我國政. 權重當世. 然天朝聞其暴召之.]”

同二十八年(417) “秋九月, 高麗王遣使朝貢. 因以上表. 其表曰, 高麗王教日本國也. 時太子菟道稚郎子讀其表, 怒之責高麗之使, 以表狀無禮, 則破其表.”

同三十一年(420) “秋八月 (中略) 於是, 得五百籠鹽. 則施之周賜諸國. 因令造船. 是以, 諸國一時貢上五百船. 悉集於武庫水門. 當是時, 新羅調使, 共宿武庫. 爰於新羅停忽失火. 卽引之及于聚船. 而多船見焚. 由是, 責新羅人. 新羅王聞之, 讐然大驚, 乃貢能匠者. 是猪名部等之始祖也. (後略)”

同三十七年(426) “春二月戊午朔, 遣阿知使主・都加使主於吳, 令求縫工女. 爰阿知使主等, 渡高麗國, 欲達于吳. 則至高麗, 更不知道路. 乞知道者於高麗. 高麗王乃副久禮波, 久禮志, 二人, 爲導者. 由是, 得通吳. 吳王, 於是, 與工女兄媛, 弟媛, 吳織, 穴織, 四婦女.”

同三十九年(428) “春二月, 百濟直支王, 遣其妹新齊都媛以令仕. 爰新齊都媛, 率七婦女, 而來歸焉.”

[主要參考文獻]

《日本書紀》 上 (日本古典文學大系67, 1967年, 岩波書店)

《日本書紀》 ①②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1, 2, 1994年, 小學館)

津田左右吉, 1966 《古事記及び日本書紀の新研究》 (《津田左右吉全集》 別卷第一, 岩波書店)

池內宏, 1947 《日本上代史の一研究》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初版, 吉川弘文館)

佐伯有清, 1978 <古代の日本と朝鮮の政治關係> 《歷史公論》 第4卷 第9號

田中俊明, 1982 <“三國史記”にみえる‘倭’關係記事について> 《歷史公論》 第8卷 第4號

平野邦雄, 1985 《大化前代政治過程の研究》(<第一編 四, 五世紀のヤマト王權> 吉川弘文館)

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上・下卷 (2002年, 天山舎.[‘上卷’만은 1972년에 吉川弘文館에서 刊行])

木下禮仁, 1993 《日本書紀と古代朝鮮》(塙書房)

笠井倭人, 2000 《古代の日朝關係と日本書紀》(吉川弘文館)

附 論

제1장 古代日韓關係史의 탄생

－朝鮮半島의 민족사회와 中國의 郡縣 설치－

머리말

고구려 광개토왕비는 414년에 대왕의 재위 중의 훈적비로 명기되어 건립되었고 거기에 기록된 백제의 대패배(永樂 6년 · 396년)와 이 백제가 왜와 ‘화통’한 후 왜에 의한 신라 왕성의 포위전(永樂 9년 · 309년)과 대왕군의 掃討戰(永樂 10년 · 400), 그리고 高句麗軍에 대항한 백제와 왜의 공동전선(永樂 17년 · 407년)은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의 朝鮮半島 中南部 전역에 걸친 일대 전쟁이나 이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는 데는 비문의 검토만으로 불충분하다. 비문은 극동아시아의 일대 전쟁시대를 고구려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 이 비문으로 古代日韓關係史를 고찰하는 데는 고구려의 국가적 성장과 남으로의 팽창과 신라의 동요 나아가 백제의 국가적 성장과 고구려에 대한 저항 그리고 왜와 가야의 참전에 이르는 동아시아 제민족의 국가형성과 이 과정의 사회변용의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시대에 선행하는 구석기 · 신석기시대 이래의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는 서로 인적 교류가 있고 석기나 토기의 제작 기법의 전파 또 야요이시대에는 도작법이나 청동기 철기의 원료와 제작기법과 작품의 전파 등의 교류가 있었다. 다만 본론에서는 古代日韓關係史의 탄생을 문헌을 통해 폭넓고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힘써 두 나라의 고대국가 형성과정 이래의 상호관계의 역사상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역사인식 형성에 정당한 위치를 얻을 수 있는 다각적 이해를 시도해 보겠다.

[主要參考文獻]

佐原 眞, 1975 <農業の開始と階級社會の形成> 《岩波講座日本歴史》 1

後藤 直, 2004 <考古學からみた彌生時代日本列島と朝鮮半島の交流> 《歴史と地理》 第575號; 《日本史の研究》 205 (山川出版)

I. 古朝鮮(衛氏朝鮮)의 사회 — 漢의 郡縣 통치의 前提 —

BC. 108년과 다음해 BC. 107년에 朝鮮半島 北部 지역에 설치된 前漢의 郡縣 이른바 한사군은 성쇠를 거쳐 낙랑군은 313년에 고구려의 공격을 받았고 또 3세기 초에 公孫氏에 의해 설치된 帶方郡이 314년에 中國東 北部로 물러나기에 이르나 400여년의 군현의 역사는 실로 고대일한관계가 역사로서 진행한 과정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朝鮮半島가 단지 반도라는 말로 설명되듯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일원적이며 단층적인 사회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적어도 司馬遷의 《史記》 卷115, 朝鮮傳에 보이듯이 古朝鮮 사회에는 중국 동북부의 연나라를 비롯한 세력에 밀려온 사람들이 유입되어 있고 거기서 이원적인 사회와 문화가 생겨난 것이다. 즉 《史記》 朝鮮列傳에서 古朝鮮에는 토착민 외에 中國 東北部로부터의 이주자들이 하나의 사회층을 이루고 그 주위에 ‘眞番’, ‘朝鮮’의 정치사회가 존재했음이 확인된다.

이 조선반도의 西北部에 다양한 政治社會가 존재했음은 《史記》 이후의 역사서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魏略》(魏 魚豢撰, 3세기 말 성립)의 逸文을 편수한 張鵬一의 《魏略輯本》(1924年) 卷21 朝鮮條에도 ‘中國亡命’ 집단이 ‘朝鮮’ 안에 일정한 세력을 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3세기 말 陳壽가 펴낸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東沃沮條에도 “漢初, 燕亡人衛滿王朝鮮, 時沃沮皆屬焉”라고 쓰여 있고 또 ‘箕子朝鮮’과 ‘衛滿朝鮮’에는 ‘燕齊趙의 民’이 유입한 사회가 있어 이 조선을 沃沮, 濊, 高句麗, 辰韓이 둘러싼 다양한 정치세계가 있었다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史料 I] 《史記》 卷115 朝鮮列傳

朝鮮王滿者, 故燕人也, 自始全燕時, 嘗略屬眞番, 朝鮮, 爲置吏, 築鄣塞. 秦滅燕, 屬遼東外徼. 漢興, 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沮水爲界, 屬燕. 燕王盧綰反入匈奴, 滿亡命, 聚

黨千餘人，魍結蠻夷服而東走出塞，度涓水，居秦故空地上下鄣，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都王險。

[史料 Ⅱ] 《魏略輯本》(1924年) 卷21 朝鮮條

燕人衛滿亡命，爲胡服東渡涓水，詣準降，說準求居西界。故中國亡命，爲朝鮮藩屏。準信寵之，拜以博士賜以圭，封之百里，令守西邊。滿誘亡黨，衆稍多。乃詐遣人告準言漢兵十道至，求入宿衛。遂還攻準，準與戰不敵也。

[史料 Ⅲ]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濊條

濊南與辰韓，北與高句麗，沃沮接，東窮大海。今朝鮮之東皆其地也，戶二萬。昔箕子既適朝鮮，作八條之教以教之。無門戶之閉而民不爲盜。其後四十餘世，朝鮮侯準僭稱王。陳勝等起，天下叛秦。燕齊趙民避地朝鮮數萬口。燕人衛滿，魍結夷服，復來王之。漢武帝伐滅朝鮮，分其地爲四郡。自是之後，胡漢稍別。

[主要參考文獻]

三上次男, 1966 <古代の西北朝鮮と衛氏朝鮮國の政治・社會的性格>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吉川弘文館)

李丙燾, 1976 <衛氏朝鮮興亡考> 《韓國古代史研究》(博英社); 日譯은 《韓國古代史研究-古代史上의 諸問題-》(學生社, 1980年 12月)

Ⅱ. 樂浪郡과 玄菟郡—半島의 다양성과 列島社會—

전한의 武帝는 朝鮮(衛氏朝鮮)의 衛右渠가 外臣의 책무에 반해 朝鮮의 남쪽에 있는 眞蕃이 漢王朝로 조공하려 가는 길을 막은 것에 노하여 元封 3年(BC. 108)에 육해의 군을 파견하여 朝鮮을 멸하고 고도(王儉城) 즉 오늘날의 평양시 낙랑군 구역에 조선현을 설치하고 모두 15현을 통괄하는 樂浪郡의 治所를 여기에 두었던 것이다. 비슷하게 조선에 속해있던 지방에도 眞蕃郡, 臨屯郡, 玄菟郡의 3군을 설치하여 朝鮮半島의 북부 전체와 남부에 이르는 조선의 영역은 한의 군현통치에 새롭게 편입된 것이다.

4郡 가운데 臨屯郡과 眞蕃郡治의 소재는 《資治通鑑》 卷21 漢紀13 世宗下之上條에 인용된 《茂陵書》에 “臨屯郡, 治東曉縣, 去長安六千一百三十八里, 領十五縣. 玄菟郡, 本高句驪也, 既平朝鮮, 併開爲郡, 治沃沮城, 後爲夷貊所侵, 徙郡句驪西北. 眞番郡, 治雪縣, 去長安七千六百四十里, 領十五縣. 餘據後廢臨屯眞蕃二郡”으로 2郡의 治所는 長安에서 6~7千餘里, 약3,000 km 내외의 땅이었으나 정확한 소재지는 분명치 않다.

그런데 眞蕃의 이름은 《史記》 卷69 貨殖列傳에 “夫燕…中略…北隣烏桓夫餘. 東綰穢貉朝鮮眞番之利”라 하고 또 同卷 115 朝鮮列傳에도 ‘朝鮮王滿’의 武威 앞에 眞蕃과 臨屯이 복속했다고 하는 (“以故滿得兵威財物, 侵降其旁小邑, 眞番臨屯皆來服屬”) 기록에서도 眞蕃·臨屯의 2군은 서로 낙랑군과 접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眞蕃郡의 治所의 雪縣에 대해서는 今日, 그 후보지가 고고학상의 지견으로 는 밝혀지지 않는 것에서도, 치소를 전라도를 포함한 반도 남부로 추정하는 南在說 외에, 경기도에 이를 추정하는 北在說이 있다.

4군 가운데 장안에서 가장 먼 곳에 郡治를 둔 眞蕃郡은 《漢書》 卷7 昭帝紀에 “始元五年(BC. 82)夏, 罷儋耳眞蕃郡”이라 되어 있고 《後漢書》 卷85 東夷傳(濊)에도 “至昭帝始元五年, 罷臨屯眞番, 以并樂浪玄菟”라고도 되어 있어, BC. 82년에는 臨屯, 眞蕃의 2郡은 폐지되고 속현은 인접한 樂浪, 玄菟의 두 군으로 편입된 것이다.

이렇게 朝鮮半島 中·北部는 眞蕃·臨屯 2郡의 縣을 편입한 소위 ‘大樂浪郡’과 玄菟郡의 치하에서 조선 땅까지 미치는 현과 남부에는 군현지배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 존재했고 후술하듯이 폐지된 2군의 모든 현이 樂浪郡에 편입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玄菟郡은 《漢書》 卷7 昭帝紀에 “元鳳六年(BC. 75)春正月, 募郡國徒, 築遼東玄菟城”으로 쓰여 있고 앞서 말한 2郡의 改廢와 같은 한의 동방정책과 연동하여 그 郡治가 遼東으로 이동하였다. 이른바 ‘第2玄菟郡’은 漢의 東方政策의 후퇴이고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東沃沮條에 “(前略)以沃沮城爲玄菟郡. 後爲夷貊所侵, 徙郡句麗西北, 今所謂玄菟故府是也”라 있는 것처럼 ‘夷貊’ 즉, 高句麗族의 抵抗을 받은 것이고 舊玄菟郡 동쪽의 屬縣은 樂浪郡으로 편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조선반도 동북부에 이르는 第2玄菟郡의 규모에 대해서는 《漢書》 卷28 地理志 第8下에 “玄菟郡. 武帝元封四年(BC. 107)開. 高句驪, 莽曰下句驪, 屬幽州[應劭曰, 故眞番朝鮮胡國]. 戶四萬五千六, 口二十二萬一千八百四十五. 縣三. 高句驪[前略… 應劭曰, 故句驪胡], 上殷台, 西蓋馬”로 속현은 적다. 또 大樂浪郡에 대해서도 “樂浪郡. [武帝元封三年開. 莽曰樂鮮, 屬幽州. 應劭曰, 故朝鮮國也… 後略] 戶六萬二千八百一十二, 口四十萬六千七百四十八. 縣二十五, 朝鮮[應劭曰, 武王封箕子於朝鮮], 誾邯, 溟水, 含資, 黏蟬, 遂成, 增地, 帶方, 駟望, 海冥, 列口, 長岑, 屯有, 昭明[南部都尉治], 鏐方, 提奚, 渾彌, 吞列, 東曉[應劭曰, 移], 不而[東部都尉治], 蠶台, 華麗, 邪頭味, 前莫, 天租”라 하여 屬縣과 戶口數를 기록한다. 또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東沃沮에는 “沃沮還屬樂浪. 漢以土地廣遠, 在單單大嶺之東, 分治東部都尉. 治不耐城. 別主嶺東七縣. 時沃沮亦皆爲縣”이라 하여 두 개의 都尉로 통괄되는 計 12縣이 樂浪郡에 편입되었다고 보이므로 樂浪郡의 속현은 13縣에서 25縣으로 확대된 것이 된다. 南部都尉를 둔 昭明縣이

舊眞蕃郡의 땅을, 또 東部都尉를 둔 不而縣이 舊臨屯郡의 땅을 통제한 것이다.

東部都尉가 주관한 7縣이란 東曉縣에서 天租까지의 현이다. 폐지된 臨屯郡治였던 東曉縣에 都尉를 파견하지 않고 臨屯郡下의 不而縣을 大樂浪郡의 東部支配의 거점으로 중시한 것은 역시 이에 접속하는 동북으로부터의 고구려족의 압박에 대비한 것이었을 것이다.

大樂浪郡에는 폐지된 臨屯, 眞番 下의 현이 편입되어 있었는데 樂浪郡에 편입된 舊眞番郡의 땅은 적게 보아도 南部都尉가 파견된 前記의 昭明縣에서 吞列까지의 다섯 현일 것이고 舊郡治가 놓여진 雪縣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은 개명을 했거나 이 현이 樂浪郡에서 먼 곳에 있어 편입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여기서 郡縣의 사회적 규모를 보면 大樂浪郡에서는 1戶당 6.5口이고 1縣당 戶數는 2,512戶와 16,270口이다. 이에 대해 第2玄菟郡은 縣은 불과 세 현이고 1戶當 4.9口이며 1縣당 호구수는 15,002戶와 73,948口가 된다. 統計數字에 틀림이 없다면 이 두 현의 社會構成의 차는 현저하다. 특히 縣의 人戶의 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 樂浪郡은 25縣을 통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人戶의 파악이 玄菟郡의 그것보다도 훨씬 침투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人戶의 파악의 차이는 그 사회구성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大樂浪郡과 第2玄菟郡은 後漢代에는 명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後漢書》 卷23 郡國志5 第23 幽州條에는 이른바 第3玄菟郡에 대해 “玄菟郡[武帝置, 雒陽東北四千里]. 六城. 戶一千五百九十四, 口四萬三千一百六十三. 高句驪, 遼山遼水出[山海經, 遼水出白平東. 郭璞曰, 出塞外御白平山. 遼山小遼水所出]. 西蓋馬. 上殷台. 高顯, 故屬遼東. 候城, 故屬遼東. 遼陽, 故屬遼東[東觀書. 安帝卽位之年(106年), 分三縣來屬]”이라 한다. 또 大樂浪郡에 대해서는 “樂浪郡[武帝置, 雒陽東北五千里]十八城. 戶六萬一千四百九十二. 口二十五萬七千五十. 朝鮮, 謂邯, 溟水, 含資, 占蟬, 遂成, 增地, 帶方, 駟望, 海冥, 列口, 長岑, 屯有, 昭明, 鏤方, 提奚, 渾彌, 樂都”라고 쓰여 있다.

이것에 의하면 第2玄菟郡은 AD. 106년에 遼東郡의 북쪽 ‘二百里’로 西遷했으나 이 第3玄菟郡에는 遼東郡의 세 현이 편입되어 있다. 이 가운데 《漢書》 卷28 地理志第8 下에 의하면 候城은 遼東郡의 中部都尉가 파견된 요충의 현이었다. 또 大樂浪郡은 앞의 25縣에서 東曉, 不而, 蠶台, 華麗, 邪頭味, 前莫, 天租의 7縣이 이탈하여 18縣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7縣은 처음에 臨屯郡에 편입되어 있었다고 추정되었다.

이렇게 玄菟郡의 두 번째의 西遷과 大樂浪郡 가운데 東北部 7縣의 郡으로부터의 이탈의 정치적 배경은 역시 朝鮮半島의 동북부에서 성장하는 高句麗族의 팽창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2세기 초의 大樂浪郡에서는 1戶當 約 4.2口, 1縣當 戶數는 3,416戶, 口數는 14,280口이다. 또 第3玄菟郡의 그것은 1戶당 27口, 1縣당 約 266戶와 7,194口이다. 大樂浪郡과 第3玄菟郡과의 社會構造의 수치에는 後者의 戶數에 탈자 등의 있었을 것으로 의심될 정도로 그 수가 적다. 第2玄菟郡보다 세 현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人戶數가 적다. 이 수치가 정확하다면 第3玄菟郡은 高句驪縣을 통해 高句驪族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거나 혹은 高句麗縣이 명목적인 존재였음을 암시한다.

[主要參考文獻]

- 池內 宏, 1951 <前漢昭帝의 四郡廢合と後漢書의 記事> <樂浪郡考> <遼東의 玄菟郡と其의 屬縣> <眞番郡의 位置について> <漢魏晉의 玄菟郡と高句麗> <公孫氏의 帶方郡設置と曹魏의 樂浪・帶方二郡> <曹魏의 東方經略> <晉代의 遼東> (同 《滿鮮史研究》 上世・第1冊, 吉川弘文館, 1951年 9月, 初版. 1979年 5月, 第2版)
- 栗原朋信, 1970 <漢帝國と周邊諸民族> 《東アジア世界の形成》I (岩波講座 世界歴史4)
- 大阪府立彌生文化博物館, 1993 《平成五年秋季特別展: 彌生人の見た樂浪文化》
- 田中俊明, 1994 <高句麗의 興起と玄菟郡> 《朝鮮文化研究》第1號, 東京大學文學部朝鮮文化研究室)
- 李 成市, 1998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第一章 東アジアの諸國と人口移動>, 岩波書店)

Ⅲ. 郡縣의 사회동향

樂浪郡治址(平壤市 樂浪區域 土城里)에서 발굴된 封泥에는 ‘樂浪大守章’ ‘樂浪大尹章’이나 ‘樂浪守丞’ ‘樂浪長史’의 장관과 차관직의 인장 외에 ‘朝鮮令印’ ‘朝鮮右尉’ ‘駟望丞印’ ‘屯有令印’ ‘東曉長印’ ‘不而長印’ ‘海冥丞印’ ‘昭明丞印’ 등 각 현의 장관 차관의 직명의 인장이 다수 읽힌다. 이러한 관리가 군현을 운영했으나 군현사회의 안정은 山東半島에서 樂浪郡으로 이주하는 자를 불러들여 일정한 세력을 키우는 자들이 생겨났다. 《後漢書》 卷76 循吏 王景傳에는 “王景. 字仲通, 樂浪誦邯人也. 八世祖仲, 本琅邪不其人 … 中略 … 乃浮海, 東奔樂浪山中, 因而家焉. 父閔, 爲郡三老. 更始敗, 土人王調殺郡守劉憲, 自稱大將軍, 樂浪太守. 建武六年(AD. 30), 光武遣太守王遵將兵擊之, 至

遼東. 閔與郡決曹吏楊邑等共殺調迎遵, 皆封爲列侯, 閔獨讓爵. 帝奇而徵之, 道病卒”에 보듯이 樂浪郡에는 ‘土人의 王調’가 태수를 살해하여 ‘大將軍樂浪太守’를 자칭했다고 하듯이 郡縣統治에 저항하는 세력도 발생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王調을 살해한 王閔은 8代祖가 山東半島로부터 이주한 집안이었다. 王調나 王閔 외에도 ‘王光’이나 ‘王町’ 등과 같이 樂浪郡治에 도착화한 중간 규모 정도의 勢力의 일족도 있었다.

樂浪郡의 정치사회는 그 이름같이 中國本土로부터 건너와서 닿은 유토피아가 아니었다. 군현 내의 유력자의 탄생은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東沃沮條에 “光武六年(AD. 30) 省邊郡, 都尉由此罷. 其後皆以其縣中渠帥爲縣侯. 不耐, 華麗, 沃沮諸縣皆爲侯國. 夷狄更相攻伐, 唯不耐濊侯至今猶置功曹, 主簿諸曹, 皆濊民作之. 沃沮諸邑落渠帥, 皆自稱三老, 則故縣國之制也”처럼 大樂浪郡下の 不耐・華麗・沃沮의 ‘渠帥’를 縣侯로 봉할 정도로 舊臨屯郡治下の 옥저족은 그 정치사회의 민족성을 유지 성장시키고 있었다고 추측된다.

이러한 군현 내의 유력세력의 성장은 郡縣統治와 알력을 발생케 하였다.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韓條에는 “桓靈之末, 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建安中(196~220年),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遣公孫模, 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이라 하여 ‘桓靈之末’ 즉 後漢의 桓帝(147~168年)와 靈帝(168~189年)代에는 韓族이나 濊族이 政治社會的으로 성장하였고 黃巾의 난으로 대표되는 後漢王朝의 혼란도 가중되어 樂浪郡과 속현의 통제에서 이탈하여 韓族의 ‘國’, 즉 3세기에 魏왕조에 잘 알려져 있는 樂浪郡 남쪽에 접하는 三韓 땅으로 유출하는 자가 많이 나타난 것이다.

거기서 후한말의 혼란 가운데 요동을 거점으로 자립한 公孫氏는 建安中(196~220年)에 樂浪郡治下の 屯有縣 이남의 땅에 새롭게 帶方郡을 설치하고 조선반도 중・남부에 대해 군현지배의 재편 강화를 꾀했다. 公孫康은 公孫模와 張敞 등을 파견하여 舊郡縣의 遺民을 수집하고 군사를 일으켜 韓과 濊를 쳤기 때문에 公孫氏의 무위를 두려워한 韓族과 왜족은 帶方郡에 속하게 되었다. 帶方郡의 治所는 오늘날의 黃海北道 鳳山郡의 智塔里土城으로 비정되며 이 郡에 ‘屬’한다는 것은 政治的關係나 從屬姿勢를 주로 한 통교와 이에 수반된 경제 문화교류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公孫氏의 樂浪・帶方 2郡의 지배는 길게 가지 못했다. 魏의 明帝는 公孫氏가 3대에 걸쳐 遼東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東夷諸族의 通好가 단절되는 상황을 저어하여 東夷에 이르는 魏의 국제관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景初中(237~239年)에 帶方郡太守 劉昕과 樂浪郡太守 鮮于嗣에게 군대를 이끌고 公孫淵을 토벌시켜 樂浪・帶方의 2郡을 魏의 동방정책의 거점으로서 公孫氏로부터 탈환한 것이다(《三國志》 卷30 東夷

傳序 및 韓傳).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나 韓의 諸國의 수장인 ‘臣智’層은 2郡을 통해 魏王朝로부터 ‘邑君’의 칭호와 ‘印綬’를 그리고 次位의 수장은 ‘邑長’과 印綬를 받았다. 이렇게 ‘印綬’를 받은 자는 韓族社會에 ‘千有餘人’에 이르렀다 한다. 魏의 樂浪郡과 帶方郡을 기점으로 한 東方政策은 더욱 韓族社會 나아가 倭 사회에 침투하여 그 정치사회에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主要參考文獻]

- 藤田亮策, 1948 <樂浪封泥攷> <樂浪封泥續攷> (同 <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窪添慶文, 1981 <樂浪郡と帶方郡の推移>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第3卷 (學生社)
 全浩天, 1998 <樂浪文化と古代日本> (雄山閣出版)
 高久健二, 2002 <樂浪郡と三韓> <韓半島考古學論叢> (西谷 正編, すずさわ書店)
 田村晃一, 2001 <樂浪と高句麗の考古學> (同成社)

IV. 郡縣에 대한 대응

— 馬韓과 倭 VS 高句麗와 新羅의 대립축의 발생 —

BC. 108년에 시작되는 조선반도 중·북부와 중국 동북부에 걸친 중국왕조에 의한 이른바 4郡의 통치는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고 또 4郡의 사회도 균일했던 것은 아니다. 人戶의 파악을 통해 人身支配의 조직을 각각의 사회에 침투시키는 데는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기반의 차이에 따라 순응과 저항의 자세가 나타난다. 4郡 가운데 樂浪郡은 313년에 朝鮮半島에서 遼東으로 접수되나 거기에 이르기까지 4郡을 개폐시킨 정치사회의 동향의 근저에는 고구려족이나 濊族 그리고 韓族의 정치사회의 구조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즉 씨족의 유대가 갖는 규제에서 人戶가 어느 정도 자립하여 정치사회를 형성하고 있는가, 바꿔 말하면 郡縣制支配는 人戶의 個別支配를 기준 단위로 하므로 氏族의 결합을 유지하는 部制의 강약의 차이에 의해 朝鮮半島 中·北部에 설치된 4郡의 통합에 성패가 생기는 것이다.

그 성패란 앞서 말했듯이 高句麗族이나 沃沮族, 濊族의 사회 위에 통치망을 씌운 臨屯郡이 설치된 후 얼마 안 가 저항 때문에 폐지되고 玄菟郡은 두 번의 西遷을 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이른바 古朝鮮 사회를 기반으로 한 낙랑군은 400여년에 걸쳐 존속하고 또 그 남부에 증설된 帶方郡은 100년 가까이 존속하였다. 이 두 군은 한족과 왜국의 소국들이 통교하고 있었듯이 前者의 2郡과는 대조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 대조적인 군현에 대한 대응의 차이가 동아시아 제민족의 상호관계를 낳은 원인이며 그 후의 동아시아 세계의 상호관계를 규제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동아시아 제민족의 대조적인 군현에 대한 대응과 여러 민족 간의 상호관계의 동향은 다음의 사료에서 읽을 수 있다. (○=倭, 馬韓·百濟, □=高句麗·夫餘, ◇=濊, ☆=辰韓·新羅. 白印은 友好的關係, 黑印은 敵對的關係를 대체로 표현한다.)

[第1期 AD. 1世紀]

- ① ○《後漢書》 韓傳 “建武二十年(AD. 44), 韓人廉斯人蘇馬謨等, 詣樂浪貢獻. 光武, 封蘇馬謨爲漢廉斯邑君, 使屬樂浪郡, 四時朝謁”
- ② ○同 卷1 光武帝紀 “建武二十年秋, 東夷韓國人, 率衆詣樂浪內附”
- ③ ○◇同 卷85 東夷傳序 “建武之初, (貊人)復來朝貢, 時遼東太守祭彤, 威讐北方, 聲行海表, 於是濊貊倭韓萬里朝貢”
- ④ □同 卷1 光武帝紀 “建武二十三年(47)冬十月, 高句驪率種人, 詣樂浪內屬”(同 卷85 東夷 高句驪條 “建武二十三年冬, 句驪蠶支落大加戴升等萬餘口, 詣樂浪內屬”)
- ⑤ ○同 卷85 東夷 倭傳 “建武中元二年(57), 倭奴國奉貢朝賀, 使人自稱大夫, 倭國之極南界也. 光武賜以印綬”
- ⑥ ○同 卷85 東夷 倭傳 “安帝永初元年(107), 倭國王帥升等獻生口百六十人, 願請見”(《翰苑》所載의 《後漢書》佚文에서는 ‘倭面上國’, 北宋版 《通典》에서는 ‘倭面土國’, 《唐類函》所引의 《通典》에는 ‘倭面土地’)

4郡 설치 후의 1세기 사이에 韓, 倭, 濊貊 및 고구려는 낙랑군을 통해 공헌하고 邑君의 칭호나 印綬를 얻어 朝謁하고 또 內附하고 있었다. 그러나 樂浪郡 혹은 郡을 매개로 한 後漢王朝와의 통교관계도 이후의 2세기에는 다른 면이 나타난다. 즉 郡縣支配에 대한 抵抗이다. 高句麗와 부여는 玄菟郡과 遼東郡에 통교와 공격이라는 양면의 대응을 취하고 있었다. 高句麗는 遼東郡을 공격하고 또 濊貊과 함께 玄菟郡이나 樂浪郡 하의 華麗縣을 공격한 바 있다(AD. 118).

2세기 후반 後漢의 중앙정권의 혼란은 郡縣에 속한 周邊諸民族에 대한 통제에 동요를 일으켰고 그것은 諸民族 내부의 지배층 자체의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 의하면 高句麗王家의 장자인 拔奇와 小子인 伊夷模가 대립하여

209년에는 伊夷模가 신국을 건설하고 拔奇가 요동으로 도망가는 내분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 《三國志》 卷30 魏書 韓傳에는 ‘桓靈之末(146~189年)’에 韓과 濊가 彊盛하게 되어 郡縣이 이것을 통제할 수 없는 사태 가운데 郡縣의 民은 ‘韓國’으로 유입되었다 한다. 이 군현의 民이 농공의 지식과 기술을 갖고 ‘韓國’으로 집단적으로 이주한 사태는 ‘韓國’ 내의 정치사회에 소국가적 집단의 결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郡縣支配에 대응하는 韓族과 高句麗族의 동향은 王權의 성장과 그에 대한 각 씨족의 집중에 의한 국가형성의 한 단계로 보아야 하며 이 동향은 바다를 건너 倭國에서도 볼 수가 있다. 下記의 사료 ⑫에서 보듯이 倭國의 내란과 여왕 히미코(卑彌呼)의 추대에 이르는 동향은 後漢末의 왕조 중앙의 혼란과 朝鮮半島 남북의 왕권의 성장과정과 밀접히 관계있는 광범한 연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倭國의 왕권의 성장이 조선반도의 동향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은 卑彌呼의 시대를 보아도 분명하다. 그것은 여기까지 면면히 계속되어온 朝鮮半島와 日本列島의 피아를 구분할 수 없는 일체적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第2期 AD. 2世紀]

- ① ■《後漢書》 卷85 東夷 高句麗條 “和帝元興元年(105)春, 復入遼東, 寇略六縣, 太守耿夔, 擊破之, 斬其渠帥”
- ② □同 卷5 安帝紀 “永初三年(109)春, 高句麗遣使貢獻”
- ③ ■《後漢書》 卷85 東夷 夫餘條 “安帝永初五年(111), 夫餘王始將七八千人, 寇鈔樂浪, 殺傷吏民, 後復歸附”
- ④ □《後漢書》 卷85 東夷 高句麗條 “永初五年(111), 宮(太祖王)遣使貢獻, 求屬玄菟”
- ⑤ ■◆《後漢書》 卷85 東夷 高句麗條 “元初五年(118), 復與穢貊寇玄菟, 攻華麗城”
- ⑥ ■◆●同 安帝紀 “建光元年(121)春正月, 幽州刺史馮煥, 率二郡太守討高句麗, 穢貊, 不克。○夏四月, 穢貊復與鮮卑寇遼東, 遼東太守蔡諷, 追擊戰沒。○冬十二月, 高句麗·馬韓·穢貊, 圍玄菟城。夫餘王遣子, 與州郡并力討破之”
- ⑦ ■◆●同 安帝紀 “延光元年(122)春二月, 夫餘王遣子, 將兵救玄菟, 擊高句麗·馬韓·穢貊破之, 遂遣使貢獻。秋七月, 高句麗降”
- ⑧ ■《三國志》 卷30 魏書 高句麗條 “宮死, 子伯固立。順桓之間(126~167), 復犯遼東, 寇新安居鄉, 又攻西安平, 於道上殺帶方令, 略得樂浪太守妻子”(《後漢書》 卷85 東夷 高句麗條 “遂成死, 子伯固立。其後濊貊率服, 東垂少事。順帝陽嘉元年(132), 置玄菟郡屯田六部。質桓之間(146~167)復犯遼東西安平, 殺帶方令, 掠得樂浪太守妻子”)
- ⑨ ■同 卷30 魏書 高句麗條 “靈帝建寧二年(169), 玄菟太守耿臨討之, 斬首虜數百級, 伯固降, 屬遼東。熹平中(172~178)伯固乞屬玄菟”
- ⑩ ●◆同 卷30 魏書 韓條 “桓靈之末(146~189) 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建安中(196~220年)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 爲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 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 ⑪ □同 卷30 魏書 高句麗條 “公孫度之雄海東也, 伯固遣大加優居, 主簿然人等, 助度擊富山賊, 破之”
- ⑫ 同 卷30 魏書 倭人條 “其國本亦以男子爲王, 住七八十年, 倭國亂, 相攻伐歷年, 乃共立一女子爲王, 名曰卑彌呼, 事鬼道, 能惑衆, 年已長大, 無夫婿, 有男弟佐治國”(《後漢書》 卷85 東夷 倭傳 “桓靈間(146~189), 倭國大亂, 更相攻伐, 歷年無主, 有一女子, 名曰卑彌呼”)
- ⑬ ○‘中平□年(184~189)’銘環頭大刀 “中平□年五月丙午造作文刀百練清剛上應星宿□□□□”(奈良縣 天理市 東大寺山古墳 出土)

그런데 3세기에는 동아시아에 새로운 국제환경이 탄생하고 있었다. 후한 중앙의 동요가 주변의 군현에까지 변동을 초래하여 遼東 방면에서는 玄菟郡의 말단 관리 출신인 公孫度が 요동군을 거점으로 자립한 정권을 세운 것이다.

公孫度は 遼東郡을 이분하여 遼西郡과 中遼郡으로 나누고 山東半島까지도 확보하여 스스로 ‘遼東公平州牧’이라 칭하며 南으로 내려와 樂浪郡을 공격하고 ‘遼東’지역의 ‘王’과 같은 지방정권의 양상을 나타냈다. 그의 아들인 公孫康은 樂浪郡 남부에 帶方郡을 개설하고 ‘政權’의 권위를 과시하였으므로 韓과 왜의 소국들은 활발히 帶方郡과 통교해 왔다.

帶方郡은 公孫康에 의해 개설되어 결국 魏王朝가 景初年間(237~239)에 公孫氏政權을 멸망시키고 접수하기에 이르러 이 중국 중앙정권의 정치력과 문화력 앞에 韓, 高句麗, 穢貊, 倭는 발빠른 대응을 보인다. 魏는 246년에 幽州刺史 毋丘儉의 軍을 파견하고 고구려에 대타격을 입혀 高句麗 세력을 꺾고 韓과 왜의 통교를 활발히 받고 있다. 그것은 다음의 사료로 관찰할 수 있다.

[第3期 AD. 3世紀 前半]

- ① 《三國志》 卷30 東夷傳序 “公孫淵仍父祖三世, 有遼東, 天子爲其絕域, 委以海外之事, 遂隔斷東夷, 不得通於諸夏, 景初中(237~239), 大興師旅誅淵, 又潛軍浮海收樂浪帶方之郡, 而後海表謐然, 東夷屈服”
- ② 《三國志》 卷30 東夷 韓傳 “景初中(237~239),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 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部從事吳林, 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智激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 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 ③ ○同 倭人傳 “景初三年(239)六月, 倭女王遣大夫難升米等詣郡, 求詣天使朝獻, 太守劉

夏遣吏將送詣京都. 其年十二月, 詔書報倭女王曰 … 中略 … 今以汝爲親魏倭王, 假金印紫綬 (後略)”

- ④ ○同 倭人傳 “正始元年(240), 太守弓遵遣建忠校尉梯儁等奉詔書印綬詣倭國, 拜假倭王, 并齎詔賜金, 帛, 錦罽, 刀, 鏡, 采物, 倭王因使上表答謝詔恩”
- ⑤ ○同 倭人傳 “其四年(243), 倭王復遣使大夫伊聲耆, 掖邪狗等八人, 上獻生口, 倭錦, 緯青縑, 絺衣, 帛布, 丹木□(ㄱ+付), 短弓矢. 掖邪狗等壹拜率善中郎將印綬”
- ⑥ ○同 倭人傳 “其六年(245年), 詔賜倭難升米黃幢, 付郡假授”
- ⑦ ■◆同 濊傳 “正始六年(245) 樂浪太守劉茂, 帶方太守弓遵以遼東濊屬句麗, 興師伐之, 不耐侯等舉邑降”
- ⑧ ■◆○《三國志》卷4 魏書 三少帝紀4(齊王芳) “(正始)七年(246)春二月, 幽州刺史毋丘儉討高句麗, 夏五月, 討濊貊, 皆破之. 韓那奚等數十國, 各率種落降”
- ⑨ ◇同 濊傳 “其(正始)八年(247), 詣闕朝貢, 詔更拜不耐濊王. 居處雜在民間, 四時詣郡朝謁. 二郡有軍征賦調, 供給役使, 遇之如民”
- ⑩ ○同 倭人傳 “其(正始)八年, 太守王頌到官. 倭女王卑彌呼與狗奴國男王卑彌弓呼素不和, 遣倭載斯, 烏越等詣郡說相攻擊狀. 遣塞曹掾史張政等因齎詔書, 黃幢, 拜假難升米爲檄告諭之. 卑彌呼以死, 大作冢, 徑百餘步, 狗葬者奴婢百餘人. 更立男王, 國中不服, 更相誅殺, 當時殺千餘人. 復立卑彌呼宗女壹與, 年十三爲王, 國中遂定. 政等以檄告諭壹與, 壹與遣倭大夫率善中郎將掖邪狗等二十人送政等還, 因詣臺, 獻上男女生口三十人, 貢白珠五千, 孔青大句珠二枚, 異文雜錦二十四”
- ⑪ ○◇《三國志》卷4·魏書·三少帝紀4(陳留王奐)“(景元)二年(261)秋七月, 樂浪外夷韓, 貊各率其屬來朝貢”

樂浪·帶方 2군이 魏의 지배에 들어가자 東夷의 제 민족은 魏에 ‘屈服’한 자세를 취했다. 246년에 魏가 幽州刺史의 毋丘儉을 파견하여 高句麗를 공격했으나 《三國史記》高句麗本紀에 의하면 이 때 高句麗 수도인 丸都城은 함락하고 王은 南沃沮로 도피하였다. 이 高句麗의 대패배의 한편으로 韓과 왜는 활발하게 樂浪·帶方郡과 통교하고 나아가 魏都가 낙양과도 통교하고 있다. 239년에는 倭의 大夫 難升米 등이 帶方郡에 갔고 나아가 낙양까지 보내졌고 다음해에는 魏의 사신을 받아들여 金印紫綬 등을 받고 있다. 243년에는 大夫 伊聲耆, 掖邪狗 등 8명이 魏에 보내졌고 247년에는 倭國王 卑彌呼는 倭의 狗奴國王과 서로 공격하는 모습을 帶方郡에 호소하여 魏로부터 참모에 해당하는 塞曹掾史인 張政을 받아들인 정도이다.

이렇게 멀리 있는 倭國王이 魏의 帶方郡과 통교하고 낙양에도 가 ‘金印紫綬’ 등을 받은 배경에는 中國本土에서는 魏가 남쪽의 吳와 대립하고 있고 吳를 견제할 수 있는 지리에 왜국이 있다는 인식에서 倭國을 높이 평가했을 것이다. 또 倭國이 帶方郡과 활발히 통교할 수 있었던 것은 樂浪·帶方의 2郡이 魏에 접수되자 魏로부터 ‘邑君’

‘邑長’의 印綬를 받은 韓族社會의 氏族長인 ‘臣智’層이 이미 魏에 臣從하고 있고 그 입장에서 倭國使를 帶方郡이나 洛陽으로 향도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倭國使가, 晉王朝가 魏로 바뀌어 성립된 다음해인 266년에 ‘重譯’하여 入貢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이 韓과 倭가 활발하게 帶方郡이나 樂浪郡과 통교하는 관계는 265년에는 司馬炎이 魏를 대신하여 晉을 연 이후에도 계속된다.

[第4期 AD. 3世紀 後半]

- ① ○《晉書》 卷3 武帝紀 “泰始二年(266)11月己卯, 倭人來獻方物”
[《晉書》 卷97·東夷·倭人傳 “泰始初, 遣使重譯入貢”]
[“晉起居注云, 武帝泰初二年十月, 倭女王遣重譯貢獻”(《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攝政 66年)]
- ② 《晉書》 卷3 武帝紀 “咸寧二年(276)二月, 東夷八國歸化. 七月, 東夷十七國內附”
同 “咸寧三年(277), 是歲, 西北雜虜及鮮卑, 匈奴, 五溪蠻, 東夷三國, 前後千餘輩, 各帥種人部落內附”
- ③ ○《晉書》 卷97 東夷 馬韓傳 “咸寧三年(277), (馬韓)復來”
《晉書》 卷3 武帝紀 “咸寧四年(278)三月, 東夷六國來獻. 是歲, 東夷九國內附
- ④ ○《晉書》 卷97·東夷·馬韓傳 “咸寧四年(278), (馬韓)請內附”
《晉書》 卷3 武帝紀 “太康元年(280)六月甲申, 東夷十國歸化. 七月, 東夷二十國朝獻”
[280年, 晉이 吳를 滅함]
- ⑤ ○《晉書》 卷97 東夷 馬韓傳 “武帝太康元年(280)·二年(281), 其主頻遣使入貢方物. 七年(286), 八年, 十年(289), 又頻至”
- ⑥ ☆同 東夷 辰韓傳 “武帝太康元年(280), 其王遣使獻方物”
《晉書》 卷3 武帝紀 “太康二年(281)三月東夷五國朝獻. 夏六月, 東夷五國內附”
- ⑦ ○《晉書》 卷97 東夷 馬韓傳 “太康二年(281), 其主遣使入貢方物”
- ⑧ ☆ 同 東夷 辰韓傳 “太康二年(281), (辰韓)復來朝貢”
《晉書》 卷3 武帝紀 “太康三年(282)九月東夷二十九國歸化, 獻其方物”
- ⑨ ○[《晉書》 卷36 張華傳 “乃出張華爲持節都督幽州諸軍事領護烏桓校尉安北將軍, 撫納新舊, 戎夏懷之. 東夷馬韓新彌諸國, 依山帶海, 去州四千餘里, 歷世未附者二十餘國, 竝遣使朝獻, 於是遠夷賓服, 四境無虞頻歲豐稔, 士馬彊盛. 朝議欲徵華入相, 又欲進號儀同”]
- ⑩ ○《晉書》 卷3 武帝紀 “太康七年(286)八月東夷十一國內附. 是歲, 馬韓等十一國遣使來獻”
- ⑪ ○《晉書》 卷97 東夷 馬韓傳 “太康七年(286), (馬韓)至”
- ⑫ ☆同 東夷 辰韓傳 “太康七年(286), (辰韓)又來”
《晉書》 卷3 武帝紀 “太康八年(287)八月 東夷二國內附”

- ⑬ ○《晉書》卷97 東夷 馬韓傳 “太康八年(287), (馬韓)至”
 《晉書》卷3 武帝紀 “太康九年(288)九月 東夷七國, 詣校尉內附”
 同 “太康十年(289)五月 鮮卑慕容廆來降, 東夷十一國內附. 是歲, 東夷絕遠三十餘國,
 西南夷二十餘國來獻”
- ⑭ ○《晉書》卷97 東夷 馬韓傳 “太康十年(289), (馬韓)至”
 《晉書》卷3 武帝紀 “太熙元八年(290)二月辛丑, 東夷七國朝貢”
- ⑮ ○《晉書》卷97 東夷 馬韓傳 “太熙元年(290), (馬韓)詣東夷校尉何龕上獻”
 《晉書》卷4 惠帝紀 “(元康元年)是歲(291)東夷十七國, 南夷二十四部, 並詣校尉內附”

3세기 후반의 韓과 倭의 2郡이나 洛陽과 통교하는 움직임은 전하는 《晉書》는 646년에 房玄齡 등이 唐 太宗의 칙을 받들어 편찬한 정사이다. 비록 당시기로부터 300년 이후의 편찬이긴 하나 지금은 없는 각종의 《晉書》를 바탕으로 편수되었으므로 그 동이전은 간략하나 통교의 경향을 전하고 있다. ‘東夷’가 西晉으로 통교한 것은 ‘東夷六國來獻’등으로 통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는 ‘東夷馬韓新彌諸國’과 같은 《三國志》韓傳에 이름을 볼 수 없는 馬韓의 ‘新彌國’이 보인다. 馬韓과 辰韓 가운데서 小國이 활발하게 통교하는 배경에는 幽州都督 張華의 東夷에 대한 위무책이 주효했으며 이에 대응하여 한족 내부의 소국에서는 정치사회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왜국의 通交記事는 266년의 ‘重譯’에 의한 공헌의 예 이외의 기사는 보이지 않으나 倭國이 西晉으로 통교한 것은 한번 뿐이라고는 단언키 어려울 것이다. 馬韓諸國의 향도에 의해 入貢이 가능해진 것은 ‘重譯’이 암시하고 있고 ‘東夷’의 수십 국과의 통교 가운데 왜국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前代의 왜가 馬韓의 ‘臣智’層의 향도를 받아 帶方郡으로 통교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므로 그 관계가 끊겼다고는 볼 수 없다.

[主要參考文獻]

- 西嶋定生, 1983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東大出版會, 第3章 親魏倭王册封に至る東アジアの情勢-公孫氏政權の興亡を中心として-)
- 西嶋定生, 1985 《日本歴史の國際環境》(東大出版會, 序章 倭國の形成とその國際的契機 / 第一章 一~三世紀の東アジアと倭國 / 第二章 四~六世紀の東アジアと倭國)
- 武田幸男, 1990 <魏志東夷傳における馬韓> 《馬韓・百濟文化》第12號(韓國 圓光大學校)
- 李賢惠, 1994 <三韓의 對外交易體系>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一潮閣);

日譯 金井塚良一譯 <三韓の對外交易體系> 《東洋研究》 第119號

武田幸男, 1995・1996 <三韓社會における辰王と臣智> (上・下) (《朝鮮文化研究》 第2,3號)

李 成市, 1998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第一編 樂浪郡設置と高句麗の國家形成>, 岩波書店)

木村 誠, 1998 <倭人の登場と東アジア> 《古代を考える邪馬台國》 (平野邦雄編, 吉川弘文館)

金子修一, 1998 <二・三世紀の東アジア世界> (同上書)

西嶋定生, 1995 《倭國の出現-東アジア世界のなかの日本-》 (東大出版會)

大庭 脩, 2001 《親魏倭王》 (學生社, 增補初版)

V. 군현정치의 소멸과 百濟・倭, 高句麗・新羅의 동향

3세기 말까지의 조선반도에서 韓의 여러 나라와 왜국과의 관계에서는 中國王朝가 조선반도의 중・서북부에 둔 樂浪・帶方의 두 군과의 교섭과 이것을 매개로 한 낙양으로의 사신 파견을 진행함으로써 양자 사이에는 中原王朝와의 臣屬의 관계로 연결된 遣使・通交의 회로와 같은 양상이 생겨났고 거기에는 전쟁이나 대립과 같은 가혹한 사태는 나타나지 않았다. 郡縣에 적대하는 高句麗와의 사이에는 지리적으로 樂浪・帶方의 2郡과 沃沮나 濊族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遣使・通交 회로 가운데는 倭國은 외연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中國王朝로부터 우대를 받은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즉 前漢에서 魏를 거쳐 西晉王朝까지 中國王朝가 취한 遠交近攻策은 東아시아에도 취해졌고 이 대외책 외에도 또 中國皇帝의 덕치주의가 이민족에 확대됨으로써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중국왕조와 왜국의 경우에는 그 중간에 위치하여 2군을 매개하여 일찍 황제의 덕치를 받은 韓의 제국은 외연에 있는 왜국의 중국왕조와의 통교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요구받았고 또 그것의 실행이 자신의 덕치를 우위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한편 倭國은 卑彌呼가 2郡과 魏의 수도에 잘 사신을 보내고 우대를 받은 것도, 韓諸國의 이러한 位置에서 왜국의 통교에 ‘重譯’을 비롯한 편의를 제공받았기 때문이고, 또 魏가 魏에 대항하여 倭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倭國이 2郡과 이것을 매개로 中國의 諸王朝와 통교한 배경에는 倭國內部の 요인이 지금까지 고찰되어 왔으나 그것을 가능케 하고 촉진한 것은 中國王朝의 대외관계의 구조 유지의 원리와 왜와 중간에 있는 韓의 諸國의 중개자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에서도 통교의 요충인 弁韓의 狗邪國이나 瀆盧國 그리고 樂浪, 帶方2郡과 접하며 朝鮮半島西部에 위치한 馬韓의 제국의 협조 자세이며 그런 가운데 문화가 가치를 띠고 교류했던 것이다. 이것이 왜국과 가야, 그리고 백제와의 길고도 굳은 관계의 근원의 하나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 중국왕조와 韓의 여러 나라와 倭國을 잇는 原理를 위협하는 존재가 동북부의 고구려였고 때로는 부속한 濊와 沃沮였으며 西北의 匈奴나 鮮卑族이 中國王朝로 공세를 계속했던 국제환경이 고구려의 행동을 쉽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高句麗의 美川王이 파견한 군은 313년에 2郡을 공격하여 郡治를 중국 내부로 철퇴시켜 朝鮮半島 中·西北部에 약 400년 간 계속되었던 中國王朝의 郡縣支配를 소멸시켰다. 이 연대는 《梁書》나 《資治通鑑》에는 ‘建興元年(313)’에 乙弗利(美川王)가 이끄는 군대가 2郡을 다스리는 遼東의 張統과 慕容廆를 공격한 것을 기록했고 이를 계승한 《三國史記》에는 313년에 樂浪郡을 공격하고 다음해 314년에는 帶方郡을 공격했다고 편년한다.

2郡治가 요동으로 이전한 점, 즉 중국왕조의 군현지배 기구가 조건반도에서 철수한 점은 반도의 동북부에 위치한 고구려와 남부의 韓의 諸國이 결국 접촉하게 되는 환경을 낳았다. 이것은 왜국에도 심각한 정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百濟 그리고 뒤늦게 신라 가야와 왜국의 왕권집중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고구려는 옛 두 郡縣의 토지와 백성을 고구려의 지배기구 하에 바로 편입시키지는 못했다. 舊郡縣에는 중국인 콜로니의 성격을 띤 정착형 씨족이 뿌리 깊게 남아있어 고구려가 이것을 통합한 것은 427년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기까지의 약 1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朝鮮半島의 中西·西北部의 2군의 소멸은 高句麗와 韓의 제국 사이에 완충지대가 생기게 되었으나 3세기에 활발했던 韓의 諸國과 이를 이끌었던 倭의 사신 파견의 회로는 그 주축이 소멸됨에 따라 韓의 諸國과 倭國의 정치사회에 큰 변동을 야기하게 된다.

[史料 I]

- ① 《梁書》 卷54 列傳48 高句麗條 “晉永嘉亂(307~312), 鮮卑慕容廆, 據昌黎大棘城, 元帝授平州刺史, 句麗王乙弗利, 頻寇遼東, 廆不能制”
- ② 《資治通鑑》 卷88 晉紀10 孝愍帝上 建興元年(313) 夏4月條 “遼東張統據樂浪帶方二郡, 與高句麗王乙弗利(美川王)相攻, 連年不解, 樂浪王遵說統帥其民千餘家歸廆, 廆爲之置樂浪郡, 以統爲太守, 遵參軍事”
- ③ 《三國史記》 卷17 美川王 3年(302) 秋九月條 “王率兵三萬侵玄菟郡, 虜獲八千人, 移

之平壤.”

- ④ 同 12年(311) 秋八月條 “遣將襲取遼東西安平”
- ⑤ 同 14年(313) 冬十月條 “侵樂浪郡, 虜獲男女二千餘口”
- ⑥ 同 15年(314) 秋九月條 “南侵帶方郡”
- ⑦ 同 16年(315) 春二月條 “攻破玄菟城, 殺獲甚衆”

그렇다면 高句麗의 군사면에서의 성장요인은 무엇인가. 단지 전투기사의 배후에 있는 고구려 사회의 변화에 대한 관심의 문제이나 이에 수반된 조선반도의 동향은 다음의 사료로 파악할 수 있다.

2郡의 요동으로의 철수 후의 동아시아 정세는 급변하게 된다. 西晉이 316년에 멸망하고 318년에는 建業(南京)에 東晉이 재흥되었으나 華北에 五胡의 왕조가 흥망하는 中國의 정세에 대응하여 동북의 高句麗는 慕容氏政權과의 대립을 축으로 五胡十六國과의 사이에 대립과 통교를 병행하는 복잡한 관계가 계속되며 南의 三韓과 倭에도 고구려의 동향과 연동한 새로운 변동이 생기게 된다.

[史料 II]

- ① 《晉書》 卷6 元帝紀 “太興二年(319)十二月, 鮮卑慕容廆襲遼東, 東夷校尉平州刺史崔瑟奔高句驪”
- ② 《資治通鑑》 卷91 晉紀13 中宗紀 “太興二年(319)十二月 (中略) 高句麗數寇遼東, 廆遣慕容翰·慕容仁伐之, 高句麗王乙弗利逆來求盟, 翰·仁乃還”
- ③ 《晉書》 卷108 慕容廆載紀 “明年(320) 高句麗寇遼東, 廆遣衆擊敗之”
- ④ 《晉書》 卷105 石勒載紀 “時(330) 高句麗·肅慎致其楛矢, 宇文·屋孤, 竝獻名馬于勒”
- ⑤ 《三國史記》 卷18 故國原王4年(334)條 “秋八月, 增築平壤城”
- ⑥ 同 故國原王 5年(335)條 “春正月, 築國北新城”

고구려는 慕容氏 정권에 대해 축성으로 대표되는 방위체제를 강화하였다. 그 한편으로는 慕容皝에 패한 慕容仁 막하의 修壽나 後趙의 宋晃 등의 망명을 받아들여(336, 338年), 慕容氏와의 긴장관계와 장래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 341년에 高句麗는 南北으로 5萬 5千의 燕軍의 진격을 받았고 故國原王은 작전의 실패로 丸都城은 燕軍에게 함락당해 故國原王은 패주하고 아버지 미천왕의 무덤은 연군에 의해 파헤쳐지고 아버지의 시신마저 빼앗기는 굴욕을 당한 외에도 王母나 왕비뿐 아니라 寶物과 5萬餘의 남녀를 약탈당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고국원왕은 다음해에 燕王 皝에게 사신을 보내 方物을 조공하고 그 臣이 됨으로써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은 돌려받았으나 어머니는 여전히 質로서 前燕에 남겨졌다.

高句麗는 혹독하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前燕에 대한 臣屬의 자세는 굳혀지지 않고 왕은 일단 남쪽으로 수도를 옮긴 뒤 343년에는 東晉에 조공할 자세를 취했다. 고구려는 345년에는 前燕의 공격을 받았고 다음해에는 前燕이 1萬7千의 기병을 보내 夫餘를 치고 그 왕을 포로로 삼는 공세 앞에 349년에는 高句麗에 망명하고 있던 宋晃을 前燕에 보내 다시 한번 恭順의 자세를 보였다. 또한 故國原王은 355년 12월에 前燕에 質을 보내고 恭順의 자세를 굳히자 14年 만에 모친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故國原王의 내외 시책은 이후의 광개토왕의 대외정책을 낳게 한 진통이기도 했다. 왕은 고구려의 서쪽에 있는 五胡의 흥망과 항쟁에 고생한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그 후 平壤을 중심으로 한 朝鮮半島의 중남부에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대외정책의 비중의 이동은 고구려 왕권의 대외적인 안정을 보증하는 기반을 조선반도 중남부에서 찾았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 왕국의 경제기반 가운데 종래의 수렵경제와는 다른 농업경제가 舊낙랑·대방군의 치하의 사회에 고구려 사회의 지배가 침투함과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었음에 대응한 정책으로 생각된다.

즉 고구려는 서북방면에서는 鮮卑族과 고투하고 있었으나 西南部에서는 樂浪, 帶方 2郡의 지배기구를 붕괴시킨 313년부터 대체로 50年 사이에 高句麗가 그 옛 땅에 거주하는 遺民社會를 회유하며 거기를 지배영역화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故國原王은 334년에 平壤城을 증축했으나 336년에 東晉으로 조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에 가능했고 또 343년에는 舊帶方郡 치하의 黃城에 故國原王이 前燕의 공세를 피할 수 있었던 것도 2郡의 故地의 세력에 대한 회유책과 平壤城 건설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朝鮮半島에서는 高句麗의 故國原王의 남방충실책이 아들인 소수림왕과 故國壤王에게도 계승되었다. 高句麗는 太白山脈을 따라 膨張의 거점인 산성을 구축하여 남하했고 朝鮮半島의 동북부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 고구려에 속한 濊를 매개로 新羅가 그 정책에 포섭되어 가게 되었다. 그리고 한편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은 격화하였다. 그 가운데 백제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遣使·通交 서클의 전개 속에서 연계를 쌓아온 倭國을 포섭하게 되는 것이다.

[史料 III]

① 《晉書》 卷7 成帝紀 “咸康二年(336)二月庚申. 高句麗遣使貢方物”

② 《晉書》 卷109 慕容皝載紀 “(咸康三年)其年(339). 皝伐高句麗. 王釧乞盟而還. ○明

年(340). 釗遣其世子朝於號”

- ③ 《晋書》 卷109 載記卷9 慕容皝紀 “咸康七年(341) 皝遷都龍城，率勁卒四萬入自南陝，以伐宇文，高句麗，又使翰及子垂爲前鋒，遣長史王寓等，勒衆萬五千從北置而進。高句麗王釗(故國原王)謂皝軍之從北路也。乃遣其弟武，統精銳五萬踞北置，躬率弱卒以防南陝，翰與釗戰于木底，大敗之。乘勝遂入丸都。釗單馬而遁，皝掘釗父利(美川王)墓，載其尸并其母妻珍寶，掠男女五萬餘口，焚其宮室，毀丸都而歸。明年(咸康8年(342))釗遣使稱臣於皝，貢其方物，乃歸其父尸)”
- ④ 《三國史記》 卷18 故國原王 12年(342)條 “春二月，修葺丸都城，又築國內城。秋八月，移居丸都城”
- ⑤ 《三國史記》 卷18 故國原王 13年(343)條 “秋七月，移居平壤東黃城。城在今西京東木覓山中”
- ⑥ 《晋書》 卷7 康帝紀 “建元元年(343)十二月，高句麗遣使朝獻”
- ⑦ 《資治通鑑》 卷98 晉紀20 孝宗紀 “永和五年(349)十二月，高句麗王釗送前東夷護軍宋晃于燕。燕王皝赦之”
- ⑧ 《資治通鑑》 卷100 晉紀22 孝宗紀 “永和十一年(355)十二月，高句麗王釗遣使詣燕。納質修貢以請其母。燕主皝許之。遣殿中將軍刁龕，送釗母周氏歸其國。以釗爲征東大將軍營州刺史封樂浪公。王如故”
- ⑨ 《三國史記》 卷18 故國原王 39年(369)條 “秋九月，王以兵二萬南伐百濟。戰於雉壤，敗績”
- ⑩ 《晋書》 卷113 載記 苻堅紀 “太和五年(370)，又遣猛率楊安，張，鄧羌十將率步騎六萬伐(慕容)。堅親送猛於霸東(中略)遣其太傅慕容評率衆四十餘萬以救二城(晉陽，壺關)，評憚猛不敢進，屯於潞川。(中略)堅遂攻鄴，陷之。慕容 出奔高陽，堅將郭慶執而送之。堅入鄴宮，閱其名籍，凡郡百五十七，縣一千五百七十九，戶二百四十五萬八千九百六十九，口九百九十八萬七千九百三十五。諸州郡牧守及六夷渠帥盡降於堅。郭慶窮追餘燼，慕容評奔於高句麗，慶追至遼海，句麗縛評送之”
- ⑪ 《三國史記》 卷18 故國原王41年(371)條 “冬十月，百濟王率兵三萬來攻平壤城。王出師拒之。爲流矢所中。是月二十三日薨。葬于故國之原”
- ⑫ 同 小獸林王 2年(372)條 “夏六月，秦王苻堅遣使及浮屠順道，送佛像經文。王遣使廻謝，以貢方物。立太學，教育子弟”
- ⑬ 同 3年(373)條 “始頒律令”
- ⑭ 同 4年(374)條 “僧阿道來”
- ⑮ 同 5年(375)條 “春二月，始創省門寺。以置順道。又創伊弗蘭寺。以置阿道。此海東佛法之始。秋七月，攻百濟水谷城”
- ⑯ 同 6年(376)條 “冬十一月，侵百濟北鄙”
- ⑰ 同 7年(377)條 “冬十月，無雪。雷。民疫。百濟將兵三萬來侵平壤城。十一月，南伐百濟”
- ⑱ 《資治通鑑》 卷104 晉紀26 烈宗紀 “太元二年(377)春，高句麗新羅西南夷皆遣使入貢于秦
- ⑲ 《三國史記》 卷18 小獸林王8年(378)條 “旱。民饑相食。秋九月，契丹犯北邊，陷八部

落”

⑳ 同 14年(384)條 “冬十一月. 王薨. 葬於小獸林. 號爲小獸林王”

[主要參考文獻]

末松保和, 1954 <新羅建國考> 《新羅史の諸問題》(東洋文庫); 原載는 1932 <新羅の軍號‘幢’について> 《史學雜誌》 第43編 第12號; 後에, 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 1, 1995 <新羅の政治と社會> (吉川弘文館)

맺음말

본장에서는 前漢王朝가 BC. 108年과 BC. 107年에 白頭山一帶의 산지에서 中國大陸과 朝鮮半島를 분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4郡을 설정한 이래 4郡의 개폐와 313年에 郡縣통치가 끝나기까지 이 사이의 반도와 열도의 여러 민족이 서로 통교하며 군과도 통교하는 모습을 문헌을 통해 관찰하였다.

그 목적은 고대의 일한관계가 지역간 교류의 배경과 이것을 촉진하는 요인이었던 국가간 교류가 돌연히 4세기 말의 소위 ‘왜국의 군사적인 조선반도예의 진출’이나 ‘출병’이라 불리는 대립적인 관계로 출현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4세기 말의 일한관계를 고찰하는 데는 여기에 이르는 관계의 역사를 이해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장에서 통람한 日韓關係를 진전시킨 기본요인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① BC. 108年 이래 대체로 400年에 걸쳐 朝鮮半島의 西北部에 前漢과 後漢 나아가 公孫氏政權과 魏, 晉의 郡으로 존재한 樂浪郡과 3世紀부터 대체로 100年間 존재한 帶方郡은 郡下의 縣을 통해 王朝中央의 통치가 이 지역에 미쳤을 뿐 아니라 특히 南方의 韓 諸國과 倭國이 이에 연쇄적으로 통교해 왔다. 그러면서 왕조의 덕치주의의 이 민족 대책과 遠交近攻의 대책이 맞물려 보다 먼 지역인 왜국의 통교가 촉진된 것이다. 樂浪·帶方의 두 군이 반도의 서북부에 위치한 것은 日韓關係가 반도의 남부의 제국을 매개로 진행하고 드디어 백제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진행시킨 한편 신라와는 대립적인 방향으로 가게 한 결정적인 지리적 요인이 되었다.

이 2군과는 반대로 半島의 동북부에 두어진 臨屯郡이 빨리 폐지되고 玄菟郡이 반도의 동북부에서 요동으로 철수한 배경에는 고구려족의 국가형성으로의 성장이 있었고 이 지역으로부터 郡縣이 소멸됨으로써 반도의 동북부지역은 고구려 세력이 미치는 지역이 되었다. 그리고 반도의 동남부에 있던 신라가 고구려의 세력권 하에 들어

갈 지리적 조건이었다.

② 樂浪·帶方の 두 군에 대한 반도와 열도 제국의 통교에는 상호 협조가 보인다는 점이다. 3세기에 활발히 팝과 통교한 마한을 비롯한 東夷諸國 간에는 통교를 둘러싼 분쟁의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마한의 소국의 수장이 魏王朝로부터 ‘臣智’나 ‘邑君’의 작위를 받은 정치관계에서 군과의 통교를 진행하였고 통행자를 향도할 의무를 졌기 때문에 멀리 있는 왜국은 그 향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臣智’나 ‘邑君’이 통교자의 향도를 기피하면 군의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뒤에 신라가 고구려와 함께 前秦에 통교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2郡과 馬韓 나아가 弁韓의 통교를 기초로 왜국은 郡을 매개로 중앙 왕조의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왜국에서는 유리한 지리관계와 통교의 시스템의 원리로 군을 매개로 한 왕조의 하사품을 축적해 간다. 중국문화의 時系列的인 저장지로서의 모습을 띤 유적이 서일본에 나타나는 이유이다.

【文獻目錄】

日本에서의 七支刀 研究 文獻目錄

- 菅政友, 1907 <石上神宮ノ寶庫所藏六叉刀銘> 《菅政友全集》 雜稿三 所收 (國書刊行會, 成稿는 1885년경)
- 同, 1907 <大和國石上神宮寶庫所藏七支刀> 《同上書》 雜稿一 所收
- 星野恒, 1892 <七枝刀考> 《史學雜誌》 第37號; 1909 《史學叢說》 第一集 再收錄
- 菅政友, 1907 <任那考> 《菅政友全集》 所收 (1893年稿)
- 黑川眞賴, 1898 <本邦金屬器志, 第五回・紙幣橫刀> 《國華》 109; 1910 《黑川眞賴全集》 第3卷 (金屬器財志, 國書刊行會) 再收錄
- 黑川眞道, 1902 <日本古代象嵌考> 《考古界》 2-2
- 古谷清, 1912 <江田村の古墳> 《考古學雜誌》 第2卷 5號
- 高橋健自, 1914 <京畿旅行談> 《考古學雜誌》 第5卷 3號
- 喜田貞吉, 1919 <石上神宮の神寶七枝刀> 《民族と歴史》 第1卷 1號
- 木崎愛吉, 1921 <大和石上神宮七支刀記> 《大日本金石史》 1
- 高橋健自, 1924 <日本上代の象嵌> 《工藝》 1-1
- 大場磐雄, 1929 <石上神宮寶物誌> (石上神宮); 1980년 吉川弘文館에서 復刻
- 末永雅雄, 1931 <象嵌銘文を有する銚-七枝刀> 《日本上代の武器》 (弘文堂書房); 1981년 吉川弘文館 및 1991년 木耳社에서 再刊
- 榎本杜人, 1960 <七支刀> 《アジア歴史事典》 4 (平凡社)
- 同, 1950 <石上神宮七支刀の銘文> 《日本考古學協會第六回總會研究發表要旨》
- 福山敏男, 1951 <石上神宮の七支刀> 《美術研究》 第158號
- 同, 1951 <“石上神宮の七支刀” 補考> 《美術研究》 第162號
- 同, 1952 <“石上神宮の七支刀” 再補> 《美術研究》 第165號
- * 以上の 3編은 一部修訂되어 <石上神宮の七支刀銘文>으로 제목 붙여, 同, 1968 《日本建築史研究》 (墨水書房), 또 上田正昭編, 1971 《論集・日本文化の起源》 第2卷 <日本史> (平凡社)에 再收錄
- 榎本杜人, 1952 <石上神宮の七支刀とその銘文> 《朝鮮學報》 第3輯
- 同, 1953 <七支刀の年代について> 《日本考古學協會第11回總會研究發表要旨》
- 西田長男, 1953 <上代史の基準-石上神宮の七支刀の銘文> 《大倉山論集》 2; 同, 1956 《日本古典の史的研究》 (理想社) 再收錄
- 榎本杜人, 1954 <石上神宮の七支刀> 《ミュージアム》 35

- 榎本杜人, 1955 <古代における金石文, 七支刀> 《日本考古學講座》 5 (河出書房)
- 藪田嘉一郎, 1961 <七支刀銘考釋・釋文篇> <七支刀銘考釋・考証篇> 《日本上古史研究》 5 卷 6・7號
- 三品彰英, 1962 <石上神宮の七支刀銘文>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上卷 (吉川弘文館). 2002년에 天山舍에서 復刻
- 保坂三朗・西村強三, 1963 <七支刀 解説> 《國寶》 1 (毎日新聞社)
- 金錫亨, 1963 <三韓三國の日本列島内の分國について> 《歴史科學》 1; 鄭晋和譯, 1964 《歷史評論》 165・168・169; 村山正雄・都龍雨譯, 1964 (朝鮮史研究會); 井上秀雄・旗田巍編, 1974 《古代日本と朝鮮の基本問題》 (學生社)
- 栗原朋信, 1966 <七支刀の銘文についての一解釋> 《日本歴史》 第216號; 上田正昭編, 1971 《論集・日本文化の起源》 第2卷 (日本史, 平凡社) 再收錄; 同, 1978 《上代日本對外關係の研究》 (吉川弘文館) 再收錄
- 坂元義種, 196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大王’の成立をめぐる> 《史林》 51-4; 上田正昭・井上秀雄編, 1974 《古代の日本と朝鮮》 (學生社) 再收錄; 同,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再收錄
- 同, 1968 <古代東アジアの‘大王’について -百濟大王考補論> 《京都府立大學學術報告, 人文》 20; 上田正昭・井上秀雄編,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再收錄
- 藤間生大, 1968 《倭の五王》 (岩波書店)
- 榎本杜人, 1968 <七支刀銘文再考 -青丘考古記3-> 《朝鮮學報》 第49輯; 上田正昭編, 1971 《論集・日本文化の起源》 第2卷 (日本史, 平凡社) 再收錄
- 金錫亨, 1969 《古代朝日關係史 -大和政權と任那> (朝鮮史研究會譯, 勁草書房)
- 栗原朋信, 1970 <‘七支刀’の銘文からみた日本と百濟・東晋の關係> 《歴史教育》 第18卷 4 號; 同, 1978 《上代日本對外關係の研究》 (吉川弘文館) 再收錄
- 藤間生大, 1970 <現在における思想狀況の課題として -金錫亨 《古代朝日關係史》について> 《歴史學研究》 361
- 西嶋定生, 1971 <ナゾの古代刀> 《讀賣新聞》 1971年 2月 11日字
- 上田正昭, 1971 <石上神宮と七支刀>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第9號; 原島禮二編, 1973 《論集日本歴史1 大和政權》 (有精堂) 再收錄
- 同, 1971 <解説 七支刀銘文の解讀> 《論集・日本文化の起源》 第2卷 (日本史, 平凡社)
- 岡崎敬, 1971 <日本の古代金石文 13. 泰和四年(369)百濟七枝刀銘> 《古代の日本9 研究資料》 (角川書店)
- 上田正昭, 1973 <古代史學と朝鮮 1. 日朝關係史のゆがみ> 《世界》 第330號; 上田正昭・井上秀雄編, 1974 《古代の日本と朝鮮》 (學生社) 再收錄
- 神保公子, 1973 <七支刀研究の歩み> 《日本歴史》 第301號
- 李進熙, 1973 <古代朝・日關係史研究の歪み> 《日本古代文化の成立》 (江上波夫・上田正昭

- 編); 李進熙, 1973 《好太王碑の謎》(講談社) 再收録
 同, 1973 <七支刀研究の歪み> 《好太王碑の謎》
 古田武彦, 1973 《失われた九州王朝》(角川書店)
 横山貞裕, 1973 <七支刀銘文を再讀して> 《讀賣新聞》 1973年 10月 18日 夕刊
 菟田俊彦, <倭王旨の擬定と天孫本紀 -七支刀新見-> 《國學院雜誌》 第75卷 12號
 李進熙, 1973 <七支刀銘文の總合調査を -横山貞裕氏の批判に答える-> 《讀賣新聞》 夕刊
 1973年 11月 6日 夕刊; 同, 1980 《廣開土王碑と七支刀》(學生社) 再收録
 上田正昭, 1973 《日本の歴史2 大王の世紀》(小學館)
 同, 1973 <倭國から日本へ> 《日本古代文化の成立》(毎日新聞社)
 たなかしげひさ, 1974 <石上神宮の七支刀と四天王寺の丙子椒林劍> 《神道史研究》 22-3
 李進熙, 1974 <七支刀銘文の調査を -確認100年記念の公開に寄せて-> 《毎日新聞》 夕刊
 1974年 10月 21日 夕刊; 同, 1980 《廣開土王碑と七支刀》(學生社) 再收録
 佐藤興治, 1974 <七支刀研究の略史> 《日本美術工藝》 第434號
 李進熙, 1974 <七支刀研究の百年> 《歴史讀本》 12月號; 同, 1980 《廣開土王碑と七支刀》
 (學生社) 再收録
 田口賢三, 1975 《邪馬台國の發見 -卑彌呼と七支刀》(新人物往來社)
 李進熙, 1975 <再び七支刀の調査を訴える -鈴木治氏の論評によせて> 《讀賣新聞》 夕刊
 1975年 8月 6日 夕刊; 同, 1980 《廣開土王碑と七支刀》(學生社) 再收録
 川口勝康, 1975 <七支刀銘> 《書の日本史》 1 (平凡社)
 神保公子, 1975 <七支刀の解釋をめぐって> 《史學雜誌》 第84編 第11號
 佐伯有清, 1975 <七支刀の銘文> 《北海道新聞》 1975年 12月 2日 夕刊
 上田正昭, 1976 <倭國の世界> 《新書日本史》 1 (講談社)
 佐伯有清, 1976 <七支刀の銘文を讀む -‘宣供侯王’の新解釋-> 《別冊週刊讀賣》 3-1
 同, 1976 <七支刀銘文の問題點> 《北海道新聞》 1976年 1月 13日 夕刊; 同, 1977 《日本古代史の風貌》(吉川弘文館) 再收録
 同, 1976 <“供供”の謎を解く -七支刀銘文の新解釋-> 《歴史書通信》 12; 同 《日本古代史の風貌》 再收録
 同, 1976 <ひきがえると七支刀(1)> <ひきがえると七支刀(2)> 《歴史地理教育》 248・249
 號; 同 《日本古代史の風貌》 再收録
 同, 1976 <七支刀銘文その後> 《北海道新聞》 1976年 4月 15日 夕刊
 同, 1977 《古代史演習 七支刀と廣開土王碑》(吉川弘文館)
 同, 1988 《三國史記倭人傳》(岩波文庫)
 坂元義種, 1976 <朝鮮(金石文)> 《考古學ゼミナール》(山川出版社); 同, 1978 《百濟史の研究》(塙書房) 再收録
 金廷鶴, 1977 《任那と日本》 <神功皇后の傳説 -七支刀について-> (日本の歴史 別卷1, 小學

館)

村上英之助, 1978 <考古學から見た七支刀の製作年代> 《考古學研究》 第25卷 第3號

李進熙, 1978 <好王太碑と七支刀> 《日本史の謎と發見》 3 (毎日新聞社); 同, 1980 《廣開土王碑と七支刀》 (學生社) 再收錄

栗原朋信, 1978 <“書紀”神功・應神紀の‘貴國’の解釋からみた日本と百濟の關係 -‘七支刀’の銘文をめぐる問題-> <“泰和四年”時代の百濟と東晉の關係> 《古代東アジア史論集》 下卷 (吉川弘文館); 同, 1978 《上代日本對外關係の研究》 (吉川弘文館) 再收錄

川口勝康, 1979 <五世紀史と金石文> 《シンポジウム鐵劍の謎と古代日本》 (新潮社)

村山正雄, 1979 <‘七支刀’銘字一考 -樞本論文批判を中心として-> 《朝鮮歴史論集》 上卷 (旗田巍先生古稀記念會編, 龍溪書舍); 同, 1996 《石上神宮七支刀銘文圖錄》 (吉川弘文館) 再收錄

同, 1979 <“七支刀”銘字調査の一端> 《三上次男博士頌壽記念東洋史・考古學論集》 (青山學院大學史學研究室); 同朋社 再刊; 同, 1996 《石上神宮七支刀銘文圖錄》 (吉川弘文館) 再收錄

宋世丸, 1980 <百濟七支刀銘文の新しい解釋> 《社會科學論文集》 第1集 (在日朝鮮人科學者協會關東支部)

鈴木靖民, 1980 《增補古代國家史研究の歩み》 (3. ヤマト政權の生成 -七支刀の意味-, 新人物往來社)

坂元義種, 1980 <文字のある考古學史料の諸問題 -七支刀とその銘文-> 《ゼミナール日本古代史》 下 (光文社)

李丙燾, 1980 《韓國古代史研究 -古代史上の諸問題-> (百濟七支刀考, 學生社. 原載는 同, 1976 《韓國古代史研究》, 서울: 博英社)

金廷鶴, 1981 《百濟と倭國》 (漢城時代 -七支刀と百濟-, 六興出版)

宮崎市定, 1981 <七支刀> 《洛味》 345號; 同, 1986 <七支刀の年代> 《獨歩吟》 (岩波書店) 再收錄; 同, 1991 《宮崎市定全集》 21 (岩波書店) 再收錄

山尾幸久, 1981 <七支刀の銘について> 《村上四男博士和歌山大學退官記念 朝鮮史論文集》 (開明書院)

佐々木稔, 1981 <銘文鐵劍の材質と製法> 《月刊百科》 229 (平凡社)

同, 1982 <七支刀と百練鐵> 《鐵と鋼》 68-1

鈴木靖民, 1982 <四世紀後半の百濟と日本の關係 -七支刀銘を中心として-> 《歴史公論》 第8卷 第4號 (通卷77號)

川口勝康, 1982 <七支刀について -冒頭の年號を中心にして-> (同上)

宋世丸, 1982 <古代朝鮮の製鐵技術と百濟七支刀> (同上)

宮崎市定, 1982 <七支刀銘文試釋> 《東方學》 第64輯; 同, 1988 《古代大和朝廷》 (筑摩書房) 再收錄; 同, 1991 《宮崎市定全集》 21 (岩波書店) 再收錄

- 村山正雄, 1982 <七支刀銘文の‘侯王’について> 《朝鮮學報》 第104輯; 同, 1996 《石上神宮七支刀銘文圖錄》(吉川弘文館) 再收録
- 山尾幸久, 1983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Ⅲ編 東アジア史, 5章 倭王權と東アジア, 2節 石上神宮藏七支刀の銘文, 岩波書店)
- 宮崎市定, 1983 《謎の七支刀 -五世紀の東アジアと日本-》(中公新書); 1992년에 中公文庫 再收録; 同, 1993 《宮崎市定全集》 21 (岩波書店) 再收録
- 鈴木靖民, 1983 <石上神宮七支刀銘についての一試論> 《日本史學論集》 上卷 (坂本太郎博士頌壽記念, 吉川弘文館)
- 稲田晃, 1984 <七支刀の製作年代> 《古代研究》 27
- 村尾次郎, 1984 <上古鐵製刀劍にまつはる諸問題 -石上神宮の七支刀と川上部(裸伴)を中心に-> 《大倉山論集》 17
- 福永光司, 1985 <石上神宮の七支刀> 《京都新聞》 1985年 2月 7・8日号; 同, 1987 《道教と古代日本》(人文書院) 再收録
- 平野邦雄, 1985 《大化前代政治過程の研究》(第3章 金石文の史實と倭五王の通交, 第1節 石上七支刀銘, 吉川弘文館)
- 村山正雄, 1985 <‘七支刀’に關する宮崎市定論文について> 《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論文集 歴史編》(平凡社); 同, 1996 《石上神宮七支刀銘文圖錄》(吉川弘文館) 再收録
- 山尾幸久, 1986 《日本古代の國家形成》(大和書房)
- 李進熙, 1987 <日本にある百濟の金石史料> 《馬韓・百濟文化研究の成果と課題》(第9回馬韓百濟文化國際學術會議, 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 山尾幸久, 1988 《古代の日朝關係》(前篇3章1節 石上神宮七支刀銘の百濟王と倭王, 塙書房)
- 高寛敏, 1988 <百濟近仇首王の對倭外交> 《朝鮮學報》 第133輯
- 村山正雄, 1989 <石上神宮・七支刀銘文發見の經緯と若干の新知見> 《朝鮮學報》 135; 同, 1996 《石上神宮七支刀銘文圖錄》(吉川弘文館) 再收録
- 上田正昭, 1991 <石上の神寶と祭祀> 《古代傳承史の研究》(塙書房)
- 坂元義種, 1992 <七支刀銘文の釋文> 《京都府立大學女子短期大學部國語科研究報告》 16
- 王仲殊, 1992 <石上神宮の七支刀> 《中國から見た古代日本》(學生社)
- 延敏洙, 1994 <七支刀銘文の再検討 -年號の問題と製作年代を中心に-> 《年報 朝鮮學》 4 (九州大學朝鮮學研究會)
- 同, 1994 《日本古代國家形成期の對外關係研究》(第1部 四・五世紀の倭國と東アジア 第1章 七支刀銘文にみえる對外關係, 九州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博士學位論文)
- 藤井稔, 1995 <影印“外來金器文字記”資料並びに解題> 《朝鮮學報》 第155輯
- 同, 1995 <菅政友による七支刀銘文の釋讀について -‘大和國石上神宮寶庫所藏六叉刀’と“外來金器文字記”の紹介を兼ねて-> 《古墳文化とその傳統》(西谷眞治先生古稀記念論文集, 勉誠社)

高口啓三, 1996 <石上神宮七支刀銘文の解釋> 《古代學研究》 133

村山正雄, 1996 《石上神宮七支刀銘文圖録》(吉川弘文館)

◆圖版編◆釋文編

- ・七支刀銘釋文比較表について
- ・七支刀銘釋文比較表

◆論文編

- ・七支刀銘字一考
- ・七支刀銘字調査の一端
- ・七支刀銘文の‘侯王’について
- ・‘七支刀’に關する宮崎市定論文について
- ・七支刀銘文發見の經緯と若干の新知見
- ・(補論 1)<坂元義種論文> 百濟侯王制の存在についての再批判
- ・(補論 2)<宮崎市定論文> とくに銘文裏面部の讀み方について
- ・(補論 3)<山尾幸久論文> その道教説の根據について

[追録]<外來金器文字記> その他新資料の發見

[圖版]<外來金器文字記> <石見見聞志> (抄)菅家所藏

遠藤順昭, 1997 <石上神宮七支刀の銘字について> 《堅田直先生古稀記念論文集》(眞陽社)

鈴木靖民, 1999 <同時代史料で讀む激動の東アジア -七支刀と廣開土王碑-> 《This is 讀賣》 '99年 2月號

木村誠, 2000 <百濟史料としての七支刀銘文> 《人文學報》 第306號(東京都立大人文學部)

吉田晶, 2001 《七支刀の謎を解く -四世紀後半の百濟と倭-> (新日本出版社)

倉西裕子, 2003 <“七支刀”銘文解釋をめぐる一試論> 《東アジアの古代文化》 第117號

川口勝康, 1993 <刀劍の賜與とその銘文> 《日本通史》 第2卷(古代1, 岩波講座)

奈良國立博物館, 2004 《七支刀と石上神宮の神寶》

東野治之, 2004 <七支刀銘文の“聖音”と“聖晋”> 《日本古代金石文の研究》(岩波書店)

仁藤敦史, 2004 <ヤマト王權の成立> 《東アジアにおける國家の形成》(日本史講座 第1卷, 東京大學出版會)

日本에서의 廣開土王碑 研究 文獻目錄

- 青江秀, 1887 <東扶餘永樂太王碑名之解> (1887年 7月)
- 青江秀, 1887 <高句麗第十九世廣開土王墓碑之解> (寫本, 早稻田大學圖書館, 1887年 7月)
- 橫井忠直, 1884 <高句麗古碑考(“明治寫”本)> (宮內廳書陵部藏, 1884年)
- 橫井忠直, 1884 <高句麗古碑考(“大正寫”本)> (宮內廳書陵部藏, 1884年)
- 橫井忠直, 1884 <高句麗古碑考(寫本)> (九州大學圖書館藏, 1884年 7月)
- 橫井忠直, 1884 <高句麗古碑考> (東京都立中央圖書館藏, 1884年 12月)
- 橫井忠直, 1884 <高句麗古碑考> (京都大學圖書館藏, 1884年 12月)
- 橫井忠直, 1888 <高句麗古碑考> (京都大學圖書館藏, 1888年 10月)
- 橫井忠直, 1884 <高句麗古碑考> (早稻田大學圖書館藏, 1884年 12月)
- 谷森善臣, 1886 <高句麗廣開土境好太王墓碑銘> 2冊 (宮內廳書陵部藏, 1886年 3月寫)
- 橫井忠直, <高句麗古碑考> (大東急記念文庫藏, 時期不明)
- 谷森善臣, 1886 <高句麗好太王墓碑銘> (宮內廳書陵部藏, 1886年)
- 萩原巖雄, 1886 <東扶餘永樂太王碑銘> (水谷悌二郎藏, 1886年 3月)
- 萩原巖雄(雕蟲居寫本), 1885 <東扶餘永樂太王碑銘> (學習院大學圖書館, 1885年 1月)
- 不明 <永樂王墓碑釋文> (水谷悌二郎藏)
- 飯田武鄉, 1886 <東扶餘永樂太王碑銘附竹里山人考証> (宮內廳書陵部藏, 1886年)
- 阿部弘藏, 1888 <征韓考 年代考一> 《文》 1~11 (1888年)
- 邨岡良弼, 1888 <高句麗古碑> 《如蘭社話》 卷8 (1888年 11月)
- 橫井忠直, 1888 <高句麗古碑文> (青江本收錄, 國會圖書館藏, 1888年)
- 中村忠誠, 1889 <高句麗古碑徵> (東京都立中央圖書館藏, 1889年 6月)
- 1889 《會餘錄》 第5集 <高句麗碑出土記> <高句麗古碑考> <高句麗古碑釋文> (1889年 6月); 開明書院, 1977年 12月 復刻
- 橫井忠直 <高句麗碑出土記> (同上)
- 橫井忠直 <高句麗古碑考> (同上)
- 橫井忠直 <高句麗古碑釋文> (同上)
- 參謀本部野紙 <高句麗古碑文> (京都大學圖書館藏, 時期不明)
- 不明 <高句麗好太王碑文> (宮內廳書陵部藏, 時期不明)
- 不明 <高麗古碑考> (無窮會圖書館藏, 時期不明)
- 菅政友, 1891 <高麗好太王碑銘考> 《史學雜誌》 第22~25號
- 菅政友, 1893 《任那考》 (1893年 5月)

- 那珂通世, 1893 <高句麗古碑考> 《史學雜誌》 第47~49號
- 吉田東伍, 1893 《日韓古史斷 全》(第六章 高句麗及び鮮卑, 富山房書店)
- 三宅米吉, 1898 <高麗古碑考> 《考古學會雜誌》 第2編 第1~3號
- 三宅米吉, 1898 <高麗古碑考追加> 《考古學會雜誌》 第2編 第5號; 同, 1929 《文學博士三宅米吉著述集》(目黑書店) 再收錄
- 白鳥庫吉, 1905 <滿州地名談 -附好太王の碑文に就て-> 《白鳥庫吉全集》 第5卷
- 白鳥庫吉, 1905 <滿州地名談 -附好太王の碑文に就て-> 《中央公論》 第20卷 第8號
- 浜田耕作, 1906 <高句麗好太王碑の話> 《早稻田興風學會雜誌》 10-3; 同, 1987 《浜田耕作著作集》 第七卷(同朋社出版) 再收錄
- 菅政友, 1907 <任那考> 《菅政友全集》
- 大森松四郎, 1909 <高句麗永樂太王古碑> (再版)
- 鳥居龍藏, 1910 《南滿州調查報告》
- 津田左右吉, 1913 <好太王征服地域考> 《朝鮮歷史地理》 第1卷
- 箭內互, 1913 <高句麗疆域沿革考> 《史學雜誌》 1-1
- 關野貞, 1914 <滿州輯安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跡> 《考古學雜誌》 第5卷 第3・4號
- 淺見倫太郎, 1914 <日韓交渉史蹟に關する二千年來の金石遺文> 《朝鮮及滿州之研究》 第1輯(朝鮮雜誌社 《朝鮮及滿州》 臨時增刊)
- 種村宗人, 1915 <高句麗好太王碑說明> 《日本古代史》
- 今西龍, 1915 <好太王碑文> 《訂正增補大日本時代史》(古代上)
- 今西龍, 1915 <廣開土境好太王陵碑に就て> (同上 下卷)
- 那珂通世, 1915 <高句麗古碑考> 《那珂通世遺書》
- 朝鮮總督府, 1915 <高句麗好太王碑縮本・同解説> 《朝鮮古蹟圖譜》 第1冊
- 黑板勝美, 1918 <高句麗好太王碑縮本・同解説> 《朝鮮彙報》
- 黑板勝美, 1919 <好太王碑に就て> 《歷史地理》 第32卷 第5號
- 前間恭作, 1919 <輯安高句麗廣開土王陵碑> 《朝鮮金石總覽》 上
<朝鮮金石說明> 《朝鮮總督府月報》 4-9(時期不明)
- 權藤成卿, 1922 《南淵書》
- 葛城末治, 1923 <朝鮮金石文> 《朝鮮史講座》
- 葛城末治, 1923 <廣開土王陵碑圖版・釋文・解説> 《書道全集》 第6卷
- 今西龍, 1927 <廣開土境好太王陵碑に就て> 《朝鮮古史の研究》; 1970年, 國書刊行會 複製
- 青柳南冥, 1927 <好太王古碑の説明> 《朝鮮國寶遺物及古蹟大全》
- 太田亮, 1928 <高麗好太王碑> 《日韓古代史資料》
- 八木槇三郎, 1929・1930 <鴨綠江畔の好太王碑と將軍塚 1~3> 《亞東》 第6卷 第11號, 第7卷 2・3號

- 島田好, 1930・1931 <高句麗好太王碑考 上, 下, 下の二> 《滿蒙》 第11卷 第11號, 第12卷 6・7號
- 朝鮮史編修會, 1932 <高句麗好太王碑> 《朝鮮史》 第1編 第1號
- 竹田榮喜, 1933 <好太王碑と南淵書> 《歷史公論》 第2卷 第4・5號
- 葛城末治, 1935 <三 輯安高句麗廣開土王陵碑> 《朝鮮金石攷》 (大阪屋號書店)
- 末松保和, 1935 <好太王碑の辛卯について> 《史學雜誌》 第46編 第1號
- 三宅俊成, 1935 <安東省輯安縣縣城附近高句麗の遺蹟> 《滿蒙》 第16卷 第9號
- 池内宏, 1935 <通溝二日半 滿州國安東省輯安縣に於ける高句麗の遺跡> 《東洋》 第38卷 第12號
- 滿鐵總務部資料課, 1936 <輯安廣開土境平安好太王陵碑> 《滿州金石志稿》 第1冊
- 藤田亮策, 1936 <滿州國安東省輯安縣に於ける高句麗遺跡の調査> 《靑丘學叢》 23
- 池内宏, 1938 <廣開土王碑發見の由來と碑石の現状> 《史學雜誌》 第49編 第1號
- 池内宏, 1938 <滿州國安東省輯安縣に於ける高句麗の遺蹟> 《考古學雜誌》 第28卷 第3號
- 藤田亮策, 1938 <滿州に於ける高句麗遺跡> 《朝鮮》 第272號
- 池内宏, 1938 <廣開土王碑> 《通溝》 卷上
- 池内宏・梅原末治, 1940 <滿州國通化省輯安縣に於ける高句麗の壁畫墳> 《考古學雜誌》 第30卷 第9號
- 義山泰秀, 1941 <高句麗好太王碑に關する明治年間の二三の刊本について> 《書物同好會會報》 第13號
-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 酒井改藏, 1955 <好太王碑面の地名について> 《朝鮮學報》 第8輯
- 水谷悌二郎, 1959 <好太王碑考> 《書品》 100號
- 松井如流, 1959 <好太王碑小引> 《書品》 100號
- 末松保和, 1959 <高句麗好太王碑文> 《歷史教育》 7-4; 同, 1963 《日本上代史管見》 (自家版) 再收録; 同, 1996 《高句麗史と朝鮮古代史》 (末松保和著作集3, 吉川弘文館) 再收録
- 青梧桐生, 1960 <高句麗好太王碑> 《書道》 6-5
- 三品彰英, 1962 <高句麗廣開土王陵碑>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証》 上卷
- 末松保和, 1963 <上代史研究の外國史料の解説 -附高句麗好太王碑文> 《日本上代史管見》
- 金錫亨, 1964 <三韓三國の日本列島内分國について> 《朝鮮研究年報》 6
- 末松保和, 1966 <高句麗廣開土王碑文の調査研究> 《中央公論》 200-8
- 梅原末治, 1966 <輯安好太王碑> 《朝鮮古文化綜鑑》 第4卷
- 朴時亨, 1967 <廣開土王の陵碑について> 《今日の朝鮮》 127
- 朴時亨, 1967 <廣開土王陵碑> 《朝鮮研究年報》 9
- 朴慶植, 1968 <朝鮮學會第18回大會研究發表要旨: 廣開土王碑文について> 《朝鮮學報》 第46輯

- 井上秀雄, 1969 <任那日本府の再検討> 《大阪工業大學中央研究所所報》 第2號
- 金錫亨, 1969 <“廣開土王陵碑文”にあらわれた朝日關係> 《古代朝日關係史》 (勁草書房)
- 梅原末治, 1969 <日韓併合の期間に行なわれた半島の古蹟調査と保存事業にたずさわつた一考古學徒の回想録> 《朝鮮學報》 第51輯
- 旗田巍, 1971 <好太王碑文の讀み方> 《歴史讀本》 9月號
- 中塚明, 1971 <近代日本史學史における朝鮮問題 -とくに“廣開土王陵碑”をめぐる-> 《思想》 第561號
- 李進熙, 1972 <廣開土王陵碑文の謎 -初期朝日關係史上の問題點-> 《思想》 第575號
- 旗田巍, 1972 <偽作の思想的意味 -好太王碑文と“南淵書”> 《讀賣新聞》 1972年 6月 3日字
- 佐伯有清, 1972 <高句麗廣開土王碑をめぐるナゾ -解明された酒匂大尉の周邊- 上・下> 《北海道新聞》 1972年 11月 10日・11日字
- 李進熙, 1972 <考古學研究會第十八回總會研究報告要旨: 廣開土王陵碑研究上の諸問題> 《考古學研究》 72
- 佐伯有清, 1972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再検討のための序章 -參謀本部と朝鮮研究-> 《日本歴史》 第287號
- 佐伯有清, 1972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再検討 -とくに‘辛卯年’の倭關係記事をめぐる-> 《續日本古代史論集》 上卷 (吉川弘文館)
- 前澤和之, 1972 <廣開土王陵碑文をめぐる二・三の研究 -辛卯年部分を中心として-> 《續日本紀研究》 第159號
- 李進熙, 1972 <廣開土王陵碑の謎 -初期朝日關係研究史上の問題點-> 《思想》 第575號
- 井上秀雄, 1972 《任那日本府と倭》 (東出版)
- 金達壽, 1972 <日本人學者に根づいた皇國史觀> 《中國新聞》 1972年 8月 15日字
- 金貞培, 1972 <廣開土王陵碑文> 《古代文化と歸化人》
- 李進熙, 1972 <廣開土王陵碑研究史上の問題點 -1910年代までの中國での研究をめぐる-> 《考古學雜誌》 第58卷 1號
- 古田武彦, 1972 <高句麗好太王碑文の新事實 -李進熙説への批判を中心として-> 《史學雜誌》 81-12
- 井上秀雄, 1972 <高句麗の南下と廣開土王陵碑> 《古代朝鮮》
- 李進熙, 1972 《廣開土王陵碑の研究》 (吉川弘文館)
- 金貞培, 1972 <韓日古代關係史の一斷面 -廣開土王陵碑文の問題點-> 《アジア公論》 第1卷 3號
- 李進熙, 1973 <なぜ“廣開土王陵碑文”は改ざんされたか> 《流動》 第5卷 1號
- 李丙燾, 1973 <韓國古碑文の解釋 -廣開土王碑と北漢山碑を中心として> 《アジア公論》 第2卷 2號
- 李進熙, 1973 <廣開土王陵碑の國際調査を> 《毎日新聞》 1973年 2月 20日字

- 上田正昭, 1973 <碑文の謎> 《大王の世紀》(日本の歴史2)
- 永井哲雄, 1973 <高句麗廣開土王碑文の招來者をめぐる一・二の史料追加について> 《日本歴史》 第296號
- 井上光貞, 1973 <朝鮮史家の日本古代史批判> 《古代史講座月報》 13
- 井上秀雄, 1973 <書評: 李進熙著 廣開土王碑の研究> 《史林》 第56卷 第3卷
- 佐伯有清, 1973 <高句麗廣開土王の碑文と日本> 《古代史の謎を探る》(讀賣新聞社); 上田正昭・井上秀雄編, 1974 《古代の日本と朝鮮》(學生社) 再收録
- 井上光貞, 1973 <今週の讀書: 王碑のナゾ> 《毎日新聞》 1973年 5月 7日字
- 李進熙, 1973 <王碑のナゾをめぐって井上光貞氏の所論に答える> 《毎日新聞》 夕刊 1973年 5月 15日字
- 旗田巍, 1973 <廣開土王陵碑文の諸問題> 《アジアレビュー》 通卷14號
- 梅原末治, 1973 <高句麗廣開土王陵碑に關する既往の調査と李進熙氏の同碑の新説について> 《日本歴史》 第302號
- 千寛宇, 1973 <廣開土王碑文の新しい解釋> 《アジア公論》 第2卷 5號
- 金鐘武, 1973 <わたしが見た廣開土王碑 -碑文偽造の可能性は少ない-> 《アジア公論》 第2卷 5號
- 原島禮二, 1973 <大和王權> 《論集日本歴史》 1
- 坂元義種, 1973 <論文評: 佐伯有清 “高句麗廣開土王碑文の再検討” -とくに‘辛卯年’の倭關係記事をめぐって-> 《史學雜誌》 82-6
- 古田武彦, 1973 <好太王碑文‘改削’説の批判 -李進熙氏の《廣開土王陵碑の研究》について> 《史學雜誌》 82-6
- 李進熙, 1973 《好太王碑の謎》(講談社)
- 古田武彦, 1973 <高句麗王碑と倭國の展開> 《失われた九州王朝》
- 千寛宇, 1973 <廣開土王陵碑と任那問題> 《韓》 第15號
- 旗田巍, 1973 <古代日朝關係史の研究 -廣開土王陵碑問題を中心にして-> 《朝鮮史研究會會報》 33
- 浜田耕策, 1973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虚像と實像> 《日本歴史》 第304號
- 佐伯有清, 1973 <高句麗廣開土王碑をめぐる諸問題 -李進熙氏の所論によせて-> 《歴史學研究》 401
- 佐伯有清, 1973 <青江秀と廣開土王碑文研究のナゾ -北海道に來ていた最初の碑文研究者(上・下)-> 《北海道新聞》 1973年 11月 9日・10日字
- 李進熙, 1973 <廣開土王陵碑と酒匂景信> 《日本歴史》 第307號
- 李進熙, 1973 <廣開土王陵碑のこと>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18
- 李進熙, 1973 <廣開土王陵碑歴史と虚構> 《倭から日本へ》
- 李進熙, 1973 <謎に包まれた廣開土王碑> 《古代の日本》(日本の歴史 1)

- 李進熙, 1973 <古代朝日關係史研究の歪み> 《日本古代文化の成立》
- 金在鵬, 1973 <好太王碑文叙法考> 《朝鮮學報》 第66輯
- 佐伯有清, 1973 <廣開土王陵碑文研究の現状と課題> 《史學雜誌》 82-12
- 黛弘道, 1973 <好太王碑をめぐる> 《歴史と地理》 219
- 金錫亨, 1974 <三韓三國の日本列島内分國について> 《古代日本と朝鮮の基本問題》
- 井上清, 1974 <《好太王碑の謎》 李進熙著> 《現代の眼》 15-3
- 直木孝次郎, 1974 <不動の定説に挑戦 日本古代史の根本的再検討が必要: 李進熙 《好太王碑の謎》> 《日本讀書新聞》 1974年 1月 21日字
- 星野良作, 1974 <最近における廣開土王碑文の研究 -李進熙氏の提説をめぐる-> 《史元》 第18號; 後예 星野著書(1991)에 再收錄
- 金在鵬, 1974 <好太王碑と日本國家の起源 -江上波夫氏に-> 《韓》 3-3
- 浜田耕策, 1974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研究 -碑文の構造と史臣の筆法を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1
- 中塚明, 1974 <日本近代史の展開と‘朝鮮史像’ -とくに參謀本部と歴史研究のかかわりについて-> (同上)
- 佐伯有清, 1974 <高句麗廣開土王陵文研究と紀年論争 -參謀本部の古代日朝關係史觀-> (同上)
- 李進熙, 1974 <古代朝日關係史問題雜感> (同上)
- 井上清, 1974 <著者への手紙・讀書室: 《好太王碑の謎》 李進熙著> 《現代の眼》 3月號
- 西嶋定生, 1974 <廣開土王碑辛卯年條の讀法について> 《圖說日本の歴史》 第3卷月報 (1974年 6月)
- 中塚明, 1974 <批評と紹介: 古代朝・日關係史再検討への問題點 李進熙著 《好太王碑の謎》> 《統一評論》 113號
- 井上光貞, 1974 <日本古代史におけるひとつの問題點> 《教育手帳》 491 (日本書籍)
- 星野良作, 1974 <佐伯有清 《碑文廣開土王碑》> 《圖書新聞》 第1280號 (1974年 9月 21日字)
- 武田幸男等, 1974 <座談會 廣開土王陵碑と古代東アジア>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 浜田耕策, 1974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研究 -碑文の構造と史官の筆法を中心として-> (同上)
- 旗田巍, 1974 <廣開土王陵碑文の諸問題> (同上)
- 佐伯有清, 1974 <高句麗廣開土王碑文研究と紀年論争 -參謀本部の古代日朝關係史觀-> (同上)
- 鄭寅普, 1974 <廣開土境平安好太王陵碑文釋略> 《古代日本と朝鮮の基本問題》 (井上秀雄・旗田巍編)
- 李進熙, 1974 <廣開土王陵碑をめぐる諸問題> 《史學雜誌》 83-7

- 李進熙, 1974 <廣開土王陵碑研究の現状と課題> 《歴史學研究》 410
- 崔書勉, 1974 <太王陵古磚將來記> 《韓》 3-8
- 佐伯有清, 1974 《研究史 廣開土王碑》(吉川弘文館)
- 星野良作, 1974 <廣開土王碑をめぐる論争の進展 -激論のなかで明らかになった諸點-> 《歴史と旅》 第1號 第2號; 星野著作(1991) 再收録
- 鈴木靖民, 1974 <古代朝日關係史研究の現況> 《史元》 16號
- 中塚明, 1974 <參謀本部と歴史研究 -近代日本における‘朝鮮史像’と關連して->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21
- 中塚明, 1974 <古代朝・日關係史再検討への問題點> 《統一評論》 113
- 鬼頭清明, 1975 <近年の古代日朝關係史研究の諸問題 -論點整理のためのノート-> 《史學雜誌》 84-4
- 村山光一, 1975 <古代日朝關係史研究の現状と課題> 《歴史評論》 302
- 後藤孝典, 1975 <廣開土王碑 -李進熙說に對するさまざまな反應について-> 《東アジアの古代文化》 創刊號
- 李進熙, 1974 《廣開土王陵碑の研究》(増補版, 吉川弘文館)
- 李進熙, 1975 <日本近代史學と“任那日本府” -その歪められた研究史を中心として-> 《東アジアの古代文化》 第4號
- 金在鵬, 1975 <好太王碑文の叙法と解釋> 《日本古代國家と朝鮮》
- 林屋辰三郎, 1975 <古代の日本と朝鮮 -廣開土王陵碑前後->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第26號
- 平野邦雄, 1975 <廣開土王陵碑の問題點> 《ヤマト王權と朝鮮》
- 泊勝美, 1975 <高句麗好太王碑の謎> 《任那日本府はなかった》
- 金在鵬, 1975 <私の日本古代史研究 -好太王碑文と私-> 《朝日アジアレビュー》 6
- 佐伯有清, 1975 <明治二十一年本 高句麗古碑考の成立> 《名古屋大學日本史論集》 下
- 佐伯有清, 1975 <1. 好太王碑文は何を語るか> 《海外交渉史の視點》(森克己・田中健夫編, 日本書籍)
- 佐藤治郎, 1975 <佐伯有清著《研究史 廣開土王碑》> 《歴史評論》 302
- 犬丸義一, 1976 <近代史家のみた古代史論争> 《季刊 三千里》 第7號
- 李進熙, 1976 <好太王碑と近代史學> 《季刊 三千里》 第7號
- 岡田英弘, 1976 <廣開土王と仁德天皇> 《倭國の時代 -現代史としての日本古代史->
- 植村清二, 1976 <古代史おぼえ書> 《諸君》 1月號
- 高斗東, 1976 <廣開土王碑文詳釋> 《親和》 267號
- 佐伯有清, 1976 <横井忠直と“高麗古碑本の來由”の出現> 《日本歴史》 335
- 佐伯有清, 1976 《廣開土王碑と參謀本部》(吉川弘文館)
- 鬼頭清明, 1976 <近年の古代日朝關係史研究の諸問題> 《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

- (校倉書房)
- 高斗東, 1976 <廣開土王陵碑文詳釋> 《月刊文化財》 52
- 新藏正道, 1976 <廣開土王陵碑永樂六年條に關する考察> 《ヒストリア》 第155號
- 水谷悌二郎, 1977 《好太王碑考》(解説・末松保和, 開明書院)
- 李進熙, 1977 《好太王碑と任那日本府》(學生社)
- 中塚明, 1977 <近代日本史學における朝鮮問題 -とくに“廣開土王陵碑”をめぐる-> 《好太王碑と任那日本府》(李進熙著, 學生社)
- 旗田巍, 1977 <廣開土王陵碑文の諸問題> (同上)
- 鬼頭清明, 1977 <近年の古代日朝關係史研究の諸問題> (同上)
- 犬丸義一, 1977 <近代史家のみた古代史論争> (同上)
- 佐伯有清, 1977 《七支刀と廣開土王碑》(吉川弘文館)
- 金鍾武, 1977 <好太王碑について -古典解釋の一管見-> 《韓》 60
- 星野良作, 1977 <日本古代史の基本的問題 -廣開土王碑の謎-> 《研究と評論》 第18號; 星野著作(1991) 再收録
- 金廷鶴, 1977 <高句麗の廣開土王碑> 《任那と日本》
- 佐伯有清, 1977 <廣開土王碑文研究への警鐘> 《古代東アジアと日本》
- 金仁顯, 1977 <廣開土王碑の改ざんについて -金鍾武博士の新しい見解は誤り-> 《アジア公論》 第6卷 5號
- 金仁顯, 1978 <好太王碑文の改ざんの直接証據>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5
- 末松保和, 1978 <好太王碑と私> 《古代東アジア史論集》 上卷(吉川弘文館); 同, 1996 《高句麗と朝鮮古代史》(末松保和著作集3, 吉川弘文館)
- 笠井俊人, 1978 <廣開土王碑に對する石灰塗付作戰説への疑問> 《古代東アジア史論集》 上卷
- 武田幸男, 1978 <高句麗好太王碑文にみえる歸王について> 《古代東アジア史論集》 上卷(吉川弘文館)
- 武田幸男, 1978 <廣開土王碑文辛卯年條の再吟味> 《古代史論叢》 上卷(吉川弘文館)
- 末松保和, 1979 <好太王碑文研究の落穂> 《日本歴史》 368
- 武田幸男, 1979 <高句麗廣開土王紀の對外關係記事> 《三上次男博士頌壽紀念論集》
- 武田幸男, 1979 <廣開土王碑からみた高句麗の領域支配> 《東洋文化研究所紀要》 78
- 友田吉之助, 1978 <好太王碑文と顓頊曆紀年法> 《島根醫大紀要》 1
- 田中俊明, 1979 <古代日本の‘南朝鮮經營’説の現段階 -金錫亨論文の論點を中心として-> 《統一評論》 第12號
- 李進熙, 1980 《廣開土王碑と七支刀》(學生社)
- 坂元義種, 1980 <文字のある考古學史料の諸問題> <好太王碑文 -碑文第二段の記述法からみた辛卯年記事を中心に-> 《ゼミナール日本古代史》(下光文社)

- 鈴木靖民, 1980 <ヤマト政権と朝鮮> 《古代國家史研究の歩み》(新人物往來社)
- 鄭杜熙, 1980 <廣開土王陵碑辛卯年記事の再検討> 《アジア公論》 第9巻 8號
- 末松保和, 1981 <好太王碑文研究の流れ -水谷悌二郎氏の研究を中心として->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3 (吉川弘文館); 同, 1996 《高句麗と朝鮮古代史》(末松保和著作集3, 吉川弘文館) 再收録
- 徳野ほか, 1980 <好太王碑にみる日朝關係> 《市民の古代》 2
- 田中俊明, 1981 <高句麗の金石文>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8
- 中國鐵道, 1981 <好太王碑寫真> 《中國鐵道の旅》
- 全浩天, 1981 <第五章 廣開土王碑文をめぐる朝鮮觀> 《古代史にみる朝鮮觀》
- 白崎昭一郎, 1981 <廣開土王碑論序説> 《五條古代文化》 第21號
- 奥田尚, 1981 <高句麗好太王碑文解釋試案> 《追手門學院大學文學部紀要》 15
- 李亨求, 1982 <偽作‘倭’字考 1~13> 《統一日報》 1982年 1月 8日~1月 27日字
- 金子鷗亭, 1982 <古碑帖臨書精選・第二期第二十四卷 好太王碑 燧寶子碑> (日貿出版社)
- 浜田耕策, 1982 <好太王碑文の一, 二の問題> 《歴史公論》 第8巻 第4號
- 李亨求・朴魯姬, 1982 <廣開土大王陵碑文のいわゆる“辛卯年”記事> 《アジア公論》 第11巻 10・11月號
- 古田武彦, 1982 <劃期に立つ好太王碑(講演録)> 《市民の古代》 4; 同, 1985 《古代の霧の中から》(徳間書店) 再收録
- 藤田友治, 1982 <好太王碑の開放を求めて> 《市民の古代》 4
- 長正統, 1983 <九州大學所藏好太王碑拓本の外的研究> 《朝鮮學報》 99・100輯合併號
- 星野良作, 1983 <廣開土王碑文研究の新展開 -李亨求氏の新説に接して-> 《日本古代政治史論考》; 星野著作(1991年) 再收録
- 白崎昭一郎, 1983 <廣開土王碑の問題點> 《藤澤一夫先生古稀紀念古文化論叢》
- 藤田友治, 1983 <好太王碑改削説への反証> 《市民の古代》 5
- 李亨求, 1984 <廣開土大王陵碑文再び偽作をただす -中國王健群所長論文に對して-> 《統一日報》 1984年 2月 23・24日字
- 佐伯有清, 1984 <廣開土王碑研究の最近の動向> 《東京新聞》 1984年 3月 14日字
- 佐伯有清, 1984 <王健群氏“好太王碑の發見と採拓”を読む> 《東方》 38
- 井上秀雄, 1984 <古代日朝關係史觀の變遷> 《歴史と人物》 168號
- 王健群, 1984 《好太王碑の研究》(雄渾社)
- 佐伯有清, 1984 <好太王碑研究の百年> 《讀賣新聞》 1984年 12月 18日字
- 鯨清, 1984 <入門・廣開土王碑をめぐる論争> 《季刊 邪馬台國》 第22號
- 高明士, 1984 <臺灣所藏の高句麗好太王碑拓本> (同上)
- 高明士, 1984 <勞貞一院士を訪ね高句麗好太王碑を談ず> (同上)
- 王健群, 1984 <好太王碑の發見と採拓> (同上)

- 王健群, 1984 <好太王碑六年丙申(396年)・八年戊戌(398年)條の考釋> (同上)
- 井上秀雄, 1984 <廣開土王碑の現地に立つ> (同上)
- 白崎昭一郎, 1984 <廣開土王碑は何を語るか> (同上)
- 笠井倭人, 1984 <‘石灰塗付作戰’はあったのか> (同上)
- 久保田穰, 1984 <一弁護士の見た李進熙氏の“廣開土王陵碑の研究”> (同上)
- 藤田友治, 1984 <好太王碑論争の決着> 《市民の古代》 6
- 川崎晃, 1984 <高句麗好太王碑と中國古典> 《NHK學園紀要》 第9號
- 佐伯有清, 1984 <王健群氏‘好太王碑の發見と採拓’を読む> 《東方》 38
- 玄雄, 1984 <廣開土大王碑を尋ねて -中國現地踏査-> 《アジア公論》 第13卷 9號
- 全浩天, 1984 <廣開土王碑文‘改ざん’説をめぐって> 《統一評論》 234
- 井上秀雄, 1984 <古代日朝關係史觀の變遷> 《歴史と人物》 168號
- 李進熙, 1984 <廣開土大王碑文の變造は間違いない> 《アジア公論》 第13卷 11號
- 同, 1985 <シンポジウム: 四, 五世紀の東アジアと日本 -好太王碑を中心に-> 《東方》 46
- 佐伯有清, 1985 <廣開土王碑文にみえる“倭”> 《北海道新聞》 1985年 1月 22日字
- 井上秀雄, 1985 <廣開土王碑の視察報告> 《歴史讀本》 第30卷 第1號
- 千寛宇, 1985 <廣開土王陵碑文再論 上・下> 《アジア公論》 第14卷 2・3號
- 古田武彦, 1985 <第三部 東アジアの動亂と九州王朝> <第二章 高句麗好太王碑> 《古代は輝いていたII 日本列島の大王たち》 (朝日新聞社)
- 辛玲實, 1985 <高句麗の古都集安を訪ねて -廣開土王碑見學を主たる目的に-> 《統一評論》 237
- 高句麗史研究會, 1985 <現代語譯 高句麗好太王碑文> 《季刊 耶馬台國》 第23號
- 鈴木靖民, 1985 <四, 五世紀の倭と好太王碑文 -好太王碑シンポジウムから-> 《歴史讀本》 第30卷 第7號
- 江上波夫, 1985 <好太王碑文をみて> 《東アジアの古代文化》 43
- 李進熙, 1985 <王健群氏の“好太王碑の研究”を読んで> (同上)
- 奥野正男, 1985 <好太王碑文の“倭”と渡來集團> (同上)
- 留目和美, 1985 <好太王碑文をめぐって -シンポジウム“四・五世紀の東アジアと日本”傍聴記-> (同上)
- 李進熙, 1985 <好太王碑を現地に訪ねて> 《季刊三千里》 44
- 鈴木英夫, 1985 <廣開土王碑文加羅關係記事の基礎的研究> 《千葉史學》 8號; 同, 1996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
- 上田正昭・李進熙, 1985 <(對談) 好太王碑と近代史學> 《季刊三千里》 42
- 多田治三朗, 1985 <廣開土王碑が語る古代と近代> 《文化評論》 291
- 鈴木靖民, 1985 <好太王碑文の倭記事> 《東アジアの古代文化》 44
- 田村節子, 1985 <好太王碑文と倭> 《東アジアの古代文化》 44

- 李進熙, 1985 <廣開土王陵碑文の共同調査を> 《アジア公論》 153號
- 辛澄恵, 1985 <廣開土王碑と朝鮮族> 《季刊三千里》 第43號
- 朴時亨, 1985 《廣開土王碑》(そしえて)
- 木屋隆安, 1985 <好太王碑の改ざんはなかった> 《時の課題》 8月號
- 古畑 徹, 1985 <批評・紹介: 王健群著“好太王碑の研究”> 《東洋史研究》 44-2
- 上田正昭・姜在彦編, 1985 <第一章 古代日朝關係史の視點> <第四章 高句麗好太王の碑文>
《日本と朝鮮の二千年》(大阪書籍)
- 古田武彦, 1985 <その六 疑考・好太王碑 -王健群説をめぐって-> 《古代史を疑う》
- 川崎晃, 1985 <高句麗好太王碑と中國古典>(其の二) 《NHK學園紀要》 第10號
- 旗田巍, 1985 <廣開土王陵碑文と古代日朝關係史> 《高句麗文化展》(圖録)
- 李進熙, 1985 《好太王碑の謎》(講談社文庫)
- 寺田隆信・井上秀雄編, 1985 《好太王碑探訪記》(日本放送出版協會)
- 寺田隆信編著, 1985 《好太王碑 -50年ぶりに見た高句麗の遺跡-> (ぎょうせい)
- 東方史學會事務局, 1985 <東方史學會好太王碑訪中團の報告> 《市民の古代》 7
- 古田武彦, 1985 <中國の好太王碑研究の意義と問題點> (同上)
- 王健群ほか, 1985 <討論: 好太王碑をめぐって> (同上)
- 古田武彦, 1985 <好太王碑と九州王朝> (同上)
- 耿鐵華(老田裕美譯), 1985 <高句麗好太王碑及び高句麗王朝と好太王について> (同上)
- 藤田友治, 1985 <好太王碑の新たな論争點> (同上)
- 李進熙, 1985 <好太王碑を現地に訪ねて> 《季刊 三千里》 44
- 三上次男, 1985 <好太王碑研究シンポジウムへの期待> 《シンポジウム好太王碑》(三上次男
ほか, 東方書店)
- 佐伯有清, 1985 <廣開土王碑文研究の100年> (同上)
- 王健群, 1985 <好太王碑研究に關するいくつかの問題> (同上)
- 李進熙, 1985 <廣開土王陵碑の科學的調査を> (同上)
- 西嶋定生, 1985 <好太王碑文辛卯年條の讀み方について> (同上)
- 武田幸男, 1985 <四～五世紀の朝鮮諸國> (同上)
- 上田正昭, 1985 <四・五世紀の日朝關係 -七支刀と好太王碑をめぐって-> (同上)
- シンポジウム, 1985 <四, 五世紀の東アジアと日本 -好太王碑を中心に-> (同上)
- 王健群, 1985 <好太王碑についてのいくつかの情況> (同上)
- 王健群, 1985 <九州大學藏好太王碑拓本の拓製年代について> (同上)
- 西嶋定生, 1985 <廣開土大王碑文辛卯年條の讀み方について> 《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論文
集》(歴史編)
- 李進熙, 1985 <最近の廣開土王陵碑にかんする論争 -王健群氏の新説と國際シンポジウム->
《玄岩申國柱博士華甲紀念韓國學論叢》

- 朴時亨(全浩天譯), 1985 《廣開土王陵碑》(そして)
三宅俊成, 1985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碑は贗造物か> 《在滿二十六年・遺跡探査と我が人生の回想》(三宅中國古代文化調査室)
高明士, 1985 <高句麗好太王碑研究の近況を展望する> 《季刊邪馬台國》 26
劉永智, 1985 <好太王碑の發見およびその他> 《季刊邪馬台國》 26
宮崎雅弘, 1985 <高句麗廣開土王碑に見える“倭”について> 《季刊邪馬台國》 26
武田幸男, 1986 <廣開土王碑の百濟と倭> 《百濟研究》 17
藤田友治, 1986 《好太王碑論争の解明》(新泉社)
浜田耕作, 1986 <高句麗廣開土王陵墓比定論の再検討> 《朝鮮學報》 119・120
市民の古代研究會, 1986 <高句麗文化と樂浪墓> 《市民の古代》 8
高句麗文化展實行委員會, 1986 《高句麗と日本古代文化》
劉永智, 1986 <好太王碑辛卯年記事の探求> 《國學院雜誌》 第87卷 4號
鈴木英夫, 1986 <廣開土王碑文加羅關係記事の基礎的研究> 《千葉史學》 第8號
武田幸男, 1986 <好太王碑の周邊> 《歴史と地理》 第369號
辻本雅英・阿波谷伸子他, 1986 <館藏好太王碑拓本二種> 《ビブリア》 87
福宿孝夫, 1986 <好太王碑の新判讀文字‘辛卯年條ほか, 定說翻す字體解明’> (全國大學書道學會研究發表資料)
武田幸男, 1986 <廣開土王碑の百濟と倭> 《百濟研究》 第17輯
古畑徹, 1987 <廣開土王碑の發見・採拓に關する若干の史料紹介> 《朝鮮學報》 第123輯
佐伯有清, 1987 <高句麗廣開土王時代の墨書銘> 《東アジアの古代文化》 51
杉谷保憲, 1987 <廣開土王碑取材苦行記> 《アジア公論》 第16卷 第5號
山田宗睦, 1987 <“好太王碑論争の解明”書評> 《市民の古代》 9
星野良作, 1987 <酒匂景信將來の廣開土王碑文について> 《東アジアの古代文化》 50
星野良作, 1987 <酒匂景信將來の廣開土王碑文の復元的研究 -碑文研究初期における釋文の分析を通じて-> 《東アジアと日本》(考古・美術篇, 吉川弘文館)
金子鷗亭, 1987 <好太王碑の書について> 《書道研究》 創刊號
福宿南嶋, 1987 <好太王碑文を読む> (同上)
井上秀雄, 1987 <古代朝鮮金石文としての好太王碑> (同上)
比田井南谷, 1987 <わが好太王碑拓本考> (同上)
浜田耕作, 1987 <高句麗好太王碑の話> 《浜田耕作著作集》 第7卷(同朋社出版)
武田幸男, 1988 <廣開土王碑の拓本を求めて> 《朝鮮學報》 126
川崎晃, 1988 <高句麗好太王碑と中國古典>(其の四) 《NHK學園研究紀要》 第12號
武田幸男, 1988 <廣開土王碑おぼえがき(上) 碑文解釋の鍵 -‘大前置文’説を提唱する-> 《UP》 184(東京大學出版會)
武田幸男, 1988 <廣開土王碑おぼえがき(下) 傳承のなかの原石拓本 -李雲從拓本の周邊を探

- る->《UP》185(東京大學出版會)
- 池田溫, 1988 <新刊閱覽室:“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武田幸男編著>《書道研究》6
- 武田幸男, 1988《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東京大學出版會)
- 武田幸男, 1988 <“碑文之由來記”考略-廣開土王碑發見の實相->《榎博士頌壽記念東洋史論叢》(汲古書院)
- 佐竹保子, 1988 <中國碑文字における三百年代後半の轉換-廣開土王碑の文字との關連->《東北大學日本文化研究所研究報告》
- 讀賣テレビ放送編, 1988《好太王碑と集安の壁畫古墳》(木耳社)
- 武田幸男, 1988 <好太王の時代-四・五世紀の高句麗と東アジア->《好太王碑と集安の壁畫古墳》(木耳社)
- 鈴木靖民, 1988 <好太王碑の倭の記事と倭と實體>(同上)
- 浜田耕策, 1988 <好太王碑をめぐる争點>(同上)
- 杉谷保憲, 1988 <國際關係に搖れる好太王碑>(同上)
- 王健群等, 1988《好太王碑と高句麗遺跡》(讀賣新聞社)
- 耿鐵華, 1988 <好太王碑發見時期について新たな検討>《市民の古代》10
- 耿鐵華, 1988 <好太王碑は火で焼かれる以前に完全な拓本ではなかった>《市民の古代》10
- 中小路駿逸, 1988 <好太王碑文私見>《市民の古代》10
- 鈴木靖民, 1989 <好太王碑の倭をめぐる研究動向>《唐代史研究會會報》2
- 佐伯有清, 1989 <武田幸男著“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日本歴史》490
- 武田幸男, 1989《高句麗史と東アジア-“廣開土王碑”研究序說->(岩波書店)
- 星野良作, 1989 <酒匂景信將來の廣開土王陵碑文の一考察-碑文最末“倭”字の由來をめぐる->《研究と評論》第50號;星野著作(1991)再收錄
- 山尾幸久, 1989 <(書評)武田幸男著“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朝鮮學報》130
- 武田幸男, 1989 <中野政一“鴨綠行”並びに解説-或る軍人の見た大正二年の朝鮮西北境->《朝鮮學報》131
- 笠井倭人, 1989 <好太王碑水谷拓本の一考察>《日本歴史》第497號
- 高寛敏, 1990 <永樂一〇年,高句麗廣開土王の新羅救援戰について>《朝鮮史研究會論文集》27
- 白崎昭一朗, 1990 <廣開土王碑拓本の編年>《福井考古學會會誌》8
- 浜田耕策, 1990 <朝鮮に傳わった廣開土王陵碑文>《東アジア古文書の史的研究》(刀水書房)
- 鈴木靖民, 1990 <廣開土王碑文の“倭”關係記事-最近の研究成果をめぐる->《東アジア古文書の史的研究》(刀水書房)
- 浜田耕策, 1990 <故足立幸一氏寄贈の京都府立福知山高校所藏の廣開土王碑拓本について>《調査研究報告》24(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

佐伯有清, 1990 <武田幸男著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廣開土王碑”研究序説-> 《日本歴史》
508

武田幸男, 1990 <高句麗廣開土王碑と目黒區所藏拓本> 《目黒區所藏 高句麗廣開土王碑拓本
寫真集》(東京都目黒區守屋教育會館郷土資料室)

横山昭一, 1990 <目黒區所藏拓本の採拓年代と外的特徴> (同上)

星野良作, 1991 《廣開土王碑研究の軌跡》(吉川弘文館)

福宿孝夫, 1991 《日本古器銘と好太王碑》(中國書店)

高寛敏, 1991 <廣開土王陵碑文のいわゆる辛卯年條について> 《大阪經濟法科大學アジア研
究所年報》2

川崎晃, 1992 <高句麗好太王碑と中國古典> 《古代國家の歴史と傳承》(黛弘道編, 吉川弘文
館)

李進熙, 1992 <廣開土大王碑をめぐる論争> 《青丘學術論集》第2集(財團法人韓國文化研究
振興)

佐伯有清, 1992 <廣開土王碑の謎はどこまでわかったか -最初の新聞報道をめぐる-> 《知っ
ておきたい韓國・朝鮮》(歴史教育者協議會編)

杉山信三・小笠原好彦, 1992 《高句麗の都城遺跡と古墳》(同朋舎)

金昌鎬(竹谷俊夫譯), 1992 <廣開土大王碑辛卯年條の再検討 -日本學界の任那日本府說に對す
る反論(Ⅱ)-> 《天理參考館報》第5號

佐伯有清, 1992 <廣開土王碑はなぜ建てられたのか> 《100問100答日本の歴史》2(歴史教育
者協議會編)

武田幸男, 1992 <中國最初期の廣開土王碑文研究 -傳雲龍と王志修の場合-> 《西巖趙恒來教
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西巖趙恒來教授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林紀昭, 1992 <廣開土王碑 -辛卯年條空闕二字雜感-> 《高句麗の都城遺跡と古墳》(杉山信
三・小笠原好彦編, 同朋舎)

白崎昭一郎, 1993 《廣開土王碑文の研究》(吉川弘文館)

東京都目黒區教育委員會編, 1993 《廣開土王碑と古代日本》(學生社)

浜田耕策, 1993 <高句麗廣開土王碑研究の歩み> (同上)

武田幸男, 1993 <碑文からみた四・五世紀の高句麗> (同上)

鈴木靖民, 1993 <四・五世紀の高句麗と倭> (同上)

横山昭一, 1993 <東京都目黒區所藏拓本について> (同上)

松原孝俊, 1993 <神話學からみた“廣開土王碑文”> 《朝鮮學報》145

武田幸男, 1993 <その後の廣開土王碑研究> 《年報朝鮮學》3

角林文雄, 1994 <高句麗廣開土王碑文にみえる各國の戰略> 《日本書紀研究》19冊

李成市, 1994 <表象としての廣開土王碑文> 《思想》842

李鍾學, 1994 <廣開土王碑文の倭に關する一考察> 《東アジアの古代文化》81號

- 大橋恒平, 1994 <好太王碑の特性 -王領の谷の守護碑-> 《古代文化を考える》 第30號
- 徐建新, 1994 <史料紹介: 北京に現存する好太王碑原石拓本の調査と研究 -王少箴舊藏本と北京圖書館藏本を中心に-> 《史學雜誌》 第103編 第12號
- 李鐘學, 1995 <廣開土王碑文の倭の實體> 《東アジアの古代文化》 85號
- 東京國立博物館, 1996 《高句麗廣開土王碑拓本》
- 鈴木靖民, 1996 <日本における廣開土王碑拓本と碑文の研究> 《廣開土好太王碑研究100年》
((社)高句麗研究會編, ソウル: 學術文化社)
- 田中俊明, 1996 <高句麗の北方進出と“廣開土王碑文”> (同上)
- 濱田耕策, 1996 <廣開土好太王時代の‘聖王’秩序に對して> (同上)
- 李成市, 1996 <廣開土王碑の立碑目的と高句麗の守墓役割> (同上)
- 曹喜勝, 1997 <高句麗の南方進出と廣開土王碑に反映された“倭”の正體> 《東アジアの古代文化》 93
- 鈴木靖民, 1999 <同時代史料で讀む激動の東アジア -七支刀と廣開土王碑-> 《This is 讀賣》
‘99年 2月號
- 武田幸男, 2000 <天理圖書館藏‘高句麗廣開土王陵碑’拓本について> 《朝鮮學報》 第174輯
- 武田幸男, 2000 <“水谷舊藏精拓本”の實像を求めて -その實態解明と類型論-> 《朝鮮文化研究》 7
- 武田幸男, 2000 <廣開土王碑‘碑文抄本’の研究> 《國際書學研究 / 2000》 (書學書道史學會編,
萱原書房刊)
- 武田幸男, 2000 <‘廣開土王碑’の土難・水難・火難說> 《朝鮮學報》 第176・177輯
- 市川繁, 2002 <任昌淳氏所藏廣開土王碑拓本の跋文について>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10號
- 李鐘學, 2002 <廣開土王碑文十年庚子條の新考察 -蔚山地域積石塚の謎を探る->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10號
- 白承忠, 2002 <廣開土王碑文からみた加耶と倭> (第5回歷博シンポジウム“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加耶の交流”, 國立歷史民俗博物館);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2004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加耶の交流》 第110輯
- 武田幸男, 2003 <いままた“辛卯年”條を考える> 《歷史と地理》 561
- 李進熙, 2003 《好太王碑研究とその後》 (青丘文化社)
- 古田武彦 <アイアン・ロード(鐵の道) -韓王と好太王の軌跡-> 《昭和藥科大學紀要》 第20號
- 古田武彦 <好太王碑の史料批判 -共和國(北朝鮮)と中國の學者に問う-> 《昭和藥科大學紀要》
第20號
- 武田幸男, 2004 <‘廣開土王碑’墨本の基礎的研究> 《東方學》 第107輯
- 小林敏男, 2004 <古代初期日朝關係史 -とくに好太王碑文辛卯年條を中心として-(上)> 《大東文化大學紀要》 42號